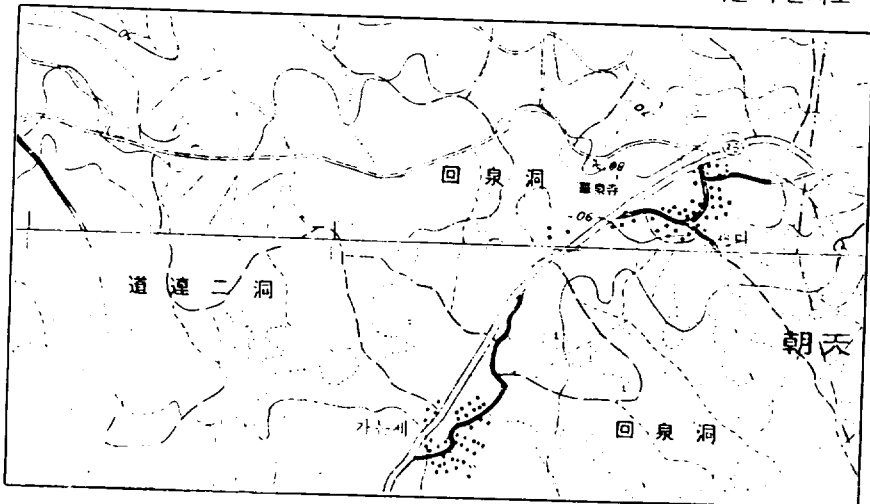


濟州市 奉蓋洞 回泉里 現地學術調查報告

(1993. 7. 30 ~ 8. 2)

1. 調查經緯
2. 마을개황
3. 方言
4. 民謠
5. 說話
6. 信仰

회천 부근지도



縮尺 1 : 25,000

調查經緯

금번 학술조사는 1991년 7월 30일(金)부터 8월 2일(月)까지 3박4일간 제주시 봉개동 회천리(서회천동, 동회천동)에서 이루어졌다.

조사지점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우리 대학교 국어교육과와 국어국문학과에서 그 동안 조사한 곳은 제주 지역을 거의 망라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조사는 비교적 역사가 오랜 마을이면서, 예전에는 교통이 불편하였으나 새롭게 도로가 개통되는 등 기존의 전통문화가 급격히 사라질 위기에 놓인 지역을 우선 선택해 온 셈이다. 그 결과 중산간 마을이나, 해안마을을 중심으로 조사지역이 선택되어 왔고, 따라서 도심지역은 배제되어 왔다. 이 때문에 제주시나 서귀포시 중심가에 대한 조사는 이미 그 적절한 시기를 놓친 셈이 되었다. 이에 이번 조사에서는 도심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도심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마을을 조사 지역으로 선택해 보기로 하였다.

회천은 동회천과 서회천으로 나뉘어진 자연부락인데 4·3사건으로 인해 한때 폐촌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던 마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문화를 보존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지가 어느 마을에 뒤지지 않는 곳이다. 몇 년 전부터 자체적으로 향토지를 발간할 계획을 세워 놓고, 오랜 동안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조사를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 사전답사를 벌였다. 1차조사는 7월 9일에 이루어졌다. 학생회장, 학회장, 각 조사반의 반장, 그리고 그 마을 지리를 잘 아는 김종철(4학년)이 함께 참여하였다. 먼저 봉개동사무소에 들러 마을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이 마을이 행정동이 아닌 까닭에 독립된 데이터를 구할 수 없었다(이 마을은 범정동이다). 얻을 수 있는 자료는 마을의 성별인구와 가구수 정도였다. 따라서 필요한 자료는 회천리에서 직접 조사할 수밖에 없었다. 마을 주민들에게 이번 조사의 일정과 의의에 대하여 설명하고, 조사시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였다. 또한 필요한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조사시에 활용하기로 하였다.

2차조사는 7월 14일에 이루어졌다. 1차 조사에 참여하였던 사람들이 주축이 되었다. 봉개동사무소에 들러 제차 마을 현황에 대한 자료를 좀더 얻고자 했으나 별다른 자료는 없었다. 삼양국민학교 회천분교에서 교직원을 만나 학교현황을 들음과 동시에 그 곳을 조사기간 중의 숙소로 정하게 되었다. 동회천에서 향토지 발간의 책임을 맡고 있다는 전호범씨 맥을 찾아 향토지 발간에 따른 여러가지 애로사항을 들었다. 그 분에게서 마을의 설촌유래, 마을 현황에 대해 얻어 들을 수 있었다. 통장님을 찾아뵙고 동회천 농가소득 및 특용작물, 마을 자치단체

와 관련한 마을 현황을 들었다.

한편, 7월 16일에는 동사무소에서 얻을 수 없었던 마을 현황에 대한 자료를 얻으러 시청을 방문했다. 그러나 시청에서는 봉개동 전체에 대한 자료 밖에 없어서 겨우 토지 종별 현황과 인구 현황에 대해서만 알 수 있었다.

한편, 사전답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30면의 자료집으로 묶어 7월 20일자로 발간하여 조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사에는 예년과 다름없이 학과 재직교수, 재학생, 동문이 참가하였다. 김태곤·최규일(方言), 문성숙·안성수(說話), 윤석산(民謠), 현용준(信仰) 교수님이 분야별 조사반을 지도해 주셨다. 그 밖에, 고정상, 김종철(이상 方言), 좌혜경, 변성구, 이창우, 한정석(民謠), 현승환, 강정식(이상 說話), 문무병, 송창용(이상 信仰) 등 동문들이 도움을 주셨다. 조사반별 참가학생은 아래와 같다()속은 재학 학년이다).

方言 : 김경옥(3), 정경숙, 강순선, 한인숙, 고금자(2), 장미숙, 이효정, 김소형, 고정미(1)

說話 : 허미랑, 오순영(3), 강향선, 황문희(2), 양중호, 최정은, 현성미(2)

民謠 : 양현아, 현순영(3), 윤상희, 양정미, 안정희(2), 부상려, 이운정, 이승희, 안정희(1)

信仰 : 이동입, 강미영, 임운정(3), 김지순, 김현주, 변경숙, 전미선, 이현숙(2), 강영기, 장지이, 송상은(1)

3박4일간의 학술조사 일정은 다음과 같다.

제1일(7월 30일) : 오전 9시 30분 학교에 집결 인원, 장비를 점검한 다음 10시에 학교 버스에 승차하여 10시 30분 경 회천분교에 도착하였다. 12시까지 숙소 정리를 하고 1시까지 중식을 마쳤다. 1시에 마을 개황에 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한 후에, 2시부터 반별 조사에 들어갔다.

제2일(7월 31일) : 첫날의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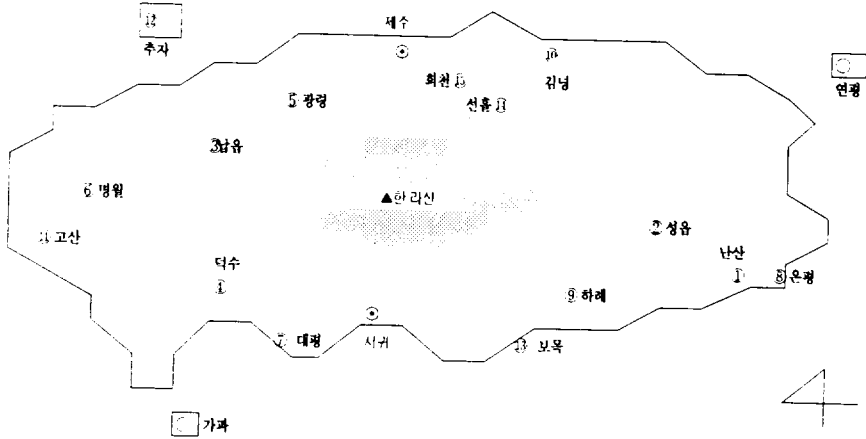
제3일(8월 1일) :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를 자체 평가한 다음, 미비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밤에는 전체적인 조사현황에 대한 평가회를 가졌다.

제4일(8월 2일) : 미비한 부분을 보충·마무리하고 오후 1시에 귀로에 올랐다.

3박4일간 조사를 위해 도움을 주신 동·서회천 통장님을 비롯한 주민여러분, 그리고 회천분교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도에 힘써 주신 교수님과 동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애쓴 조사반장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回泉里 學術調查報告

기존 조사지점도(1976~1993)



- | | |
|-------------------------|---------------------------|
| ① 남제주군 성산읍 난산리(1976. 8) | ⑨ 남제주군 남원읍 하례리(1987. 8) |
| ②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리(1977. 7) | ⑩ 북제주군 구좌읍 김녕리(1988. 7) |
| ③ 북제주군 애월읍 남읍리(1978. 8) | ⑪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1989. 7) |
| ④ 남제주군 안덕면 덕수리(1981. 7) | ⑫ 북제주군 추자면(1990. 7) |
| ⑤ 북제주군 애월읍 광령리(1983. 8) | ⑬ 서귀포시 보목동(1991. 7) |
| ⑥ 북제주군 한림읍 명월리(1984. 8) | ⑭ 북제주군 조천읍 선홍리(1992. 7) |
| ⑦ 남제주군 안덕면 대평리(1985. 8) | ⑮ 제주시 봉개동 동·서회천리(1993. 7) |
| ⑧ 남제주군 성산읍 온평리(1986. 7) | |

마을개황

目次

- I. 자연환경
- II. 역사적 배경
- III. 인문개황

I. 자연환경

동·서회천동은 제주시로부터 동쪽으로 12, 3km 가량 떨어진 마을로, 제주시 봉개동의 5동(서회천), 6동(동회천)에 해당되는 法定洞이다. 시내버스가 1시간에 한 대 꼴로 운행되고 있을 정도로 교통은 불편한 편이다. 두 마을의 거리는 약 0.5km 정도이다.

이 지역의 토양은 주로 용암류 대지에 분포되는 화산회를 모체로 한 토양으로, 미사질 양토로 토양배수가 잘 되고 토심도 깊은 편이어서 농사 짓기에 적합하다. 표토는 농암회갈색의 자갈이 있는 미사질식 양토이며, 깊은 땅속 심토는 암황갈색의 자갈이 있는 미사질 양토, 또는 미사질식 양토이다. 이 토양의 자연 비옥도는 보통이며 유기물 함량은 매우 많고 토양 반응은 매우 강한 산성을 띤다. 이러한 토양은 주로 보리, 콩, 유채, 고구마 등의 재배와 감귤 과수원으로 이용되어 왔다. 최근에는 당근, 수박, 배추 등 특용작물과 약초 등의 재배도 성행하고 있다.

II. 역사적 배경

이 마을 전반에 샘(泉)이 골고루 있다는 데서 명명되었다고 하는 회천(回泉)은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에는 한 부락이었는데("새미"와 "가는새"라는 독립된 자연부락을 이루고 있던 것이 1913년 濟州島 濟州面으로 승격 당시 통합되었다), 지금은 동서로 양단되어 다른 마을을 이루고

이다. 동회천은 샘물을 뜻하는 “새미”(泉味)로, 서회천은 지형이 마치 무엇을 잠그는 형치라 해서 “쇄천”(鎖泉)이라 하던 것이 변형되어 지금은 “그는 새”(緜泉)라 호칭하기도 한다. 회천 역시 4·3사건으로 인하여 초토화되었던 지역으로 옛 흔적이 많이 손상되었고, 고령자가 많지 않다. 더욱이 이 지역의 이야기 수집이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참고자료가 미비한 상태이다. 그러나 뚜렷한 설촌 유래를 밝혀내지 못하고는 있지만 300여년 이상된 오래된 부락으로, 할망당과 하르방당을 주축으로 여지껏 굳건한 신앙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동회천의 모든 신앙은 5개의 자연 석불 중심이다. 석불의 힘이 매우 세어서 모든 신앙의식을 하기 전에, 예를 들면 부근에 있는 화천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석불부터 들른다고 할 정도이다. 이러한 부락 중추적 신앙과 관련하여 석불에 얽힌 이야기가 있을 듯하다. 이 부락이 호열자(말라리아 병) 피해가 전혀 없었던 사실과 연관되어 이것이 석불의 영험임을 암시하는 이야기가 전한다. 이에 반해 서회천은 여신당으로 추정되는 남선밭 할망당이 있는데 당의 이름탓인지 남선비 부인을 추모하는 당이라는 설과 함께 남선비 이야기가 전한다. 주로 어린이 병에 영험하다고 하며, 새미할망이라고 불리워지기도 한다.

1. 東回泉

가. 설촌유래

설촌유래는 연대로 보아 확실치 않으나 역적수월(일명 새미굴)을 중심으로 200~300m 주위에 있는 옛집터(가와터, 솔집터, 절동산)에서 수집된 자기 조각 등으로 보아서 약 6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창건되던 당시 고려 충신이었던 홍좌수, 현반수 등(구전되고 있음)이 유배되어 정착할 곳을 찾다가, 이곳이 산세가 좋고 맑은 샘(현재 화천사 옆)이 있어 삶의 터전을 마련한 것으로 추정되며, 차차 남쪽 현재 위치로 옮겨 살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마을 이름은 천미동(새미)이라 부르다가 현재와 같이 회천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나. 발전과정

해방 이전에는 90여 세대가 현재 마을(축척 산물낭 우영) 중심으로 거주했고, 4·3사건으로 피폐된 마을을 5년여 동안의 소개생활에서 돌아와 3년간의 노력끝에 완전 복구하였다. 자체 자금으로 鄉舍를 건립하여 농로확장 등에 박차를 가하였으며, 재일교포 김평진씨와 예향회원

의 도움으로 상수도 시설, 전기시설(1970) 등을 손쉽게 해결하였다. 또한 자체적으로 회천분교를 건립, 아동교육활동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1972년 새마을 운동이 실시되면서 마을 안길 포장, 농로 포장 등 주민 복리 사업을 추진하였고, 1984년에는 현대식 새마을 회관을 세워 회의 장소는 물론 독서실을 마련하여 문화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감귤, 축산 소득으로 현재 70여 세대가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고 협동·단결이 잘되는 마을로 손꼽히고 있다.

다. 특수지명 유래 및 세시풍습

① 버으내(白雲川:배으내)

“새미”로부터 남쪽 200m 지점에 위치한 이 하천은 하안 구름이 깔린 것 같다고 하여 “버으내” 또는 “배으내”라 불리우던 것이 후에 한자 표기에 의해 “백운천”이라 부르게 되었다.

② 종인내(宗仁川)

“새미”에서 동남쪽 약 150m 지점에 자리 잡은 이 내는 본시 「종인내」였으나 「종인천」으로 부르고 있다.

③ 새미와 역적 수월(새미수월)

제2 우회도로 북쪽으로 500여m 거리에 “새밋물”이 있는데, 여러날 가뭄에도 전혀 물이 마르지 않아서, 예전에는 식수로 사용하였고 현재는 화천사에서 식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다.

“새밋물” 옆에 역적수월(역적술, 새미숲)이 있는데 옛날 이곳에 역적이 살았다는 데서 역적수월이라 일컬어지며, 지금은 6천여 평의 넓은 숲에 대나무를 비롯 녹나무 등 잡목들이 무성하 개발가치가 높다.

④ 세시풍습

새미숲 서남단 화천사 뒷뜰에 자연석불과 제단이 있어 이곳에서 매년 초에 길일을 택하여 전 동민의 안녕과 오곡풍년을 기원하는 鄉祭를 지내고 있으며 인근 부락에서도 소원성취를 빌기 위해 오는 사람이 많다.

2. 西回泉

가. 설촌유래

약 220년 전 高應倫씨가 “산물낭” 뒷밭에 소 100두를 사육하면서, 쫓겨 한섬지기 영농을 호미도 없이 맨손으로 밭을 일궈 김을 매며 인가를 형성하여 살았다는 설도 있으나, 거슬러 올라가 보면 500여 년 전 제주 양씨가 현재 본동 남쪽 속칭 “뭍머리” 부근에서 기거하기 시

작하여 차차 북으로 내려오며 연못(지금은 없어짐)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었고, 이름을 細了 刷里·細刷里·野生洞(드르생이) 등으로 불리다가 현재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나. 발전약사

해방후 4·3사건 이전에는 130여 호가 거주하였으나, 사건 당시의 소개생활을 마치고 북구에 힘써 현재 60여 가구의 주민이 감골을 생산하며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

70년대의 새마을 운동에 힘입어 자체부담으로 전기 가설사업과 안길 포장사업을 마쳤고, 공회당을 헐어 마을회관을 새로 마련, 본동의 고인호씨 도움으로 독서실을 운영하여 향학열을 높이고 있다. 온 마을 주민의 근면성과 협동심 또한 높다.

다. 특수지명 유래

· 종신당(宗臣堂) : 회철경 남쪽에 회천지대의 “맥”이 있다. 즉 “종묘와 신하격의 지맥이다.” 라는 유래에서 붙은 지명이다.

· 주개미(주검이) 동산 : 특별히 경사가 심한 곳이어서 상여를 메고 가다가 반드시 쉬어야만 하는 곳이었다. 그래서 죽은 이가 쉬고 가는 곳이라는 뜻에서 주개미(주검이) 동산이라 칭하고 있다.

· 버른드르(割野) : 근대의 일로 동서 부락의 분계를 의미한 것이라 한다.

· 새샘이(가는샘) : 봉개와 회천의 경계지경에 새로운 샘물이 나타났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가는새(가는샘, 細泉) : 가는다란 샘, 즉 줄기가 작은 샘물이 여러 곳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처음에는 없다가 나중에 다시 나왔다(回)고 해서 回泉이라고 일컬어진다.

라. 振興書堂

교육사업에 뜻을 둔 金明祚, 邊圭遠씨의 협조로 일제말기 서회천에 세워진 서당이다. 4·3 사건 당시에 소실돼서 다시 복구하였으나, 현재는 건물만 남아있다. 서당이 운영되던 당시에는 아래와 같은 서당가(〈진흥가사〉)도 지어 불렀다고 전한다.

振興歌

남쪽에는 한라산이 솟아 있으며
 북쪽에는 한강수가 넘치는 곳에
 활발하게 전진하는 회천 진흥서당은
 한반도 남극에 길이 전하세.
 나가세 나가 회천 진흥서당에 *
 개척의 모든 학문 밝혀 나가자* (*후렴)

【이상, 『봉개동 향토지』, 봉개국민학교, 1986.참조】

III. 인문개황

1. 인구 현황

이 마을의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회천과 동회천의 규모가 크게 차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농가와 비농가의 비율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이 마을이 행정동이 아닌 까닭으로 독립된 조사자료가 없어서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주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 수입도 대개 농업에 기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1 인구 현황

(봉개동 사무소 제공, 1993. 7. 현재)

동 별	세 대	인 구		
		계	남	여
서회천	74	340	162	178
동회천	67	288	144	144
계	141	628	306	322

동·서회천은 해방 이전 또는 4·3사건 이전에는 현재보다 훨씬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었으나, 4·3사건 이후로는 현재와 비슷한 인구를 유지해온 것으로 보인다(최근들어 다시 점차적인 감소세를 보여 1987년 현재 동·서회천 인구가 758명이던 것이, 조사 당시에는 628명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동회천의 경우 해방 이전에는 90여 세대가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

며, 서회천의 경우는 4·3사건 이전에는 무려 130여 호가 거주하였으나, 현재는 60여 가구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을 뿐이다. 70년대의 새마을 운동에 힘입어 자체부담, 재일교포의 지원으로 전기 가설사업과 안길 포장사업, 마을회관 신축 등 큰 사업을 마무리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서회천은 文氏, 梁氏, 高氏 등이 大姓이며, 동회천은 김해 金氏, 蔡氏가 大姓이다. 특히 蔡氏는 한림, 종달 등에 주로 모여 살고 있는데, 동회천은 종달리 다음 가는 채씨의 集姓村이다.

2. 교육시설

서회천에는 일제 말기에 振興書堂이 세워진 바 있으며, 서당가를 지어 부르며 향학열을 고취할 정도로 교육열이 높았다 한다. 주민들의 교육열은 자체적으로 회천분교를 개교하는 데 이른다. 삼양국민학교 회천분교는 교육시설로는 유일한 것이다. 행정구역상으로는 봉개국민학교 소속이 되어야 할 것이지만, 현재 삼양국민학교로 소속되어 있다. 1963년 3월 5일 개교했으며, 위치는 회천동 2307번지이다. 총 1~3학년, 2학급, 28명의 어린이가 재학하고 있다. 4~6학년은 본교인 삼양국민학교에서 수업을 받는다.

표2 회천분교 학생현황

(단위 : 학급, 명)

구분	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남	2	12	1	5	1	2	-	5	-	-	-	-	-	-
여		16		6		5		5		-		-		-
계		28		11		7		10		-		-		-

(제주교육통계연보1993, 제주도교육청)

3. 종교

동회천에는 제주도 지역에서 유일하게 당국이 전승되고 있으며(세밧당), 서회천에도 분향당인 남선밭당이 있어 신앙이 유지되고 있다. 공인종교 기관으로는 화천사가 있을 뿐이다. 무속 신앙이 강한 탓으로 다른 공인종교가 들어서지 못하고 있으며, 화천사도 구복적인 면을 많이 수용함으로써 신도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지금까지 회천리의 자연환경, 역사적 배경, 인문개황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기존 조사보고

서에는 이밖에도 산업구조에 대한 조사 자료도 제시했었지만, 회천리는 행정동이 아닌 법정동이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독립적인 조사자료가 없고 따로 조사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는 해당 자료를 제시하지 않기로 한다. 봉개동 전체의 자료를 통해 대체적인 윤곽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도 있겠지만, 봉개리와 용강, 회천이 각기 나름대로의 특성을 지닌 자연부락이기 때문에, 봉개동 전체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方 言

目 次

I. 평서형	IV. 청유형
II. 의문형	V. 감탄형
III. 명령형	

지금까지 우리 국어교육과 학술조사에 있어서 방언조사는 대부분 어휘조사에 치중해 왔기 때문에 어휘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조사가 미흡한 실정이다. 더군다나 1992년 학술조사 지역인 선홍리와 이번 학술조사 지역인 회천리는 거리상 가까운 지역이므로 어휘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어휘분야의 조사는 본 조사에서 제외시켰으며, 어휘 못지않게 제주 방언의 특징을 잘 나타내 준다고 생각되는 종결어미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조사는 1993년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질문할 용언을 준비하여 완결식 질문법과 환치식 질문법, 이야기식 질문법을 통해서 종결어미를 유도해 내고, 종결어미를 추려내는 방법을 취하였다.

조사된 제주 방언의 종결어미는 평서형, 의문형, 청유형, 명령형, 감탄형으로 나누고 존대 등급에 따라 '하라체', '하여체', '홉서체'로 구분하였는데, 어말어미의 분석과 분류에 있어서는 현평효의 「제주도방언연구(논고편)」(1985)에 수록되어 있는 <부록 I '격어미와 활용어미'>를 참고하였다.

I. 평 서 형

1. 하라체

① -나/-나다

난 못 굴아, 저 집 할머니가 잘 곤나.(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한다. 저 집 할머니가 말

을 잘 한다.)

저 감은 10월 돼민 익나.(저 감은 10월이 되면 익는다.)

한라산 중허리에 구름 끼난 널 비온다.(한라산 중턱에 구름이 끼니 내일 비가 온다.)

나 따라랑 장에 가면 덥고 죽어진다. 오지 말라.(나를 따라서 장에 가면 덥고 고생한다. 오지 말아라.)

② -라

느내집 아이 저기서 놀았서라.(너희 집 아이가 저기서 놀고 있더라.)

아이 저레 감서라.(아이가 저기로 가고 있더라.)

느네 집 감 익어서라.(너희 집 감이 익었더라.)

널 비오켄 해라.(내일 비가 오겠다고 하더라.)

/-ㄴ-/ + /-라/

평교간 이하에 어떤 사실을 단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나 가크라.(나 가겠다.)

③ -저

/-저/

형용사 '있다'의 어간에 붙어서 사물의 존재를 단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마당에 있저.(마당에 있다.)

/-앗-~-엇-/ + /-저/

옛날말 다 잊어 부러저.(옛날 말은 모두 잊었다.)

잘 오랏저.(잘 왔다.)

/-암-~-업-/ + /-저/

비오켄 햐저.(비가 오겠다고 하더라.)

감자 심겨저.(감자를 심고 있다.)

아기 잘 잠저.(아기가 잘 잔다.)

④ -어

/-키어/

나, 장에 강오켜.(의도) (나, 장에 갔다 오겠다.)
여름엔 막 더우켜.(추측) (여름엔 아주 덥겠다.)

/-어/

저래 가실거여.(추측) (저쪽으로 갔을 것이다.)

⑤ -네

이젠 물이 변헌 물질 못허스네.(이제는 물이 변해서) 물질)을 못한다.)
그거 코콜히 하지 안해부난 굿어시네.(그것은 깨끗하게 하지[했지] 않았기 때문에 더
러워 졌다.)

⑥ -마

밭다 가오만.(밭에 갔다 오겠다.)
죽 썩 가만.(죽 썩어서 가겠다.)

2. ㅎ여체

① -어

/-스- + /-어/

그디 가민 못이 이션.(거기에 가면 못[池]이 있다.)
옛날엔 자식한테 굿은 말 못해나션.(옛날에는 자식에게 욕을 못했었다.)
어제 굴은 거 못 사와션.(어제 말한 것 못 사왔다.)
아이고 밝이 더우난 제우 갔다 와션.(아이고 밝이 더우니까 겨우 갔다 왔다.)
요즘은 재미난 거 어션.(요즘은 재미있는 것이 없다.)

1) 오염돼서

2) 해녀들이 바다에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는 일을 제주에서는 물질이라 한다.

② -여

'하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 그 사실이나 상태를 단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우린 가질 못허여.(우리는 가지 못한다.)
아기가 그렇게 착허여.(아기가 아주 착하다.)

③ -주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 그 사실을 단정하거나 추측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옛날엔 시엿 고라 성안이엔 헛주.(옛날에는 시골 성안[城內]라고 했지.)
여긴 제주도 사투리가 엿주.(여기는 제주도 사투리가 없지.)
무사 굴압서? 속숨행 내불주.(왜 말하니? 말하지 말고 있지.)
분 볼르민 아맹해도 골테주.(분 바르면 아무래도 곱겠지.)
이젠 저런 사진 못 찍을거주.(이제는 저런 사진도 못 찍을테지.)

④ -게³⁾

/-/-/ + /-게/

「우리 아이 못 봐시냐?」 가이 저 밑에서 놀암선게.(우리 아이 못 봤느냐? 그 아이는 저 밑에서 놀고 있더라.)
최불암 나오는거, 저거 막 재미난게.(저것이 아주 재미있더라.)

⑤ -메

체언이나 용언 어간에 붙어서 어떤 사실이나 동작, 상태를 같은 연배나 손아랫사람에게 말할 때 쓰이는 종결어미.

솟디 호박낭 딸려가든 죽처럼 되메.(솥에 호박을 넣어서 달이면 죽처럼 된다.)

3) /-게/는 호라체와 하여체 둘 다 쓰이고 있었으며 특별한 구분을 의식하고 있지 않았으나 아주 나이 어린 사람에게는 쓰지 않고 나이가 어리다고 하더라도 잘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할 때 쓰는 것으로 보아 호라체보다는 하여체에 넣어 분류를 하였다.

큰비는 어섬직하고 큰비는 안 오멘.(큰비는 없을 듯하고 큰비는 안 올 것이다.)

⑥ -지

아랫사람고라 문여 곧기는 만무히지.(아랫사람한테 먼저 말하기는 만무하다.)
한가할 때 곧아주지.(한가할 때 말해 주겠다.)
시집왕은 놀아보진 못했지.(시집왕서는 놀아보지 못했다.)

⑦ -멘

화자가 제삼자에 대한 말을 청자에게 들려줄 때 사용하는 종결어미이다.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동등하거나, 청자가 아랫사람일 경우 쓰인다.

저만이 떨어정 제게 안오멘.(저만큼이나 떨어져서 빨리 안 온다.)

⑧ -엔4)

/-ㅈ-/ + /-엔/

난 곧 걸로 싱그쨌.(난 예쁜 것으로 심겠다.)

3. 흡서체

① -다

/-ㅁ-/ + /-네-/ + /-다/

남자영 그져 못놀네다.(남자들이랑 같이 놀지 못합니다.)
그저 화요일에 나옴네다.(그것은 화요일에 나옵니다.)

/-ㅁ-/ + /-다-, -네-/ + /-다/

어느 집의 강 보란 막 더웁디다.(어느 집에 가 보았더니 아주 더웠습니다.)
감이 데탁데탁 열어싹디다.(감이 다탁다탁) 열어 있었습니다.)
저 집에서 누물 잘 솟아싹디다.(저 집에서 나무를 잘 살아 있었습니다.)

-
- 4) 종결어미의 가능성에 대한 고찰이 필요
 - 5) 아주 많이 붙어있거나, 열려있는 모양을 나타내는 의태어

우리 새 막 슬쳐신테다.(우리 소가 아주 살져 있었습니다.)

/-쿠-/ + /-다/

'합쇼' 할 자리에 화자의 의도, 추측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밥 먹젠?」 아니 먹쿠다.(안 먹졌습니다.)

넬 비 오쿠다.(내일 비가 올 것 같습니다.)

가지 맙서. 나가 가쿠다.(가지 마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와시냐?) 모르쿠다. 오라신디 말아신디.(모르겠습니다. 왔는지 안 왔는지)

/-우-/ + /-다/

넬 비오랑 무신일 못헐적하우다.(내일은 비가 와서 아무 일도 못할 것 같습니다.)

아저씨넨 모를겨우다.(아저씨들은 모를 겁니다.)

요쪽에 뽀서. 여기 이실겨우다.(이쪽에 보십시오 여기에 있을 겁니다.)

「장 날이 언재라?」 모리 조천장이우다.(모레가 조천장입니다.)

/-앗-/-엇-/ + /-우-/ + /-다/

삼촌 시우짜? 나 오라수다.(삼촌 계십니까? 저 왔습니다.)

이젠 다 잊어부리수다.(이제는 모두 잊었습니다.)

밖기 막 어두워수다.(밖이 아주 어두웠습니다.)

/-스-/ + /-우-/ + /-다/

「잘 강 안넨다?」 잘 안네수다.(잘 갖다 드렸느냐?, 잘 드렸습니다.)

아이고, 잘도 하영 허여수다.(아이고, 아주 많이 하셨습니다.)

② -게

/-앗-/ + /-우-/ + /-게/

「글안다?」 못 글아수게.(말했냐?, 말하지 못했습니다.)

③ -주

/-ㅁ-/ + /-주/

둘째 아인 학원 선생입주.(둘째 아이는 학원 선생입니다.)

난 학교엔 호주. 학교엔 말은 잘 안나와.(난 '학교'라고 합니다. 학교라는 말은 잘 안 나와.)

꿈을 청이엔 호주.(꿈을 '청'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땐 못 놀아나쑤주.(우리가 어렸을 때는 놀지 못했습니다.)

II. 의 문 형

1. 허라 체

① -나

/-아시-~-어시-/ + /-나/

밥 먹어시냐?(밥 먹었니?)
그거 다 해시냐?(그거 다 했니?)
본딱 다 해져시냐?(전부 다 할 수 있었니?)
방 따뜻해시냐?(방이 따뜻했니?)
근지 말랜 해신디 무사 굴아시냐?(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말했니?)

/-아~-어-/ + /-나/

우리 아이 봐져냐?(우리 아이 봤니?)
수박 작업 갖젠 해냐?(수박 작업 갔다고 하더냐?)
하나라냐? 두 개라냐?(한 개더냐? 두 개더냐?)
댕유지 하영 열아서냐?(댕유지가 많이 열었더냐?)

/-크-/ + /-나/

비 오크나 안오크냐? 널 비오지 안오크냐?(비가 올 것 같니? 안 올 것 같니? 널 비가 오지 않을까?)

/-크:/ + /-나/

죽을 쑤냐?(죽을 쑤까?)
나무(나무그늘)도 어서부난 우리집이 덥지 안오냐?(나무 그늘도 없어서 우리집이 덥지 않니?)

② -니

/-아시-~-어시-/ + /-니/

여름에 싹싹 더운디 무사 그 양말 신어시냐?(여름에 더운데 왜 그 양말을 신었니?)

무사 안 살아시니?(왜 안 살았니?)
 무사 추접헌디 앉아시니?(왜 더러운 곳에 앉았니?)
 농사를 경 많이 흥셴 흥난 얼마나 못전더시니?(농사를 그렇게 많이 하려고 했으니 얼마나 못전되었는지?)

/-키- + /-니/

영 더왕 살아지크니?(이렇게 더워서 살겠니?)

/-니- + /-니/

무사 무셴:니?(왜 무셴니?(무셴지 않았다.)

/-암사-~-엄사-/ + /-니/

무사 굴암시니?(왜 말하니?)

무사 불 껌시니?(왜 불을 끄니?)

/-니/

우리 손주 어디래 가니?(우리 손주 어느 쪽으로 가더냐?)

도채비 보난 어떻게니?(도깨비를 보니까 어떻드냐?)

③ -디, -디

이때도록 어디서 살안디?(이때까지 어디에서 살았느냐?)

노 몇 살인디?(너 몇 살이지?)

무시거 흥셴 사오란디?(무엇 하러 사왔느냐?)

어드래 감디?(어디 가니?)

장항 더전디? 안 더전디?(장독을 덮었니? 안 덮었니?)

말 잘 굴으렌 흥난 잘 굴안디?(말을 잘 전하라고 했는데 잘 전했니?)

물 질어 오란디?(물을 길어 왔니?)

④ -터, -터

동사 어간에 붙은 '-르'에 연결되어서, '해라' 할 자리에 상대방의 장차 행동에 대하여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형어미.

무사 안갈타?(왜 안 갈래?)
덥고 뭐허래 갈타?(더운데 무엇하러 갈래?)
오늘 구경 갈타?(오늘 구경 갈래?)
이거 먹올타?(이거 먹올래?)

2. ㅎ여체

① -가

/-ㄴ-가/

급년 여름엔 더울건가?(급년 여름은 더울까?)
죽어질건가? 살아질건가?(죽을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

/-것-/ + /-가/

그 말 굴것가? 말것가?(그 말을 할래? 안 할래?)
장에 아니 갈것가?(장에 안 갈래?)

② -고, -코

/-ㄴ-고/

어떻 지내신고?(어떻게 지냈을까?)
개난 무신거 ㅎ젠 험신고?(그러니까,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을까?)

/-것-/ + /-고/

거 무신 것고?(그것이 뭐지?)

/-코/

(-르꼬의 개념)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계' 할 자리에 앞으로의 일에 대한 추측, 의문, 상대방의 의도, 화자 스스로의 의문이나 의심 등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오늘은 어디가코?(오늘은 어디갈까?)
날 언제민 좋코?(날씨가 언제면 좋을까?)
우리 췌 슬져신디 즐어신디 못 ㅎ왕 어떻허코?(우리 소가 살찐는지 여위었는지 못 보

고 와서 어떡하지?)

③ -카

/-카/

4·3 사건이런 혹은 알아지카?(4·3사건이라고 하면 알까?)
민오름을 가카? 당낭송일 가카?(민오름을 갈까? 당낭송에를 갈까?)

/-르-/ + /-카/

미래일에 대한 추측, 의문, 스스로의 의심 등을 나타내는 어미.

이거 주지 말카?(이거 주지 말까?)
약치지 말카?(약동약치지 말까?)

④ -어

/-압ㅅ-~-엄ㅅ-/ + /-어/

우리 아이 무사 찾압ㅅ?(우리 아이는 왜 찾고 있니?)
보리 비엄ㅅ?(보리 베고 있니?)

/-앗-~-엇-/ + /-어/

밥 먹어ㅅ?(밥 먹었니?)
방이나 따뜻해ㅅ?(방이 따뜻했니?)

⑤ -멘

무사 불 꺼불멘?(왜 불을 끄니?)
어디레 가멘?(어디로 가나?)

⑥ -안 ~ -언

이거 먹었?(이거 먹었니?)
어디 오랑 이런 말은 들었?(어디서 이런 말은 들었니?)

6) 지명

문딱 다 혼연?(전부 다 했느냐?)
그거 무소완?(그거 무섭더냐?)
무사 그거 사완?(왜 그걸 사왔냐?)

⑦ -라

혼자만 뭐엔 헐꺼라?(혼자만 뭐라고 할 것인지?)
불은 어떻 끄는거라?(불은 어떻게 끄는 거지?)
그거 써지크라?(그것을 쓸 수 있겠니?)

⑧ -순

시동생이나 나이 어린 사람에게 쓰는 말로써 말을 낮추기도 어색하고 높이기도 어색할 때 쓰는 말.

밥 먹었순?(밥 먹었어요?)
잘 잤순?(잘 잤어요?)

⑨ -여

여기서 어떻 물질혼연?(여기서 어떻게 잡수실 하니?)
넬 비 오람직혼연?(넬 비 올 것 같니?)
무사 무실덴겨?(왜 나들이는 다녀?)

3. 흡서체

① -ㅍㅍ, -과

/-ㅍㅍ/ + /-우/ + /-과/

~고 있습니까?, ~고 계십니까? 의 뜻으로 그 동작이나 상태가 계속되고 있음을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형어미.

무시거 출런수과?(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디래 감수과?(어디로 가십니까?)
어떻게 드리 읍센 해도 안 드리 완수과? 무신 애들은 일 이성 아니 들어완수과?(왜 들어 오라고 하는데 드려오지 않습니까? 무슨 애달픈 일이 있어서 안 들어오십니까?)

/-우-/ + /-과/

아이 이뻐직 허우과?(이 아이가 예쁠까요?)
이거 짜우과? 싱겨우과?(이거 짭니까? 싱겁습니까?)

/-쿠-/ + /-과/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 상대방의 의도 또는 추측을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형어미.

장에 아니 가쿠과?(장에 안 가겠습니까?)
먹으쿠과?(먹겠습니까?)

/-것-/ + /-과/

마당 썰 것과? 아니 썰 것과?(마당을 썰 겁니까? 안 썰 겁니까?)
보리 마당에 넣어살 것과?(보리를 마당에 넣어야 할겁니까?)

/-으-/ + /-과/

할아버지, 덤지 않으과?(할아버지, 덤지 않습니까?)

② -가

/-비-/ + /-다-, -데-/ + /-다/

어떻 흥영 경 오래 샅테가?(어떻게 그렇게 오래 사셨습니까?)
여름부젠(농사) 어떻 다 막쳐집테가?(여름 농사는 다 마쳤습니까?)
어머니 그 물 실려올디가?(어머니 그 물 차가웠습니까?)
무시거렌 곱올디가?(뭐라고 말했습니까?)
서너집 아우 골랭이 빌래 와신디 빌려 줘테가?(서쪽 집의 아이가 호미를 빌려 왔는데 빌려줬습니까?)

③ -까

/-비네-, /-비나-/ + /-까/

回泉里 學術調查報告

옛날엔 과자가 싫네까? 밥이 졸바로 싫네까?(옛날엔 과자가 있습니까? 밥이 변변한게 있습니까?)

저녁때 놀러 갈 디가 싫네까?(저녁때 놀러 갈 곳이 있습니까?)

4. 添辭

① 이

울 여름은 막 더울건가 이?(울 여름은 많이 더울까?)

무사 이디 와신고 이?(왜 여기다 왔을까?)

② 예

잘도 곱다 예?(참 예쁘다.)

③ 양

어떻게싱고 양?(어떻게 했을까?)

④ 게

아이덜 영 많이 나난 얼마나 지루나 게?(아이들을 이렇게 많이 낳아서 얼마나 기쁘니?)

문 더꺼져선게 게.(문이 닫혀 있더라.)

Ⅲ. 명령형

1. 呼라체

- 라

이래 오라, 이래 오라, 나 안아나 보져.(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내가 안아보게)

우리 밧디 감시메 혼져 나오라.(우리 밧에 가니까 빨리 나오너라.)

애야, 비 오랍시메 장항 더뜨라.(애야, 비 오니까 장독 달아라.)
닝 자란.(누어서 자거라.)
그저 날 도란.(그거 나에게 달라.)

2. 햅여체

① -아, -어

이거 반찬이 좋지 안햅여도 혼저 먹어.(이거 반찬이 좋지 않지만 어서 먹어라.)
이거 고기 가정 와서메 혼저 슸안.(이거 고기 가져 왔으니까 얼른 삶아라.)
이레 앉안.(이리로 앉아라.)
저거 아사쥬.(저거 가져줘.)

② -게

저거 더퍼개.(저거 덮어라.)
혼저 먹어개.(얼른 먹어라.)
문 더꺼개.(문 달아라.)
혼저 슸아개.(얼른 삶아라.)
저 테레비 봐개.(저 텔레비전 봐라.)

③ -심

동사 어간에 붙어서 손아랫사람에게 그 행동하기를 친밀하게 권하는, 주로 부녀자들 사이에서 쓰이는 어미.

어디러 가멘? 이레 들어오심.(어디로 가니? 이리로 들어와라.)
이거 먹어보심.(이거 먹어봐.)
밭디 감시메 혼저 오심.(밭에 가니까 빨리 와라.)
저레 안네심.(저 쪽에 드러라.)

3. 햅서체

-서

/-하-/ + /-서/

- 자이 드랑 갑션.(저 아이 데려 가십시오.)
- 무시겨렌 굽디가? 딱시 굽아쥬션.(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 편히 그레 늙션.(편안히 그 곳에 누우십시오.)
- 우리집도 마탕 지서쥬션.(우리집도 말아서 지어 주십시오.)
- 영 가져 오라시메 받음션.(이렇게 가지고 왔으니까 받으십시오.)
- 나 감시메 주무십션.(나 가니까 주무십시오.)
- 갈 때랑 곱음션.(갈 때는 말해 주십시오.)

IV. 청 유 형

1. 하라체

-자

- 오늘 벋행 장구경 가자.(오늘 벋삼아 장구경 가자.)
- 구경 잇넌 헛게. 구경 가보자.(구경거리가 있다고 하더라. 구경 가보자.)

2. 하여체

① -게

- 놀레 가게. 그췌 글라.(놀러 가자. 같이 가자.)
- 날 좋으난 그췌 나가게.(날씨가 좋으니까 같이 나가자.)
- 그췌 그러봐게.(같이 가보자.)
- 밥 먹게. 이레 왕 그췌 먹게.(밥 먹자. 이리와서 같이 먹자.)

② -주

- 이레 들어오주.(이리로 들어오지.)
- 무신 말이라도 해보주.(무슨 말이라도 해보지.)
- 흔저 해보주.(얼른 해보지.)

3. 합서체

-주

/-비-/ + /-주/

비오람적후난 오늘랑 약치지 말주.(비가 올 것 같으니까 오늘은 약치지 말죠)
 이거 고기 갈랑 와시매 숨망 먹을주.(이거 고기 나눠서 왔으니까 삶아서 먹죠)
 가 뽕주. 한번 해를주. 이거 빌립주.(가 보죠. 한번 해 보지요. 이거 빌리세요.)

V. 감 탄 형

① -게

아이고, 아인 누개 닭앙 이렇게 고니개.(아이고, 이 아이는 누구를 닭아서 이렇게 곱지?)
 아이고, 꿈도개.(아이고, 꿈기도 하지.)

② -구나

아이고, 이 어른들이 먹어부러었구나.(아이고, 이 어른들이 먹어버렸구나.)

제보자

허신생(男, 83세), 고창실(女, 86세), 홍원순(女, 68세), 김평령(男, 73세), 문무경(男, 81세), 고입출(女, 82세), 장숙옥(女, 79세), 김병생(男, 78세), 홍백룡(男, 72세)

民 謠

目 次

I. 조사경위	2 서회천
II. 조사자료	1) 제보자
1. 동회천	2) 노래
1) 제보자	(1) 밭 불리는 소리
2) 노래	(2) 김질 매는 소리
(1) 밭 불리는 소리	(3) 흥에기 소리
(2) 김질 매는 소리	(4) 마당질 소리
(3) 마당질 소리	(5) 그레 그는 소리
(4) 그레 그는 소리	(6) 방에 소리
(5) 방에 소리	(7) 기타
(6) 잡일하면서 부르는 노래	(8) 창가
(7) 기타	

I. 조사경위

(1) 1993. 7. 30.

숙박지인 회천 분교에 여장을 풀고 점심을 먹은 뒤, 서회천을 먼저 조사하기 시작했다. 우선, 사전조사 때에 약속을 받아 둔 제보자들(고선수, 고신봉, 고인출 등)을 비롯하여, 마을에서 쉬고 있는 노인들에게 저녁에 마을회관에 모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마을회관에는 저녁 8시부터 제보자들이 찾아왔는데 거의 9시가 되어서야 녹음을 시작할 수 있었다. 제보자들은 한꺼번에 많은 노래를, 그것도 녹음을 위해서 불러야 한다는 것에 약간 당황하고 계면쩍어 하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기억을 되살리고, 연습들을 하느라고 녹음이 다소 늦어졌으며 산만한 분위기였다.

이 날 녹음된 노래는 발농사의 절차에 따른 일련의 노동요와 자장가, 그리고 창가였다. 전체적으로 똑같은 순서로 두 번 녹음을 하였는데 첫번째는 제보자들의 요청에 따라 연습하는

기회로 삼았고, 두번째는 정해놓은 순서에 따라 노래하게 하고 녹음하였다.

(2) 1993. 7. 31.

조사일정은 오전에는 서회천에 대해 보충·확인 조사하고, 오후에는 동회천의 제보자들을 만나보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오전에는 두 마을의 제보자들이 대부분 일터에 나가 있어서 만나보기가 어려웠고 다만 동회천의 제보자들(김병생 등)을 비롯해서 집에 있는 노인들 몇 명을 만나 저녁에 마을회관에 모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서회천에 대한 보충 조사도 오후에야 가능했는데, 고임출 할머니 댁에서 자장과와 창가 몇 곡을 녹음하였고, 고신봉, 김순생, 한병양 할머니를 회천분교로 모시고 와서 전날 미흡했던 노래들을 다시 녹음할 수 있었다.

저녁에는 동회천 마을회관에서 제보자들의 노래를 녹음하였다. 발농사에 따르는 일련의 노동요와 잡가를 녹음하였다.

(3) 1993. 8. 1.

오전에는 행사 일정 중의 하나로 참가자들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함덕 해수욕장에서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그래서 조사는 오후에 한 차례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동회천에 대한 보충 조사를 하였다. 전날과 같이 저녁에 마을회관에서 노동요를 중심으로 녹음하였다.

(4) 1993. 8. 2.

출발하기 전 두 마을의 통장을 만나 제보자들의 인적사항을 다시 확인하였다.

II. 조사자료

1. 동회천

1) 제보자

고성은 : 여, 71세, 1293번지	고임현 : 여, 71세, 1318번지
김병생 : 여, 78세, 1341번지	양순열 : 여, 69세, 1202번지
김평령 : 남, 73세, 1207번지	전여홍 : 남, 81세, 1197번지
임경출 : 여, 74세, 1197번지	

回泉里 學術調查報告

2) 노래

(1) 밧 불리는 소리

녹음일 : 7.31. 제보자 : 임경출

얼얼어려렐렐허어

가마귀가 몸사 검은들 으르르하야 마음조

차 검은나 - 허

어허어허 - 일 하랑

요망지달아 허 -

어려려렐렐려

앞발간의 뒷발가멍

어 - 렐렐려허

신나게 말앙 골로로 걷고 걸으랑

어 - 얼화랑

어려어려어려 어허 - 어어호 로로로

신나게말앙 어서어서 불러지라

잘 걸으라 어호 어려려려 어윽하랑

(2) 짐질 때는 소리

① 아웨기 a.

녹음일 : 7.31.

제보자 : A. 김병생 B. 임경출 外

A. 어야도야 방에로구나

B. 아하하양 에헤양어요

A. 짐질짓고 골너른밧디

B. 아하하양 에헤양어요

A. 앞명애랑) 들어나오라

B. 아하하양 에헤양어요

A. 뒷명애랑 나고나가라

B. 아하하양 에헤양어요

A. 우리나라역군 다지쳐간다

B. 아하하양 에헤양어요

A. 선소리랑 곳이나망정

B. 아하하양 에헤양어요

A. 후소리랑 조직조직 받아주소

B. 아하하양 에헤양어요

A. 어긴여랑 방에로구나

아웨기b.

녹음일 : 7.31.

제보자 : A. 양순열 B. 김병생 外

A. 어긴어야 방에로구나

B. 아하하양 에헤양어요

A. 어긴여랑 사테로다

B. 아하하양 에헤양어요

A. 앞명ैया 들어나오라

B. 아하하양 에헤양어요

A. 선소리랑 곳이나망정

B. 아하하양 에헤양어요

A. 후소리덜 잘받아줍서

B. 아하하양 에헤양어요

A. 선소리랑 늦이나망정

B. 아하하양 에헤양어요

A. 짐질손이랑 조직조직 노력보자

B. 아하하양 에헤양어요

1) 앞명에 : 밧이랑의 양끝에 가로 갈아진 곳.

- A. 앞명애야 들어나오라
 B. 아하하양 에헤양어요
 A. 뒷명애야 나오나가라
 B. 아하하양 에헤양어요

② 사데소리

녹음일 : 7.31.

제보자 : A. 임경출 B. 김병생 外

- A. 뒷소리랑 조직조직 받아주소
 B. 어긴여랑 사테로구나
 A. 그만저만 다춧아나 가는구나
 B. 어긴여랑 사테로구나
 A. 우리네역군 다지쳐간다
 B. 어긴여랑 사테로구나
 A. 앞명애랑 소곡소곡
 B. 어긴여랑 사테로구나
 A. 뒷명애랑 조직조직
 B. 어긴여랑 사테로구나

(3) 마당질 소리

녹음일 : 7.31.

제보자 : A. 양순열 B. 고임현 外

- A. 어요하야 B. 어야도하야
 A. 허요하야 B. 어야도하야
 A. 때려고가자 B. 어야홍아
 A. 어요하야 B. 어야도홍아
 A. 앞명애도 B. 뒷명 (웃음)
 A. 앞으로랑 (휴지)
 A. 어요하야 B. 어야도홍아

- A. 아허요하야 B. 어야도홍아
 A. 어요하야 B. 어야도홍아
 A. 앞으로랑 B. 어요하야
 A. 조근조근 B. 어야도홍아
 A. 때려도보라 (웃음)
 A. 어야도하야 B. 깨어나지라
 (웃음)

(4) 그래 그는 소리

녹음일 : 7.31.

① 제보자 : A. 임정출 B. 김병생

- A. 이연이연이어도하라
 B. 이연이연흔저곰양 저녁이나 일척혀영
 먹어사
 A. 이연이연 이어도하라
 B. 이연이연 이어도하라
 흔저곰양 실른애기털 흔저먹영 잠을
 채와사 흥!-네

② 제보자 : A. 고성은 B. 양순열

- A. 이연이연 이어도그래
 B. 이연이연 이어동하라
 A. 이어그래 이어도하라
 B. 이연말랑 말아근하라
 A. 이연이연이연 이어도그래
 B. 이연이연 이어동하라
 A. 이어도그래 이어도그래
 B. 이연이연 전성곳은몸아
 A. 이연이연 이어도그래

- B. 그레굴양 역들젠흐난²⁾
 A. 이연이연 이어도흐라
 B. 저고릿얏십 다절단난다
 A. 이연이연 이어도흐라
 B. 뱅이지영 역들젠흐난
 A. 이어도그래 이어도그래
 B. 치매각이 전줄이난다
 A. 이연이연 이어도흐라

간다⁵⁾
 이어도흐라 이어도흐라

(6) 잡일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

① 시집살이 노래

녹음일 : 7.31. 제보자 : 고성은

성님성님	사촌성님
시집살이	어땀데가
곧도말고	이루도말라
장독같은	시아방애
압탁같은	시아명애
무꾸러같은	서방님애 ⁶⁾
코생이같은	시누이 ⁷⁾
고치장이	맏다흔들 ⁸⁾
요네쓰집살이만이나	매울소나 ⁹⁾

③ 녹음일 : 1993.12.29.(보충조사)

제보자 : 김병생

유월밤에 밀닷말골안
 추억상에 다섯을얼어단
 시아바님애 하나를드리고
 시어머님애 하나를드리고
 서방놈애 하나를드리고
 시누이에 하나주고

나직시는 추억상이가 하나이로구나³⁾

② 에 설 때

녹음일 : 7.31. 제보자 : 김병생

수박꼭질	뚝딱뚝려
강남의백철을	쓰르르비왕

(5) 방애소리

녹음일 : 7.31.

제보자 : A. 임정출 B. 양순열

A. 이연이연 이어도흐라
 B. 가시오름 강당장침에 시콜방애 새글렁
 가는구낭⁴⁾
 전성국은 이네몸가난 니콜방애 새맛아

- 3) 추억상애 : 상에떡
- 4) 시콜방애 : 시콜방애. 세사람이 박자를 맞추어 쟁는 방아
- 5) 전성 : 前生
- 6) 무꾸러 : 문어. 물꾸러, 문계.
- 7) 코생이 : 고생이. 고행이. 고질맹이. 골생이. 고생놀래기. 양놀래기.
- 8) 고치장 : 고�추장.
- 9) 쓰집살이 : 시집살이.

2) 역들다 : 남의 일을 하다.

방관제로 ¹⁰⁾	휘휘저성	왕이자랑	왕이자랑
검은씨랑	뻐어두고	혼저자불라	저녁도 어두검저
붉은점흔점을	너를줄까	저녁허여사	네네 어머니 아버지가 먹을거
그도저도	내가싫소	아니가	
산에올라	틀드래나	왕이왕이	
오미자나	개살구나	(말) 속숨하라	
그것이나	허여볼까		
그도저도	내가싫소	b. 제보자 : 고성은	
그러면	어찌허나		
한새팽풍	알들르고	왕이자랑	왕이자랑
족지팽풍	위둘러서	우리애기	자는소리
원앙정이	차베개에	놈의애기	우는소리
은실금실	놀이볼까	왕이자랑	왕이자랑
그도저도	내가싫소	나라에	충성동이
그러허면	고팡간에 들어가면	왕이자랑	왕이자랑
대독이나	소독이나	일가방상에	화목동이
그도저도	내가싫소	왕이자랑	왕이자랑
정지간에	들어가면	부모조상에	효도동이
대말치냐 ¹¹⁾	소말치냐 ¹²⁾	왕이자랑	왕이자랑
		우리애기	잘도노는구나
		혼저 자라	자라
		왕이자랑	왕이자랑

(7) 기타 — 녹음일 : 8.1.

① 아기 흥그는 소리

a. 제보자 : 김병생

어진 할마님자손

왕이자랑 왕이자랑 자랑

선잠자게 말앙

할마님자손 잘제와줍서

② 창가

제보자 : 김병생

a.

달아달아

밝은달아

이태백이

놀던달아

10) 방관제 : 젓가락의 하나.

11) 대말치 : 메주통을 삶는 큰 숟.

12) 소말치 : 밥하는 작은 숟.

回泉里 學術調查報告

저기저기
계수나무
옥도끼로
급도끼로
초가삼간
양친부모
천년이나
살고지고

저달속에
박혔으니
찍어내고
다슬려서
집을지어
모서다가
만년이나

c. 한갑출
- 도롱이
도롱이도롱이 지게정나오라

- 두메기, 쇠두메기
맹맹이 춤추라 사랑방에 데령가마

d. 강이(계)

b.

동산에 달이솟아 창에비추니
어- 언간 깊이든잠 놀라깨었네
이웃저웃 빨적에는 해도바쁘니
집도없고 친척없는 우리두형제
인간을 멀리떠나 산중에가니
들리는것 새소리와 바람소래와
앞뒤에는 절벽강산 폭포소리와

오범벽지라 소범벽지라
밤하라 죽하라

e. 떡감은 후 물 떨어면서

물할애비 떨어지라
늑랑나랑 갈망먹게

③ 동요 · 놀이요

a. 비 올 때

비야비야 오지마라 장통밭디 물넘업져
묵은우장 건어동 새우장쓰라

b. 신방말축(소금밭치)을 가지고 놀 때

제보자 : 한갑출(70세), 양순열

산드레 절하라

산드레 절하라

2. 서회천

1) 제보자

강경생 : 여, 73세 고선수 : 남, 60세

고신봉 : 여, 73세 고임출 : 여, 82세

고창률 : 남, 72세 김순생 : 여, 66세

김정문 : 여, 72세 한병양 : 여, 68세

2) 노래

(1) 밧 불리는 소리

- 녹음일 : 1993.7.31.

① 제보자 : 한병양

어 려 어릴러 어허 어어려려 허 아
 얼러 - 어릴 어허어 -
 어릴러 허어 -
 어릴러 허야 허얼 하랑

어아어 —— 어야

어 - 어허 어양 어어어허어 랑
 어허어허어랑
 어허어어 - 어어 - 이 --
 어 요래야 사테로구나

② 제보자 : A. 고신봉 B. 한병양

A. 어러려 어러려 어러려 어러려려 아
 얼릴릴 어러려 어어려 화랑
 B. 어렐러 - 어야 - 어허 어렐러 허 - 예
 해
 여 - 어렐러 어허야하 예해
 아아하 어 - 얼 하랑
 A. 이년의 몽아지들아 걸으라 걸으라
 어어 -
 어러려려 어려 어려 어허 허령
 어러렐러려 허어 어어려 - 와 하랑

② 쯤른사태

제보자 : A. 고신봉 B. 한병양

A. 여긴여랑 사테로구나
 B. 어기여랑 상사태야
 A. 예긴여랑 사테로구나
 B. 요노래불령 요검질매자
 A. 어 - 긴 여랑 사테로구나

(2) 검질 매는 소리 - 녹음일 : 1993.7.30.

③ 아웨기(서우젓소리)

a. 녹음일 : 1993.7.30.

제보자 : 한병양(A), 고신봉(B), 김순생
 (C), 선소리 제외한 후렴(D)

① 진사태

a. 제보자 : 한병양

어 - 허어 - 어허어 - 야 어허
 어허어 - 어허어야
 어 - 허어야 어 - 허어 - 야
 어허 어허하 어어어 - 어야 어 하 기 어
 랑 사테로구나

A. 아양 아 - 사테로구나
 D. 아아아향에헤양어요
 B. 어여차 소리에 배놓아간당
 D. 아아아향에헤양어요
 B. 어여 - 두어라 방에로구나
 D. 아아아향에헤양어요
 B. 선소리랑은 굶으니망정
 D. 아아아향에헤양어요
 B. 후소리랑은 잘이나받우
 D. 아아아향에헤양어요
 B. 어야도라허랑 방에로구나

b. 제보자 : 고신봉

- D. 아아아향에혜양어요
- B. 어디에여영 방아로구나
- D. 아아아향에혜양어요
- B. 요소리로랑 벅을삼고
- D. 아아아향에혜양어요
- B. 뒷명에랑은 물렁사고
- D. 아아아향에혜양어요
- B. 앞명에랑은 들어오라
- D. 아아아향에혜양어요
- B. 뚫다뚫다 동성별뚫다.
- D. 아아아향에혜양어요
- B. 저별은뚫구나 임의동창에비추고
- D. 아아아향에혜양어요
- C. 뚫다뚫다 안창남의비행기
- D. 아아아향에혜양어요
- C. 내려다보아라 엄복동의자전차
- D. 아아아향에혜양어요

b. 녹음일 : 1993. 7. 31.

제보자 : A. 고신봉 B. 한병양, 강경생

- A. 노세나 놀아라 젊어 놀아라
- B. 아혜양 어요
- A. 언제 놀고 언제 다시나 놀아보리
- B. 아혜양 어요
- A. 명사십리 해당화는
- B. 아혜양 어요
- A. 꽃진다고나 설위를마소
- B. 아혜양 어요
- A. 너는 맹년 춘삼월 돌아오면은 너는 다
시 피련마는

- B. 아혜양 어요
- A. 인생헌번 죽엄가면 다시오지는 못하리
로당
- B. 아혜양 어요
- A. 젊은청년 소년들아 백발보고서 웃지마
소
- B. 아혜양 어요
- A. 청춘늙어 백발이니 이네인생 한번가면
다시오지는 못하리로당
- B. 아혜양 어요
- A. 낭도늙어 고목이되니 오던나부도 아니
오고
- B. 아혜양 어요
- A. 청춘늙어 백발이되니 다시젊지는 못하
리로당
- B. 아혜양 어요
- A. 청춘늙어 백발이되니 오던님도 아니나
오네
- B. 아혜양 어요
- A. 놀다죽어도 공동묘지 기다죽어도 공동
묘지
- B. 아혜양 어요
- A. 죽엄가면 또못오는길 살아실적 어서놀
자

(3) 흥애기소리 - 녹음일 : 1993.7.31.

제보자 : 한병양

선들선들 -
앞이랑 누르르멍 - 어형허야
요네호미 히 - 이 -

혼자서나 어허 - 흥아

어어허 -

흔저 풀도 선들선들 허쳐지라

허허어 -

앞명에도 언제쓰민 - 야아하

어허어 - 돌아오코

어허 -

산범그든 어어허 - 야

나호미야 어허어 - 야

선들선들 혼저나 요출 혼저

비어지라 아 - 하 -

A. 어야도하야

B. 하야도흥

A. 모큰모큰

B. 어어어흥

A. 때려나보자

B. 하야도하야

A. 어야흥아

B. 어어흥

A. 어야도하야

B. 하야도하야

A. 요명에는

B. 어어흥

A. 생국이로다

B. 어어흥

A. 힘을내고

B. 어어흥

A. 때려나보자

B. 하야도하야

A. 어야흥

B. 하야도하야

A. 다때려졌져

(5) 그래 그는 소리

녹음일 : 1993.7.31.

제보자 : A. 고신봉 B. 한병양

(4) 마당질 소리 -- 녹음일 : 1993.7.31.

제보자 : A. 고신봉 B. 한병양

A. 어야하야

B. 하야도하야

A. 어야흥아

B. 허기야흥

A. 어야하야

B. 하야도하야

A. 요동산때리자

B. 어허흥

A. 어기야흥

B. 하야도하야

A. 때리고때렸다

B. 어허흥

A. 모큰모큰

B. 앞명에들으자

A. 때리고때리자

B. 동산이랑은

A. 앞동산때리자

B. 어어흥

A. 요앞저앞

B. 어허흥

A. 때리고때리자

B. 어어흥

A. 뒷명에랑

B. 어야도하야

A. 나나가곡

B. 어어어흥

A. 앞명에랑

B. 하야도하야

A. 들어나오랑

B. 어어어흥

A. 이어도 그래 이어도 그래야

B. 이어도 그래 이연 그래로구나

A. 이 그래 굴으 - 앙 범벅 허영

B. 이영 그래로구나 그래로구나

A. 나도흔직 나도흔직 맛 좋게 먹게

(웃음)

A. 서른어머니 날무신날에 이어도그래

B. 전성곳은 구월에날낭

구월곳이 내곳이더라

(6) 방에소리

① 녹음일 : 1993.7.30.

제보자 : 고선수

가시오름

강당장참에

回泉里 學術調查報告

승시조해 ¹³⁾	들이젠 허난	청춘남녀	작을지어서
배긴개가	공공공하고	망월구경도	가시는데
트든다이	고기옥한다	우리님은	어디를가난
		서신일장	소식없나

② 녹음일 : 1993.7.31.

제보자 : 한병양

이어도방에야	이어도허라
도리송당	큰애기들
피방에지멍	새글렀더라
이무도방에	
요놈의곡속	지어나지라
요걸로랑	밥허영은
모다안장	먹게야으
흔저심을	내고지라
이어도방에	이어도방에
요놈의방엿	언제나나면
곳이나디	
섯고섯다	이어도방에
칠품도허다	요놈의방에
어서나근	지어나지라

이월이랑	한식절은
개자축의	넋이로다
북망산천	찾아가서
무덤을안고	통곡한다
무정허고	아속한님은
오랜덴말도	영없구나

삼월이라	삼짓일에는
제비도여치도	찾아오는데
우리님은	어대를갔나
집찾아올줄을	모르는구나

사월이라	초파일은
석가모니	탄일인디
집집마다	등불달고
자손바름을	빌건마는
하늘을봐야	별을따지
임없는이몸	소용있나

(7) 기타

① 입타령

녹음일 : 1993.7.31.

제보자 : 고신봉

정월이랑	보름날은
답교를하는	명절인디

오월이라	단오날은
추천을하는	명절인대
녹의홍상	미인들은
입을껴안아	뛰놀건만
우리님은	어디를가난
추천허잔말도	영없구나

13) 승시 : 흥사

유월이라	십오일에는	오동짓달	돌아오난
유두명절이	기아나나	절기는벌써	내년이란
백분청룡애	지진절편	동지팔죽을	먹고나니
쫄깃쫄깃	맛도있네	원수의나이만	더먹었네
빈방에앉아	혼자먹자니	나이는한나이	더먹었는데
기가막혀서	못먹겠구나	님은더하나	안오시니

칠월이라	칠석일에는	선달이라	막달인데
견우와직녀도	만나는날	빛진스람만	쫄릴때라
은하작교가	멀다하여도	복조리는	사라고하되
일년에한번은	만나는데	입건지는조리는	영없구나
우리님은	어델가난		
백년에한번도	못만나나		

② 얘기재우는 소리

a. 녹음일 : 1993.7.30. 제보자 : 고신봉

팔월이라	보름날은		
달맞이구경도	가시는데	자랑자랑	왕이자랑
우리님은	어디를가난	어서자라	자랑자랑
달맞이구경도	안오시려고	저래가는	검둥개야
		우리에게	재와도라
구월이라	구일에는	이래오는	검둥개야
그러기도	이녁집을 찾아온덴	우리에게	쩍고가라
말모른짐승도	집을찾아오련마는	자랑자랑	왕이자랑 어서자라
우리님은	어디를가난	할마님자손	어서자라
짐찾아올줄도	모르는구나		

b. 녹음일 : 1993.7.31. 제보자 : 고임출

시월이라	상달인데		
짐집따다	고사로다	자랑자랑	왕이자랑
불성님전에는	백설기요	은자동아	금자동아
터주전에는	무슬기라	어서자랑	왕이자랑
재주소망도	빌거니와	왕이자랑	왕이자랑
우리님명복도	빌어볼까	우리에게	재와도라

느네애기	재와주마	맑고푸른	반공중에
우리애기	아니재와주민	종달새는	비비베베
질긴질긴	총배로 ¹⁴⁾	버들장막	깊은속에
지픈지픈	천지속에	금빛웃을	걸쳐입고
들이쳤당	내쳤당허켜	피폴피폴	우는외폴
자랑자랑	웁이자랑	봄을혼자	즐기는듯

(10) 창가 -- 제보자 : 고입출

① 녹음일 : 1993.7.30.

늦등잔에	불을밝히고
금등잔에	불을밝히고
임오시길	기다립니다
안자시면	입이올까
누웠으면	잠이올까
앉았어도	입아니오고
누웠어도	잠아니웁니다
님도종종	날생각마세요
나도종종	님생각버려야합니다
버리고말고요	버릴거예요 버릴겁니다

② 녹음일 : 1993.7.31.

앵화도화	만발한데
춤추는	저나비떼와
노래하는	이벌저벌
서로쉬여	왔다갔다

③

향해중에	돌진한	조선반도
우리들이	생장하는	낙원이로다
박달나무	우거진	그늘속에
차차차라	장성하면	우리북이니
즐거허라	춤춰라	뛰어날치라
높은산과	넓은들은	우리집이요
붉은꽃과	푸른잎은	우리웃이라
절(절)상후다	우리산은	무궁화동산

14) 총배 : 말의 갈기나 마소의 꼬리털로 드린 참바



민요 조사 장면 제보자 : 고임출, 김순생, 김정문, 고신봉, 한병양



제보자 : 김병생, 양순렬

說 話

目 次

- | | |
|-----------------|-----------------------|
| 1. 역적술 | 19. 문씨 할아버지 이야기 |
| 2. 석불이 만들어진 유래 | 20. 장사 양규찬 |
| 3. 삼성혈 | 21. 대식가 김재삼 |
| 4. 장사 김진선 | 22. 호열자 고친 이야기 |
| 5. 대식가 김진선 | 23. 평망동산 |
| 6. 낚시 이야기 | 24. 설문대 할망 |
| 7. 스만이1 | 25. "아자십서?" |
| 8. 귀신대1 | 26. 산(무덤) 파는 역사 |
| 9. 산이무덤 | 27. 이사 |
| 10. 고려장 | 28. 자청비 |
| 11. 아기 먹은 이야기 | 29. 은막개 은덩드렁 |
| 12. 석불과 관련된 이야기 | 30. 죽의 짓 사위 |
| 13. 산이무덤 없어진 유래 | 31. 콩 한 쪽도 있으면 나눠 먹는다 |
| 14. 도채비1 | 32. 고자 한 빛 꺾어 한 빛 |
| 15. 도채비2 | 33. 바보 사위와 김치 |
| 16. 꼬리대작 뿌리대작1 | 34. 영리한 아들 |
| 17. 꼬리대작 뿌리대작2 | 35. 남선비 |
| 18. 귀신대2 | 36. 스만이2 |

1. 역적술

제 보 자 : 허신생(남·80세)

조사일시 : 1993년 7월 30일

조사장소 : 제주시 회천동 1215번지

역적술¹⁾이라 허는 것은, 어떻게 해서 역적술이나 허면은, 옛날 그 역적이라고 허는 사람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 살면서, 지나가는 사람 이제 지나오는 사람 상거래를 해 가지고 돈 같은 거 이시믄 털어앗고²⁾ 이제 또 젊은 여자들이믄 겁탈도 해볼고 뒤흔지 수중에 담은 거 이시믄 빼앗아 불곡 허니까나. 역적이라는 사람들이 살아나니까 역적술이라 허는데, 옛날 게나저나³⁾ 그 질로⁴⁾ 지나가는 사람은 그냥 버려두질 안여시난.

2. 석불이 만들어진 유래

제 보 자 : 허신생(남·80세)

조사일시 : 1993년 7월 30일

조사장소 : 제주도 회천동 1215번지

절간 뒤에는 석불(石佛)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독, 독 싯조⁵⁾ 독? 독으로 영 멘들아 가지고 석불이라고 해서. 어떻게 해서 석불이라고 했냐믄 우리 동네 동회천 주민들이 다 거기 가서 이제 음력 정월달 나면은 제(祭)를 지낸다고 석불이라 허는 데서. 절간에 오는 사람들도 거기 강⁶⁾ 제를 드리고, 아기를 못 낳는 분들이 있으믄 거기 강 몇날 몇일 제를 드리면은 아기가 있는 분들도 있고, 일상적으로 가당오당 공을 드리면 아기를 낳는 수도 있고 맹글던지가 한 삼백년 돼실 겁니다. 어떻 행 그걸 멘들었는고 허니까 처음에 그것을 멘들 때에다가 동네 주민들이 젊은 사람들이 캄짜기⁸⁾ 죽어 가니까, 그것이 이상허다 허면서 이전 그럼 슬픔이나 위해 보자고, 공을 들여보자고 해서 멘들었답니다.

3. 삼성혈

제 보 자 : 허신생(남·80세)

- 1) 제2 우회도로 북쪽으로 500여m 떨어진, '새밋물' 옆에 있는 숲으로 '역적수혈' 또는 '새미술'이라고도 일컫는다.
- 2) 있으면 털어서 갖고
- 3) 그라나저러나
- 4) 길로
- 5) 독 있지요?
- 6) 가서
- 7) 만들어진 지가
- 8) 갑자기, 급작스럽게

조사일시 : 1993년 7월 30일

조사장소 : 제주시 회천동 1215번지

“고량부(高良夫) 삼성(三姓)이 굴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굴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중국에서 인제 무슨 저 불로초(不老草) 괜 허는 약이 제주도 한라산에 있다고 하니까, 중국의 그 주장허는 사름이 그 주민들 보고,

“그 약을 아는 분이 이시면 손 들어서 오라.”

허니까, 흔 사람이 나와 가지고,

“제가 그 약을 압니덴.”

이렇게 허니까. 이젠,

“그 약을 좀 타오라.”

허니,

“혼자 가도 안되고 흔 백명은 이제 가야 험니덴.”

허니깐, 허난 그 사름이 100명을 데려 왕 와가지고 불로초 약은 못허고, 이젠 그냥 외국 길에 갈려고 일본드래⁹⁾ 강 자기 일행 백사름을 데령 가는다. 그땐 비행기가 어선¹⁰⁾ 배로 갈 때니까. 배로 이젠 일본드래 가게 됐다 말이야. 아, 일본에 가당 보니깐 고량부(高良夫) 삼성(三姓) 세 사람이 그냥 떨어져 버렸단 말이야. 일본 강 내려보니까. 계난 그 사람들이 이젠 그 굴을 파 가지고 그디¹¹⁾ 살았던 말이야. 계난 어떤 사름들은 그 굴에서 사름들이 나왔다 이렇게도 말해. 그때 그 삼성 사름들이 7치¹²⁾ 안 강 떨어져 가지고 굴 파가지고 살안, 계난 삼성혈(三姓穴)이주.

4. 힘센 장사 김진선

제 보 자 : 허신생(남·80세)

조사일시 : 1993년 7월 31일

조사장소 : 동회천 팽나무 그늘 아래서

9) 일본으로

10) 없어서

11) 거기

12) 같이

그 전에 김진선이란 양반이 힘이 장사라서. 산에 살았던 김진선이란 사람. 그 양반이 힘이 장사라났주. 지레¹³⁾도 크고 발도 뭐 보통 넘어노니까, 이 뭐 우리 고무신 같은 건 못 신어. 이녀으로¹⁴⁾ 초신¹⁵⁾만 삼아가지고 신어났주. 워낙 발이 커노니까. 그래 저 산에 가 가지구 산 골짜기에서 살았는데 흠어명하고 살았는데, 참 힘이 장사라났주. 그때 여기서 살기가 곤란하니까 숯이라면 알까? 숯? 나무 태운거. (청중 : 예) 숯 못으명 살았던 말이여. 숯을 못어 가지고 풀명.¹⁶⁾ 우리도 강 사당 저 방안에 이렇게 똥그랑한 화덕에(손으로 화덕 모양을 동그렇게 그리며) 숯을 놔가지고 불을 술랑¹⁷⁾ 우리가 손도 꺾고 발도 꺾고 지금은 보일라영 무슨 뭐시냐? 옛날 이야 보일러가 이시카 연탄이 이시카(청중웃음). 숯을 못으명 살다가 일본에 가게 됐어요 그때는 여기 사람도 일본에 많이 갔주. 일본에 가 가지고 이젠 아는 사람보고 일을 좀 허여 달라고 하니까, 그러라고 해서 철공소 일을 구했는데, 철공소 쇠로 뿔 맨드는 데 그 공장 앞에도 도로가 있어요, 질이. 딱 한번은 트럭에 짐을 담백 실은 차가 나가다가 그냥 고랑창¹⁸⁾에 그 바퀴 한 쪽이 빠져났단말이야. 아 이놈의 운전수가 어떻게면 좋을까 허다가 공장에 들어가 공장의 인부들을 좀 빌려달라고, 요즘의 사장이지, 사장보고 부탁하니깐 그러라고 허영, 아 공장 사람들이 다 가서 차를 이곳저곳 들르든 뭐 올라오나, 차가. 안 올라오지. 이제 그 사람은 그 만허 허는 것을 보다가 “내 한번 해보겠다.”고, 강 웃뚝지¹⁹⁾로 반양 웃끗²⁰⁾ 들르난 그냐(청중 웃음) 차가 웃끗 나완. 그 철도에 끼는 철 있지 않으나? 열차 같은 거 지나가는, 아 그놈의 것을 한 끝다리²¹⁾ 심어²²⁾ 영영(손동작을 하면서) 우리 막다허²³⁾ 심어 영영허듯 했지. 아 이제 사장이 겁을 내어 ‘아이구 이런 사람 냐당 큰일나겠다.’ 그래서 사장이 차비 주명,

“재발 돌아가줍써.”

무사완²⁴⁾ 그래서 부인과도 한번 상대를 허면 부인이 며칠 그냥 꼼짝도 못허었어(청중 웃음). 그런 분이 이서나서.

13) 키(身長)

14) 자기 스스로

15) 짚신

16) 팔면서

17) 이궁이나 화덕 따위에 불을 일으켜 붙이다.

18) 폭이 좁고 깊은 도랑, 개골창

19) 어젯뚝지 윗부분

20) 단번에 힘 안들이고 들어 올리는 모양

21) 끝부분

22) 잡고서

23) 막대

24) 무서워서

5. 대식가 김진선

제 보 자 : 김태석(남·49세)

조사일시 : 1993년 7월 31일

조사장소 : 동회천 땡나무 그늘 아래서

옛말로 들은 말인데, 어디 강 직장을 구하니까,

"월급을 얼마나 주면 하겠냐?"

하니까,

"월급은 필요없고 맥여만²⁵⁾ 달라."

허니까, 아 그디서는 공장에서는 얼마나 좋거든, 얼마나 먹느냐 허여 말이여. 아, 근데 그
공장에서 한 몇일을 맥여보니까, 흠치²⁶⁾ 먹는 게 한 몇 사람 먹는 거 다 먹어부니까 거기서
도 나갔다고 허더라고

6. 낚시 이야기

제 보 자 : 채종양(남·53세)

조사일시 : 1993년 7월 31일

조사장소 : 동회천 땡나무 그늘 아래서

조천 있잖아. 조천 대성이라고 있어. 조천하고 신촌 사이에 있는, 거기에 낚시들 상당히 많
이 가는 곳인데, 그 당시에는 그저 차룻²⁷⁾ 이 대나무로 만든 차룻. 니껍²⁸⁾ 놓는 아, 차룻말이
여. 고기를 낚으는데 바위에 앉았주께. 이런 바위에(옆에 있는 납직한 바위를 가리키며), 바위에
앉아서 고기를 낚으는데 말이지. 아, 딴 사람 낚시에는 고기가 안무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 낚
시에는 말이여 (팔뚝을 잡으며) 이 정도로 된 고기를 낚은 모양이라. 낚으니까 그 사람 어짜나
기분이 좋았던지 산 채로 행, 한 아바 삼사십분 이상 들여 가지고 고기를 낚아올린 모양이라,

25) 맥여만

26) 애당초

27) 소쿠리

28) 비끼

그 고기를 차롱에다가 니깍 차롱에다가 착 노니까 들어가지 안해여, 착 걸쳐져 가지고 들어가 지 안했어. 아 이놈의 고기가 말이여 아가미가 벌럭벌럭하면서 이제 부딪치면서 허는데, 이 사람은 다시 이제 고기를 낚으려고 또 니깍을 꿰가지고 이젠 낚시질을 허는 거라. 낚시질을 하면서 자꾸 글로²⁹⁾ 신경이 간 거지. 그 고기 있는 데로 신경이 가는데, 그 옆에는 말이여 한 국민학교 1, 2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고기를 낚았던 모양이라. 그때 당시에 보리밥을 먹었거든, 사람들이. 그 고기 낚은 주인은 자꾸 신경이 가는데, 이 어린아이가 고기 낚으다가 말이여 보리밥을 좀 어떻게 많이 먹은 모양인지 방구를 사정없이 그냥 크게 꺾버린 모양이라(청중 웃음). 아 개난 이 고기가 놀래 가지고 파닥파닥 하당 니깍하고 차롱하고 물드레³⁰⁾ 들어가본 거라. 거난 놓쳐본 거지.

“아, 너 이 새끼 방구 꺾부니까, 고기가 놀랜 도망가 붙었다.”

경 굴아가니까,³¹⁾ 옆엿 사람들이 막 웃는거라. 막 웃을 거 아니라게.

“고기도 방구 소리 알아들옵니까?”

그 어린 아이는 영 해본거라.³²⁾ 때리지도 못하고 이젠 그자게 아 기분은 나쁘디 말이여(청중웃음).

“아 왜 하필 그때 방구를 꺾 가지고 고기를 놀라게 해붙었냐.”고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허데.

7. 스만이

제 보 자 : 김병생(여·78세)

조사일시 : 1993년 8월 2일

조사장소 : 제주시 회천동 1341번지

사만 삼천년 동방색이 그 사만 삼천년을 살당보나네 이젠 그 사람을 잡질 못했지 원, 그 사만삼천년을, 사만일 잡지 못해서 경. 이젠 주천³³⁾ 간 연내못에 강 보난 이젠 그냥 허당 겸 허냥 우리 가인³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심쩨허난³⁵⁾ 피가 없거든. 주천 간 연내못이란 현 못을

29) 그곳으로

30) 물속으로

31) 말하니까

32) 그렇게 말한 거라.

33) 술이 샘 솟듯 나오는 돌이 있는 곳으로, 유리국 왕자 제주도 표착 전설에서 나온 곳.

34) 마을 사람

35) 잡으려고 하는데

저디 저 어디 서쪽에 어디 막 먼디 이실거여. 주천 간 연내못이런 हु데 강, 이젠 강 솟이라도 강 셋주게. 이제 강 솟을 셋누렌 허는디 그 스만이가 가서 허는 말이,

“이 솟은 어찌고 이 솟을 셋엄시넨? 솟은 아니 셋어도 이제 불을 사르는디, 불 살르젠허른 솟을 시쳐서³⁶⁾ 시쳐불면은 물들어서 어떻게젠 햅시?”

“솟을 회라고 셋엄수덴.”

경허난 그 사만인 물랐거든 우리 가인 사람을,

“사만 삼천년 살았시니까니 참 별 시상을³⁷⁾ 다 보네. 아 솟을 회라고 셋는 디가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개난, 그때 사만삼천년을 심었다³⁸⁾ 경한 말이라. 그것 뿐이주게.

8. 귀신대1

제 보 자 : 김병생(여·78세)

조사일시 : 1993년 8월 2일

조사장소 : 제주시 회천동 1341번지

‘귀신대’ 랜헌 건 이? 이제 우리가 만일에 옛날은 저디 저 거시기 민속촌 강 보면 그 허벽 있지 않아여? 물 짓는거 이? 물구덕³⁹⁾ 영 행 지는거. 이제 물에 가담 보나네 그 귀신대랜 혼 그 귀신이 나타나, 옛날에는. 이제는 전깃줄이 하부난⁴⁰⁾ 귀신이 하나도 어서그내,⁴¹⁾ 귀신이 나상⁴²⁾ 놓드지⁴³⁾ 못하는디 그맨 전깃줄도 아무것도 없고 어둡고 막 침침한 밤이라노난 밤 오래가든 그런게 나올거주게. 경허난 밤 오래가든 그런게 나오란. 이젠 걸단보난 그 귀신대가 나오라시난,

‘아이구, 이젠 이놈의 귀신덜 어떻게면 좋으리?’

36) 셋어서

37) 세상을

38) 붙잡았다.

39) 물을 길어 나를 때 쓰는 도구

40) 많으니까

41) 없어서

42) 나와서

43) 부지런히 돌아 다니다

그냥 니빨⁴⁴⁾을 이제 니검⁴⁵⁾을 싹하게시리 그냥 손으로 영영 짝하게 허나네(손동작으로 흉내
를 내며) 그냥 피가 나오란. 피가 나오란 움움(의성어) 헨 한몸에 물어 싹하게 그리 뽀오난애
설랑하게 쓰러졌던 그런 말. 그 귀신대가 뭐 그 귀신이라, 그게 쓰러지면 그냥 아무것도 어서
부는거주게. (청중질문 : 귀신대가 어떻 생견마심?) 우트래⁴⁶⁾ 그냥 막 올라서 사람보다 더 높
게 하늘까지 막 올라가 경해영 그자 그 눈썰매 게? 이녁 여감애⁴⁷⁾ 그 주변에 가당보면 그게
이서뵈여. 경허면 이젠 이 니검을 싹 씻어그네 그냥 피를 싹하게 뿌리면 그것이 와싹하게 부
서지는 소리나면서 달아난다 이거라. 사람이 이제 이녁 직성⁴⁸⁾이 세면은 이제 그걸 하영 덩
겨도 어떻 안허는디 그런거 봐그네 아픔도 허는 사람도 이서났주게, 옛날은. 이제는 그런게
없주만은 그런뎌 그런게 많주게. 경허난 그 댕기당 보면은 직성이나 여린 사람은 폐⁴⁹⁾를 보
주게.

9. 산이무덤

제 보 자 : 김병생(여·78세)

조사일시 : 1993년 8월 2일

조사장소 : 제주시 회천동 1341번지

하도 옛날에는 사람이 이제 죽질 앓이해가난, 이젠 할 수가 어시난, 그 옛날 우리 그자 전
설애 우리 들어난 말이주게. 우리 보도 안해고 그 옛날에는 그 소나무 있지 안허나? 그 소나
무애 그 진이 나오거든 막 진이 나오민 그것이 솔카⁵⁰⁾이렌 해그네 그걸 강 꼬차다그네⁵¹⁾ 솔
카불⁵²⁾ 살라그네 살고 해난디. 이제 솔카지름⁵³⁾을 이젠 막 그냥 영 솔카 해당 불 살라그네
놓으면은 바글바글바글바글하게시리 그 지름이 나오면, 이젠 그 옛날 허벅 그 대바지⁵⁴⁾ 허영

44) 이빨

45) 잇몸

46) 위로

47) 예감애

48) 무서움을 타지 않는 마음

49) 피해

50) 관솔. 송진이 많이 영긴 소나무의 가지나 옹이

51) 잘라다가

52) 관솔불

53) 기름

54) 물 길는 데 쓰는 병모양의 그릇

우리 어린이들이 지는 대바지, 허벅보다 짝그만한거 요만한거 있나, 그런 것에 이제 솔까지름을 지러그네⁵⁵⁾ 이젠 지러 그 산이무덤이랜 혼딜 강, 옛날엔 산이무덤 이서났젠 혼디 그냥 그 산이무덤에 강. 그 하간 거⁵⁶⁾ 먹을 거 다 앓다놓고⁵⁷⁾ 그 솔까지름 다 앓다놓고 허면은 이젠 궁기를⁵⁸⁾ 이젠 살 무덤을 허여 사람을 속에 들여놔. 그 산 쏘곶에⁵⁹⁾ 산 쏘곶에 들여놔그네. 이젠 솔까지름 먹을 거 그냥 일질 몰이여 무시겨여 다 이제 거 먹으면 다 돌아가실 걸로 죽을 걸로 경형 이젠 앓다 놓으면 이젠,

“궁기로 내(煙氣)가 나면 산 줄 알고 내가 아니 나가드면 나 죽은 걸로 알라.”

경형 이젠 해 도네⁶⁰⁾ 그만 들어가 부렸거든. 내(煙氣) 아니 나난 무덤구녕⁶¹⁾을 매워버렸져.

10. 고려장

제 보 자 : 김병생(여·78세)

조사일시 : 1993년 8월 2일

조사장소 : 제주시 회천동 1341번지

옛날에 하도 어려워서 살 수가 어시난⁶²⁾ 살 수가 어시난, 아 이제는 ‘아바질 지어다가 내가 이젠 저 먼디 강 이제 먼풀 위에 가서 이 아바질 버려두고 오라야 허져.’ 경허난, 이젠 게민 버리러 가젠 험신가? 허영 가는데 아들이 좃양가서. 아들이 좃아아정 가나네, 이젠 올 때는 할아바진 그디 부려든.⁶³⁾ 올 때는 그 지계를 이젠 아들그라⁶⁴⁾

“그 지계 저리 앓당 데껴불라.”⁶⁵⁾

경허난,

“아닙네다. 지계 지영 가겠습니다.”

55) 간대[汲]

56) 여러가지

57) 갖다놓고

58) 구멍을

59) 무덤 속에

60) 밭하고 나서

61) 무덤구멍

62) 살 수가 없으니까

63) 버리고는

64) 아들에게

65) 던져 버려라

개난,

“너 지계 지영 강 뭐 할거냐?”

“지영 가른게 아버지도게 늙어가지고 죽어 발상(發喪) 당허면 아버지도 지어당, 이리 오락 데겨부러사 할꺼 아니꽈.”

‘아, 어떻게리 이거 아니 됐구나. 내가 이제 이 지계만 아정⁶⁶⁾ 가지마랑 이 아버님을 내가 업어가사켜.’

경훈 전설도 있고

11. 아기 먹은 이야기

제 보 자 : 김병생(여·78세)

조사일시 : 1993년 8월 2일

조사장소 : 제주도 회천동 1341번지

옛날에는 살 수가 어서. 살 수가 어서. 하도 어려워난, 남의 집에 가그네 이제 불 담으레 도 가고, 이제 먹을 것도 강 얻어먹고, 얻어 먹으러 가도 무시겨 주지도 아니허고 경허면 이젠 울고……. 이젠 옛날에는 밥을 갈러 가는데 이런 것도 그라도⁶⁷⁾ 되는가 옛날 들어난 기억 이라. 밥을 갈래 가는데 하도 어려워난 여자가 하나, 여자가 가당보난 솔피⁶⁸⁾를 걷업서. 나무 요만씩한 존존한 솔피를 걷업서난, 아기 업고헌 사람이 걷업서난, 이젠 서방은 발갈러 가 브난 그 점심을 행 가는데, 밥을 지영가난 이젠 아 그 사람이 그냥 밥을 지 드랜⁶⁹⁾ 밥을 보면 딱 미쳤거든게. 밥을 못 먹었지. 못 먹은 아기 구워먹젠 솔피를 걷은 거 아니가게. 아 그냥 그걸 구워먹젠 솔피를 걸으나네 그 사람 허는 말이,

“내가 강 밭에 강, 밭 가는 사람 맥여낭 남은 밥을 오락 주쿠메, 이 손을 노라.” 그 구덕에 손을 노난, 경허난 손을 노난, 이젠 밭에 강 밥을 먹어 가나네 서방보고 허는 말이

“아빠 밥을 좀 냉김씨.”

“왜 냉기랜 햅시니?”

경허난;

66) 가지고

67) 말해도

68) 솔잎

69) 자기한테 그 밥을 주라는 말

“저기 저 얘기 업은 사람이 술피 견엄선게 불 살피젠 험신지 어명산지 술피 견엄습디다.”
“아이구 경허믄 냉겨주주.”

밤 아경 강 보난 그냥 그 술피허영 그 애길 구웠젠, 그런 전설. 이거 몇천년 된 얘기라.

12. 석불과 관련된 이야기

제 보 자 : 전호범(남·61세)

조사일시 : 1993년 8월 2일

조사장소 : 제주시 회천동 1280번지

그러니까 구전에 의하면 갑인년 1912년경인데 지금으로부터 근 약 100여 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 제주도 전체에 호열자라고 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말라리아 그 병이 유행해서 자연 부락별로 많은 인명 피해를 봤다구. 그때 당시에 소위 숫막⁷⁰⁾이라고 해서 요즘말로 하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저 해안 초소들 그저 방위들이 가서 살잖아 이? 그런 식으로 숫막이라고 해서 마을입구 길 들어오는 데 마다 요렇게 막을 지어 놓고서 인제 거기서 3인도 가서 1개조로 하고 아니면 4~5인도 해서 숫막이라고 해서 요즘말로해서 경계(警戒)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바로 요기 가면은 못물이 하나 있는데 와홀하고 경계선(境界線)인데 그니까 거시순(巡行)을 돌던 사람이 한 12시쯤 되서 이젠 잠깐 잠이 들었다고 잠이 들었는데 인제 그 사람이 꿈결에 소위 병거지라고 하게 되면 요즘말로 말하면 패랭이 비슷한 것인데 시커멓게 시리한 거 병거지⁷¹⁾라고 있다구. 그래서 고것을 쓰고 좀 추하게 생긴 양반이 동쪽으로 해서 우리 마을 쪽으로 오고 있드라. 이거야, 그 길로 해서, 꿈결에도 그 사람이 하도 부락을 지키겠다는 뭐가 강하다 보니까 꿈결에도 거기서 다텐이 생겼다고.

“못들어온다.”

“들어간다.”

이제 들어올라고 하는 그런 찰나에 마침 아주 참 백발이 허연 할아버지가 쓰옥 소위 주랑이라고 해서 불교에서 말하는 주랑이라고 해서, 지팡이 고것을 짚은 백발 노인이 툅 나타나서,

70) 부락을 지키기 위해 마을 입구에 지어 놓은 막

71) 지난날 병졸이 머리에 쓰는 모자로, 털로 겹고 두껍게 갖처럼 만들었음.

“여기를 어딘줄 알고 함부로 들어오려고 하나? 당장 되돌아가지 않으면 혼쭐을 내겠다.”

고 하니까, 요즘말로 혼난다고 하니까, 그냥 겁나서 소위 병거지 쓴 양반이 딴 데로 그냥 돌아가더라. 그래서 깨고 보니 그게 꿈이었거든. 이상하다 해서 그 말이 퍼졌는데 웬걸 아닌 게 아니라 그 해 전도적으로 호열자가 돌아서 거의 다 피해를 봤는데 이 부락만은 인명 피해가 전혀 없었다는 전설이라.

13. 산이무덤 없어진 유래

제 보 자 : 장숙옥(여·79세)

조사일자 : 1993년 7월 31일

조사장소 : 제주시 회천동 고창을씨택 앞마당

산이무덤이라 혼 건 옛날에 70이 되면 고려장이라고 제(祭)도 안보고 땅 파서 강 아가들이 강 묻지, 산도 크게 해서. 그디 강 쌀 호꿈⁷²⁾ 놓고 물 흘썰⁷³⁾ 가지고, 각제기⁷⁴⁾불 알아지여? 모르지? 쪼마하난 것에 봉우리 지서서 불 썩는 것, 그런 것에 낭 기름 낭 불 썩고 경허영 이젠 무덤 바끄태⁷⁵⁾ 맨드라서 궁기⁷⁶⁾를 요만히 내여서, 봉분을 해서 강 살어시나 죽어시나 영 무덤에 업대져 보왕⁷⁷⁾ 살아시든 그냥 오고 또 강 다시 죽어시든 막는 법이 이신디. 이젠 그 법을 어떻게신고 허면, 저 옛날 관가에서 나무⁷⁸⁾ 깎아서

“이제 참 덩치⁷⁹⁾허고 폴랭이를 알아오라.” 하니, 나무 깎아 몽땅 깎아내면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 여근 낭⁸⁰⁾ 다 깎아내면, 경허난 ‘그걸 어떻게 알리?’ 그 아들은 묻은 아들은 산에 강,

“어떻게서 저 아바님! 저 낭을 어떤 것이 물 으래(上) 띄우민 끝맹이⁸¹⁾고 덩치입니까?”

허니까

72) 조금

73) 조금

74) 꼭두리, 각지

75) 바깥에

76) 구멍

77) 었드려서 보고

78) 나무를

79) 줄기, 밑둥

80) 다 자란 나무

81) 꼬트버리

“물 으래 띄어봐서 울으르⁸²⁾ 오르는 건 저 끝댕이고, 알르래(下) 내리는 건 덩치다.”

경허니 이젠 관가에 가서,

“아래 내리는 건 덩치고 울으래 오르는 건 이젠 참 끝댕이우다.”

허니까,

“야! 이젠 옛날 법을 이젠 알아사 허염구나.”

해였던, 경허난 글루젠⁸³⁾ 산이무덤 안했뎨 허더라, 허여.

14. 도채비1

제 보 자 : 장숙옥(여·79세)

조사일자 : 1993년 7월 31일

조사장소 : 제주시 회천동 고창울씨택 앞마당

(조사자 : 도채비⁸⁴⁾ 얘기 들은 거 이시믄 얘기해 줘써.)

도채비 본 거 곱아도 되는가?(조사자 : 얘기해 줘써.)

여기 신악굴이라는데 시여⁸⁵⁾ 거기 이젠 과수원 밭으로 되어 버렸쥬. 그디 물뱅이⁸⁶⁾라고 허는 큰 갯도 싣고 한 못대도 시어나고 경헌데, 그디 인츰 옛날에 보리를 비어서 인척⁸⁷⁾ 강 참예⁸⁸⁾ 안하면 못 참예허쥬. 인척 해여두고 드룻일⁸⁹⁾ 가자구 인척 가는데, 한 번은 인척 가당 보난 그 물뱅이 소꿍에 불이 켜져서, ‘날보다 겐⁹⁰⁾ 사람이 이시쿠나.’ 허영, 나 그디 강 쪽 안에 보난 폭 꺼져버런. 직성 새면 도채비는 먼데서 보아지면 이제 사라져 버리주께.

15. 도채비2

제 보 자 : 고임출(여·82세)

82) 위로

83) 그 일이 있는 후부터는

84) 도깨비, 도깨비불

85) 있어

86) 말방아, 연자방아

87) 참예(參興)

88) 일찍

89) 논밭일

90) 빠르, 무지런한

조사일시 : 1993년 7월 31일
조사장소 : 제주시 회천동 ???번지

어떻게 도채빈고 허민, 우리도 뭐 어떻게걸 딱 주목 못허는디, 옛날에 저 동네 저 그 쌀 지어 먹는 방앗간이 서⁹¹⁾ 났주게. 방앗간이 이신디. 그 방앗간에 밤 컴컴하게 어두운디 그 방애⁹²⁾ 서 난걸. 집더래 지어오멍 보난 방에 짙는 도⁹³⁾에서 곧 나설 때 그디가 흰해라게. 흰하 게 그냥 바농을 문드려도⁹⁴⁾ 봉가점적이 흰하게 비추원. 허 건데 조롭⁹⁵⁾ 드레 영 암만 들어성 봐도 조롭에 사람도 없고, 누게⁹⁶⁾ 이제 들초롱 들른 사람도 없고 후라쉬 들른 사람도 없고 허난 '거 이상하다.' 경 허명도 영 걸어가민 그 자국소리가 나더라. 영 '설핏설핏' 저 땅에 발 닿는 소리가 설핏설핏 나. 경해도 조롭에 사람이 따라오고 경허민 다시 히뚝히뚝 돌아보아 성⁹⁷⁾ 봐도 보진 못허고 허나네 중간쫘 허영 요 중간쫘 오라가난 그냥 그 불이 오곳⁹⁸⁾ 사라 저 불어서, 그 자리에서. 영 저 불 싹당⁹⁹⁾ 감벽 꺼분 것추룩. 그추룩 허난 무서운¹⁰⁰⁾ 기가 팍 들영 그냥 온몸으로 뜯어 칼칼칼 해지고 다시는 아지래¹⁰¹⁾ 갈 일 서도 아지래 가지 안허고 경해난 말이여게.

16. 꼬리대작 뿌리대작1

재 보 자 : 장숙옥(여·79세)
조사일자 : 1993년 7월 31일
조사장소 : 제주시 회천동 고창울씨택 앞마당

(조사자 : 어릴 때 여시¹⁰²⁾애기 들어났지애? 백넉묵은 여시?)

-
- 91) 있어
 - 92) 방아
 - 93) 어구, 출입구
 - 94) 바늘을 뚫드려도
 - 95) 풍무니
 - 96) 누가
 - 97) 서서
 - 98) 그만
 - 99) 쫘다가
 - 100) 무서운
 - 101) 갖으러
 - 102) 여우

것도 골아가난 알아점져. 아이들이 울어가면,
“아이구, 꼬리대작 뿌리대작 오라그네 너네 물어간다.”
허면, 거 뭇 말이고 허면 그 옛말이 있어. 이제,
“아바진 어딜갔니? 어머니 어딜갔니?”
경허영 오라서 지방¹⁰³ 위에. 풍지도 길고 또 인제 같으면 족제비같은 모양일테쥬.
“아바진 바당에 갔수다. 어머니 일하러 갔수다.”
허영시민 오라그네, 아방도 흐쉴 물어가 불고 어멍도 물어가 불고, 허면 ‘이녀은 어멍허영
살젠.’ 허는데 이녀은 물어가진 않았주게. 그 아인 물어가진 않았는데……. 난 끝말은 못들언.
그냥 “꼬리대작 뿌리대작 온다.” 허영 놔두면 그냥 지방 위에 혼자 뛰어들어,
“아바진 어딜 갔니?”
“아바진 바당에 갔수다.”
“어머니 어딜 갔니?”
“김질¹⁰⁴ 매러 갔수다.”
경허연 얘기 들어났쥬.
(조사자 : 보리대작이요?)
“꼬리대작 뿌리대작.”
꼬리가 기나네 꼬리대작 뿌리대작 그 말이 났주게.

17. 꼬리대작 뿌리대작2

제 보 자 : 양정임(여·80세)
조사일시 : 1993년 12월 29일 (재조사)
조사장소 : 제주도 회천동 제보자의 집

옛날옛날에 여러 식구가 사는데, 아빠는 낭 깨너¹⁰⁵ 가고 엄마는 멀췌 팔러 가고 한디 꼬
리대작 뿌리대작¹⁰⁶ 허는 생이¹⁰⁷가 오란.

“너희 엄만 어디 가시니?”

103) 문지방, 문턱

104) 김, 잡초(雜草)

105) 땀감하러

106) 꼬리가 길고 부리가 길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새 이름

107) 새

“우리 엄만 멀췌 팔러 갔수다.”

“아빠 어디 가시니?”

“아빠 냥(木) 깨러 갔수다.”

경허난,

“나 오라그네 너희 엄마영 아빠영 물어가 불켜.”

“물어가지 맘씨게. 물어가지 맘씨게.”

허멍 막 울으난, 호룩하게¹⁰⁸⁾ 생이가 날아간, 날아가서.

(조사자 : 새 마썸?)

응, 꼬리대작 뿌리대작 허는 생이가.

(조사자 : 그거 새 이름이우파?)

응, 생이 이름이 꼬리대작 뿌리대작이란 생이 이름이주게. 꼬리도 길고 주둥이도 긴, 주둥이가 지난 주둥이로 아방 상투 썩선 물어갔젠. 꾸딱하게 놀아가난, 이제 조금 이시니까 그 생이가 다시 쪼쪼하게¹⁰⁹⁾ 놀아오난,

“할아버님 할마님은 어디 가시니?”

“우리 할아버님이영 할마님이영 발에 갔수다.”

“너네 할마님이영 할아버님이영 물어가 불켜.”

“아이구, 물어가지 맘씨게 물어가지 맘씨게.”

막 울어가난, 생이가 꾸딱하게 놀아간,

“이젠 어떻 살코 어떻 살코”

막 울엄시나네, 어떤 노인 할아버지가 오라그네,

“너헌 왜 울엄시냐?”

“아이구, 꼬리대작 뿌리대작이란 생이가 놀아와그네 어머니 아버지도 물어가 불곡, 할머니 할아버지도 물어가 불곡 우린 어떻 살랜, 살 수가 어시난 울엄덴.”

허니까,

“너희들 울지마랑 그만히 있다가 내가 금줄에 금방석을 내려 보내면은 그 금줄을 특하게 손으로 쥐어그네 금방석드레 잘 앉으면 이제 살아질 텔 데려다주켜¹¹⁰⁾.”

허난, 이젠 살압시나네 금방석에 금줄이 사르르 내려오난, 오누이가 이젠 그디 특하게 앉안. (조사자 : 오누이 마썸?) 응, 오누이만 남았주게. 이젠, 오누이가 그 줄을 봉그락하게 당기

108) 제빠르게 날아가는 모양, 쪼르르

109) 불췌

110) 데려다 주마

난 쪽쪽 올라간. 하늘옥황¹¹¹)에 올라 가전. 이젠 어머님 아버지도 봐졌쥬. 할머니 할아버지도 봐졌쥬. 막 기분 좋아, 잘 살았겐.

18. 귀신대2

제 보 자 : 고임출(여·82세)

조사일시 : 1993년 7월 31일

조사장소 : 제주시 회천동 제보자의 집

하늘광 크덴허영 이추룩¹¹²) 산이 가당 그것이 우뚝 사시민¹¹³) 사람이 바락¹¹⁴) 겁나그네, 사람부터 먼저 겁남직 허덴 허든 사람이 자기네 집에 돌아와도 죽든, 무신거 어떻 헨덴 해났 쥬. 경허는디, 미리 알아그네 '요것 귀신대를 이용허었구나' 해그네 돌을 봉가그네¹¹⁵) 돌을 영 탁 마청¹¹⁶) 마주 들영 막 쿨¹¹⁷) 냉 뉘 해가민, 그거 어서저부러났겐¹¹⁸) 한다. (조사자 : 귀신대는 어떻 생견마쥬?) 귀신대는 사람도 안닭고 그냥 크게 질게 전봇대 지레같이 그냥 질 한가운데 딱 나타나는데, 밤 길 가던 그 사람이 손해 보젠허든 막 무서워그네 겁에 박박 털멍 돌아오민 그 사람이 편안치 았아그네 아파허영, 옛날에는 심방¹¹⁹) 빌어 푸다시¹²⁰)도 허고 경 지랄허어도 죽는 수도 있고, 경행 넘어가는 수도 있고 허는디, 돌쿨 내 내민¹²¹) 그제 제일 예방되었겐 한다. 귀신대가 나타났을 때 정신을 잃지 말고 그 돌이라도 봉강 딱딱 두들영 돌 쿨 내우면 이제 그것이 사라지고, 그 귀신을 경허민 예방을 허여지고 경 안행 막 무서워허 기만 해긴에 사람이 귀신에 물러들민 손해를 봐났져. 경 헨덴 말은 들었져.

111) 옥황상제가 있는 곳

112) 이처럼

113) 싶으면

114) 한 번에 많이 힘차게 넣거나 얻어들이는 풀

115) 주워서

116) 맞추어

117) 가무를

118) 없어져 버리다, 사라져 버리다.

119) 무당

120) 푸닥거리

121) 돌가루 냄새가 나면

19. 문씨 할아버지 이야기

제 보 자 : 문복기(남·66세)

조사일시 : 1993년 7월 31일

조사장소 : 제주시 회천동 제보자의 집

이조시대, 이조 중엽과 이조 말엽 그 사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구만. 그 얘기가, 얘
기 줄거리가 그런디. 저 여기 봉개에서 지금 저 뭐가 동부산업도로가 났는데, 동부 산업도로
봉개에서 한 1킬로 쯤 올라가든 거 연못이라는 못이 있었어. 근데 거기 거 밑에 이 할아버지가
자꾸 나타나는 거라. 허니까니 정의고을에서는 그 나라에다가 공물 같은 것을 갖다가 이젠 바
치든, 목사(牧使)가 이젠 그것을 갖다가 종합해 가지고 육지 이젠 왕에게 뭐가 진상(進上)하는
그런 형식을 취해낸 모양이라. 그러면 이젠은 그 문할아버지가 뭐가 그 정보를 얻어가지고, 이
젠 저 뭐라 목관(牧官)의 사령(使令)으로 분장하는 거라. 이 할아버지가 그래 가지고 정의고을에
서는 이젠은 사령들이 왕에게 진상하는 각종 공물이라던지 뭐 맛있는 건어물 같은 거이 음식
을 갖다가 이젠 바리바리 실어가지고 오든, 그 연못이라는 동네에서 쪼끔 지나가게 되든 그
저 지금 저 진폭이라는 데가 있어. 그 부근에서 이젠은 만나가지고 인도를 허는 거라.

“나가 지금 뭐가 목관에서 사또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당신네들이 여기 오게 되니까 그 짐
을 갖다가 전부 요새 신식말로하면 인수를 받아가지고, 저 뭐가 내리라는 명을 받았다. 그러
니까니 이젠 거를 달라.”

그러든 사령복 입고 말(馬)도 끌고 사기 치는 놈이야 뭐 말씀이사 어성 되여게, 그럴 때나
말씀해 가지고 전부 인젠(引繼들) 받는거라. 거 인젠 받아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이젠은 저 뭐
가 가난한 사람이라던지 뭐 곤란한 사람한테 노나 줬으면¹²²⁾ 홍길동처럼 의적이 될텐데 말이
야. 아 뭐이거 혼자 밤낮 놀당으네 그제 또 떨어지든 이젠은 그 사기행각을 허는거여. 그래
가지고 그 뭐가 창고 같은 걸 저 가지고¹²³⁾ 뒀다가 먹었다는데, 바로 그 연못 옆에 창고자리
가 있었다는데, 지금은 뭐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래서 창고 지서 가지고 사령들을 속여 가지고
물건들을 갖다가 훔쳐냈다는 얘기가 이서났쥬.

122) 나누어 줬으면

123) 지어 가지고

20. 장사 양규찬

제 보 자 : 문복기(남·66세)

조사일시 : 1993년 7월 31일

조사장소 : 제주시 회천동 제보자의 집

양규찬씨가 이 분이 이 할아방이 얼마나 기운이 센지, 옛날에 밭 갈지 않아 이? 밭 가는데 이 할아방이 저 뭐가 풍수지리사여, 그 산도 보곡 허는 하르방인디 막 유식한 할아방인데, 현대 이 할아방이 밭을 갈다가 암소 암쇠 큰 거이? 그걸로 밭을 갈잖아여. 밭을 갈다가 쇠가 힘에 겨워 가지고, 딱 짊어 놓으른 힘에 겨워 가지고 쇠도 우뚝 설게 아니라게 끌지 못해영. 어떤 때는 그러른 아 할아방이 어떻 허느냐 허면은 쇠를 갖다가 “이 놈의 쇠!” 해영 엉덩이를 딱 꼬집으른 이놈의 쇠가 막 하영¹²⁴⁾ 똥단 말여. 거니까니 한번 소 마디 봐봐 소카리¹²⁵⁾ 이거 막 똥겨보라고, 보통 힘 가지고는 꼬집질 못해여. 그렇게 힘이 세었고 이 할아방이 암소가 자꾸 소 새끼 나른 암소가 졸졸 따라다니지 않아여. 귀찮거든 개든 이 할아방이 어떻게 하나든 그 쇠 암소를 푹 안아그네 그 덩불 덩불 소꿉에 푹 난. 덩불 속에선 소가 못 나오거든. 게서 밭 갈아났다 허여. 이 할아방이 누구 동네에서 째이¹²⁶⁾ 나가치고 싸움을 갔다가 싸움을 말릴 때도 양쪽 손을 딱 잡아 그래서 꼭 해그네 “싸올래, 안 싸올래?” 허른, 장년들 청년들 말이어 그러든 숨을 못 쉰다는거라. 이 할아방한테 째히면¹²⁷⁾ 여기에 딱 맥이 끊어져 부러(자기 손목을 잡으면서). “아이구 이젠 안허쿠다. 뇌즙써 뇌즙써.” 해영 탁 뇌주고, 여기 퍼렁하게 멍들었다는거라.

21. 대식가 김재삼

제 보 자 : 문복기(남·66세)

조사일시 : 1993년 7월 31일

조사장소 : 제주시 회천동 제보자의 집

124) 많이, 높이

125) 소가죽

126) 싸움

127) 잡히면

대식이 한 분 계셨어. 대식이 이 저 돼지, 돼지머리 있잖아. 이 하르방 저 뭔가 모들래기¹²⁸⁾ 해 가지고 말이여이. 이 하르방은 저 어떻게 음식을 먹느냐 허든 말이여이. 소 저 뭔가 돼지머리 갖당 큰 거 하나 사다네,

“이거 먹게 되든 돼지 값, 머리 값은 다 물켄¹²⁹⁾.”

허니깐, 이 하르방 그걸 다 먹었어. 그 하르방 그 뭔가 먹는데는 뭐 지금 아마 그런 사람 어실꺼랴.¹³⁰⁾ 아맹¹³¹⁾ 잘 먹어도

22. 호열자 고친 이야기

제 보 자 : 문복기(남·66세)

조사일시 : 1993년 7월 31일

조사장소 : 제주도 회천동 제보자의 집

막 호열자(虎列刺)가 난 때가 그때가 아마 장마 땡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그저 뭔가 그 하르방이¹³²⁾ 일본에 징용갔다 해방되니까 돌아왔거든이. 그런데 돌아온 아들이 설사를 해 여가지고, 호열자 걸리든 콜레라 걸리든 막 설사 나거든. 설사 나든 한 사흘간 있당 그대로 가버리거든. 근데 이제는 하르방이 말이여, 이제는 설사 해명 막 죽게 되니까. 이 하르방이 말이여 그 집 마당에는 물이 빈빈허게 막 있는데 말이여. 호열자 걸린 아들을 갖다가 그대로 마당드레 들어싸브런,¹³³⁾ 죽으라고 말이여. 그러든 아들은 살아보젠 자꾸 마루로 기어올라든 말이여, 그 아방은 그 아들을 갖다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 속으로 던져버리고 말이여 그런 것을 한 거짓말을 보태서 수십번 했겠지. 그러니까는 이젠 허는 아들도 기진맥진 던지는 하르방도 기진맥진했는데 아 허룻밤 지나니까는게 설사가 멎더라는기라. 그 사람이 용케 살아서.

128) 모두

129) 값을 치루마고

130) 없울 거라.

131) 아무리

132) 아들을 잘못 지칭한 것.

133) 던져 버렸다는 뜻

23. 평망동산

제 보 자 : 문무경(남·81세)

조사일시 : 1993년 8월 1일

조사장소 : 제주시 회천동 서회천 문무경씨 덕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평망동산이라는 동산이 있어. 평망동산이라는 것은 그냥 옛날은 평 사농을¹³⁴⁾ 개 둘러 평 사농 가지? 평 사농 허는데 아버지도 가. 아들도 가. 손자도 가주. 망보래. 경현 저기 저 우미서¹³⁵⁾ 꿩이 놀리우면

“망보라 망보라.”

허고, 손자는 있당,

“망 뵈수다. 망 뵈수다.”

허영 경허난, 그 꿩이 날아오난 평망동산에 앉으나네, 개 오란 물었는데 그때 부터 평망동산이라 했지. 그리고 뭐 꿩을 많이 잡아노난 평망동산이주게.

24. 설문대 할망

제 보 자 : 고신봉(여·73세)

조사일시 : 1993년 8월 1일

조사장소 : 제주시 회천동 서회천 노인회장님덕

(조사자 : 설문대 할망이 어떻했던 현 말 들은 거 있으믄 좀 곱이줍써)

이 옛날 어른들 영 곤는거 들으면 원당봉¹³⁶⁾에 오란 누웠다네 일어서난 치매¹³⁷⁾에 흙이 참 털어지난 참 원당 오름도 이제 드러나고 이래 저 울으래 올라 강, 할루산¹³⁸⁾ 배게 배영

134) 사냥을

135) 위에서

136) 원당봉. 서회천 지경에 있는 봉우리 이름.

137) 치마

138) 한라산

자켄허멍 가멍 뵤 훗을 몬드레¹³⁹⁾ 치매애 쌍가당 훗을 다 몬드려부난애¹⁴⁰⁾ 오름 다 되엿켄. 경허연, 할루산애 강 누웠다네 물장우리¹⁴¹⁾애 물이 하도 크덴 허나네 그디 강 목욕인가 무신 거 하켄 들어서나네, 그냥 그디서 빠져 죽어났켄 경흔 말은 들어났져.

25. “아자십서(앉아십서)?”

제 보 자 : 임이진(여·91세)

조사일시 : 1993년 8월 1일

조사장소 : 제주시 서희천 노인회장남택

아무 얘기라도 7르면 될 건가? (조사자 : 예)

“늙신 어른들 당신네 집은 재를 어떻 지냅니까?”

“어, 우리 집은 돈으로 올렸다가네 내려놓 그거 냐단 쓰느니.”

“돈으로 마썸?”

“용 돈으로”

“부자택입니다.”

“당신네 집은 재를 어떻 지냅니까?”

“우린 저 쌀로 올렸다가네에 내려부느니.”

영허난,

“아이구, 쌀로 놔그네 그걸 놔집니까? 먹어주쥬.”

“그럼 어떻허여게 그냥 앉진 못하고¹⁴²⁾ 그저 쌀로 올리느니.”

그럼 영 허영, 혼 사람은 경허고

혼 사람은 이켄 사둔¹⁴³⁾ 옆에 불일이 이시난, 가 앉으난.

“앉아십서.” 가켄 허면

“앉아십서.” 가켄 허면

“앉아십서.”

139) 모두

140) 떨어뜨려 버리니, 흘려 버리니

141) 물장울(水長兀) : 봉개동의 옛 이름. 물장오리.

142) 앉지는 못하고, 올리지는 못하고

143) 사둔

'에이 가 불쭉' 간. 이젠 가브난 여자보라,

"아니, 앉아있서 앉아있서 허난, 그 어디 거시기에 그런 구치가 어디서?"

"아이구, 곧도 말구 끼리도 말주게. 쌀 세 방울을 놔그네에 상을 차려오라 허면 차러지는 고라. 암만 허여도 그런 상 차릴 수가 어선 그냥 지드리는 게¹⁴⁴⁾ 그게지."

"그러는가?"

그리 곧젠허난¹⁴⁵⁾ 돌이 다 눈물이 잘잘.

한 사람은 또 불일이 이서 또 권당¹⁴⁶⁾의 집에 가신지 원 사둔집에 가신지 간.

"앉아있서. 앉아있서."

그만허 앉아 이시난 이젠 상을 차려오난 밥을 한 번 거령¹⁴⁷⁾ 먹언헌디 아니 걸영 먹진 허 명말명 허영 호룩탁하게 바깥으래 돌아.¹⁴⁸⁾

'아, 이 어른이 어떻게헌 돌아시니?'

"아, 어떻 어디 가오라서마썸?"

"경해서 마썸? 저 장을 놔집니까? 푸리 눈이 와 오랑, 장(醬)을 적서가든. 그 푸리를 탁 십 어서 빨아먹영 오랐쥬."

"그리해서 마썸?"

경훈 일도 있고

26. 산(무덤) 파는 역사

제 보 자 : 임이진(여·91세)

조사일시 : 1993년 8월 1일

조사장소 : 제주시 회천동 서회천 노인회장남택

아이구, 우리가 살아그네 뒷을 허리. 옛날도 산(무덤) 파는 역사가 이선고라. 산을 하도 파 가난, 이젠 산소에 이디 산의 골총선생¹⁴⁹⁾ 하고 원선생¹⁵⁰⁾ 하고 한다 모여난애, 선생들이 모

144) 기다리는 게

145) 말을 하려고 하니

146) 권당, 일가, 친척

147) 떠서

148) 달려 나가

149) 오래된 무덤(古塚) 또는 파헤쳐진 무덤의 시신(屍身)

150) 무덤에 묻히지 얼마 안되는 시신(屍身)

여 회의를 하는 데 골충선생이,

“모래 저녁이랑에 저디 육지로 가자.”

모래 저녁일랑에 저디 육지로 갈 걸로

“경허쥬.”

회담을 허난, 모래 저녁이라그네 갈걸로 허난, 그 산 입자가, 원선생이

“아, 모래랑 가젠허당 우리가 육¹⁵¹⁾을 당할른지 이 날 밤에 몰래 가자.” 경허난,

원래 모래 저녁 같건디 이 저녁에 가난디. 바람도 자고 잔잔허여 허디. 가난디 호랭광풍(虎狼狂風)이 그저 화디탁하게 뇌난, 저 한 발자국만 가시면 육지에 같건디 탁 디딜 터에 호랭광풍이 난데없이 세어노난 육지에 못 갔다 허여. 골충구신이 이겼다 허여. 지금 이제 산 파는 일이, 골충 귀신이 이기나네 이제 골충을 만지갔다허면 재수가 나쁘면 골충 되. 동티¹⁵²⁾가 나. 재수가 좋으면 해도 좋음이 어려워. 경허 역사도 있고 아이구 거 어려운 일이주게.

27. 이사

제 보 자 : 임이진(여·91세)

조사일시 : 1993년 8월 1일

조사장소 : 제주시 회천동 서희천 노인회장남덕

이제 이사 허는디 날을 잘 뵈 이사를 할 건디, 이사 그만 허여노난 심방 사는 돈아리¹⁵³⁾에 가노니. 애기들이 심방질 허는 것이고,

“아이구, 못살켜 죽헌¹⁵⁴⁾ 애기들 심방을 나뉘니 아니되켜.”

다른 데 이사 간 보니 도둑질 해는 돈아리에 갔지. 경허난 그 애기들이 그 도둑질하는 신령을 굶지더니 배원.

“아이구, 아니되켜 다른 데 이사 행 가야 살주.”

아 경허, 다른 데 이사 행 가젠허난 한 해에 이사 한 번 함이 어려운디, 삼 번을 이사하니

151) 낭패, 나쁜 일

152) 건드러지 말아야 할 것을 잘못 건드려서 생긴 걱정이나 불행

153) 동아리, 비슷한 일을 하는 무리들을 일컫는 말로 여기서는 그러한 무리들이 모여사는 마을을 지칭함

154) 쓸모있는, 아까운

그만 골출¹⁵⁵)이나, 경허니 이사할 땐 날도 잘 봐서 이사하는 거구.

28. 자청비

제 보 자 : 임이진(여·91세)

조사일시 : 1993년 8월 1일

조사장소 : 제주시 회천동 서회천 노인회장남택

여자가 이젠 공부허랜 가젠허난

“어머니 아버지, 난 공부허랜 가젠 흡수다.”

영허난,

“아이구 무슨 말이고 여자가 이제 공부허러 육지 간단 말이 뭇말이고?”

영허난,

“아바님네 어머니네 돌아가시면 축지방을 쓰젠 허면 어땡 랜 축지방을 씩네까? 내가 공부를 해사쥬.”

것도 그러허면 허다 보난. 이젠 남자 방에 기어들어 남자 옷을 확하게 입어아정 공부허러 가젠허난 ‘아이구 어떻허면 가지쿠.’ 영허는데, 공부허러 가서. 가난 남자 입성¹⁵⁶) 입언 남선비¹⁵⁷)하고 이젠 간. 3년을 공부허어도 여자가 궁리가 좋으난 이젠 아맹헨덴해도¹⁵⁸) 여자가 궁리가 너른덴 허주게. 여자가 동에 물 떠놔네,

“이 물을 자찌민¹⁵⁹) 공부를 못합네다.”

허난, 이젠 남잔 그 물 거찌지카부덴 명심허난, 잠도 못자고 그 물만 거찌지카부덴허고 여잔 공부하당 누윈 잘 시간되면 흐롱흐롱 잠자고 경허는데, 여자가 남자 입성입언 남자영 3년을 공부허어도 남(男)인가 여잔가 몰란 그자 공부허였주게. 경허는데 이젠 퇴관허여 오젠허난 여자가 남자신디로,

“옷 질로 가고 난 아래 질로 가키엔.”

경허난, 경허랜 허는디, 여자가 이젠 먼저 오면 남자가

155) 미상

156) 옷차림

157) 문도명을 남선비로 잘못 지칭함

158) 암만해도

159) 전드러면

“물을 먹어서면 좋거.”

허난, 이젠 물통을 들어네 개냥 싹¹⁶⁰을 뜯아 놔그네 물을 주놔네,

“이거 어떠한 일로 이걸 놓았느네?”

물으나네,

“아이구, 물을 그냥 먹젠허면 이제 물도 티가 이십니께.”

“그러하냐.”

그 물을 먹영. 이젠 천장만장 남자와 여자가 가당, 남잔 조롭에 이신디 가당,

“우리 몸이나 목욕행 가자.”

경허난, 목욕을 허나네 여자는 옷통에서 감고 남자는 아래통에서 목욕을 허는디, 목욕을 저시기 행 나오라네 이젠 어느만치 가명 하는 말이,

“아이구, 연 3년 공부해여도 남인줄 여잔지 모르는 어리석은 문도령야!”

그추록 헐 가난, 허 그젠 그냥 화딱지가 난, 이거 뭇 말인고 혼 가달¹⁶¹에 들썩 들어가고 허난¹⁶² 옷 입젠 허난 시간 걸런. 나오랑 보난 어느만치 돌아서난 ‘아이구 요거 참 큰일났져.’ 경현 천장만장 오란 쫓아오란 말적엔¹⁶³ 미쳐온디. 그 남자가 여잔 그만 미쳐전. 경허난 ‘아이구, 어떠한 미쳐져신고’ 그 여자가 어떻게야 궁리가 좋은지 왕대월¹⁶⁴에 강 왕대축새¹⁶⁵ 해여낸 남자 노릇 허난, 오즘을 누어도 한바퀴 더 튀고 여잔 열두박스로 튀고, 경허난 여자가 아맹해도 잔궁리가 쉽덴하쥬 공부허기도 쉽고, 성노릇¹⁶⁶을 허여. 여자가 아무래도 궁리가 너르덴 허주께.

29. 은막개 은덩드렁

제 보 자 : 고선수(남·60세)

조사일시 : 1993년 8월 1일

조사장소 : 제주도 회천동 제보자의 집

160) 부리장나무 잎사귀

161) 한 다리예

162) 하니

163) 나중엔

164) 왕대나무 발

165) (자창비가) 대나무를 대어 (오즘을 누어 문도령보다 더 멀리 누웠다는 뜻)

166) 형 노릇

형제가 살았는데 꼭 흥부놀부 비슷한 이야기라 내 얘기는 흥부놀부는 거 뭐냐 저 박이, 박을 매개로 허고 이긴 밤이라 밤(粟), 산에 저 자연 생밤. 근데 형제가 살았는데, 형은 부제로 167) 살고 동생은 피가나게 가난했는데, 근데 형이 하도 심보가 나빠서 이제 제사를 동생에게 그렇게 못사는, 자기네 음식 먹지도 못하는 동생한테 아방 제사까지 매겼다¹⁶⁸⁾ 이 말이며. 그런데 동생이 아버지 제사는 닦았는데 뭘 올려놓게 있어야지. 뭘 제물이라도 밥 한술이라도 떠 올려지게 되어지워. 할 수 없이 '산에 가서 밤이라도 얻어당 올렸다가 내려와 버리쥬.' 해서 그냥 정성이나 보이젠 생각했던 것이, 산에 가 다문 몇알 찾앙 따긴 땀는데 배고프고 막 해마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린거라. 경허영 집에 내려올 길을 찾지 못하여, 길에서 해마다 보니까 어떤 갱하(坑下)에 들어갔지. 자연굴에 들어갔는데 하도 배 고프니까 밤을 딱 세 알 구했는데, 그걸 제사상에 올릴려고 했던건데 참다참다 겨워서 '아이고 두 방울만 올리고 한 방울랑 나가 먹어서 살앙 나가쥬. 제사랑 고사하고 집에 가도 못헛직허니 예이 한 방울이랑 나가 우선 니¹⁶⁹⁾나 때우쥬.' 그래서 한 방울을 이로 딱 씹었거든. 씹으니까 아 거기엔 도깨비 귀신들이 있었던 말이며. 도깨비 귀신들이 있다가,

"아이고! 상머루 무너점져."

허면서, 굴 무너진다 허는 뜻이지. 상머루 무너점져 허면서 도망가 버린 거라. 그 밤이 하도 여문 밤¹⁷⁰⁾이었던 모양이지. 여문 밤 씹는 소리에 큰 천정 무너지는 소린 줄 알고 도망가 버린 거라. 근데 보니까 거기에 은막개 은덩드렁, 은막개 은덩드렁 그런 비슷한 말 있지? 요쥬 '은 나와라 뚝딱 굵 나와라 뚝딱'이라고 하는 (조사자 : 은방망이 굵방망이요?) 은방망이, 굵방망이라고 그러냐? 쥬디 이건 은막개 은덩드렁이라. 덩드렁이란 것이 제주에서나 많이 사용되쥬 육지에서선 잘 못 굳는 건디. 방망이 가지고 밑에 판으로 이용해서 중간에 물건 놓고 때리면은 그것이 달구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그 밑바닥 역할을 하는 것을 덩드렁이라고 해 덩드렁. 근데 주로(지름이 약 50센티미터 되게 손동작으로 원판을 그리며) 이만허게 둥그렁고 납작한 매끈한 돌로 그런 걸 만드는 거지. 덩드렁막개는 방망이라고 흔히들 하는데, 요만한 부피의 나무를 잘라 손잡이 잡게 만들어서 그걸 통채로 방망이로 쓰는 거라. 은막개 은덩드렁이 있드라고 은으로 된 방망이하고 은으로 된 밑받침 그것이 있드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온 거라. 그 놈들 도망가명 내부러동¹⁷¹⁾ 가니까, 그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이시난 주서은

167) 부자로

168) 매겼다

169) 끼니

170) 잘 익은 밤

171) 내버리고

거지. 거니깐 와서는, (문득 생각난 듯이) 아니, 오기 전에 도깨비들이 거기서 막 “은 나와라 똑 딱, 무시겨 나와라 똑딱” 하면서, 거기서 도깨비들이 자기네 필요한 것을 말하면서 그랬었어. 구경하다가 자기는 배 고파서 밤 씹으니까, 그 바람에 도깨비들이 도망가 부니까 ‘아, 이거 가져가면 나도 되지 않을까?’ 해서 가져온 거지. 가져왔는데 각시가 “ 뭐 헐라고 그 쇠덩이 가져오냐?” 허니까, 저저 저 거기서 뭐 도깨비들이 뭐렌 굴양 이리저러 허더라 허니까, “그런가 그럼 우리도 해보자.” 마침 제삿날이거든 가지고 돌아온 날이. 개민 제사에 올릴 거 한 번 말해보자고 개민, “떡 나와라 뚝뚝¹⁷²⁾” 때리민 떡 나오고 바로 그런 거지. 은막개 은덩드렁으로 제사에 채리고 싶은 걸 다 말한 거라. 다 말하면서 “밥 나와라. 뚝뚝.” “외 나와라. 뚝뚝.” “고기 나와라 뚝뚝.” 그런 식으로 막 때리니까 때리는 양, ‘뚝뚝’ 허는 양 전부 나오니까 제사상이 찬관했쥬게. 아 그러니까 얼마나 기쁨 거라. 욕심이 없으니까 딱 필요한 것만 말행 말아 부렸지게. 그저 흥부놀부처럼 놀부는 욕심 부렁 이서도 더 가지구쟁 허는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생은 자기 필요치 않은 건 더 욕심을 안냈단 말이어. 거니까 하 참 이젠 이 정도만 차리면 됐다 허영 앉아서 제사 시간을 기다리는데, 형은 아망 제사 동생이 뭐 제대로 챙기지 안해실거나네 저 제주(祭酒)대신 무시겨 쇠오줌이라도 지영 강 땡경오젠.¹⁷³⁾ 아니 쇠오줌을 제주라고 해서 거짓말로 저 그릇에 담아 가지고선 동생네 집에 것도 아망 제산테도 그랬단 말이어. 심보가 더럽지. 그런데 경행 왔는데, 어떻게 차렸나 볼려고 문구멍을 뚫고 보니까 아이 놀렐 일이거든, 숨이 뒤집힐 정도로 잘 차려놨거든. ‘아이고, 어디서 이렇게 차렸냐고 펴혀 도둑질해 왔을 거라.’ 고 그때는 기냥 기절초풍 해가지고 제주라고 해서 가져온 소오줌 던져 두고 들어왔어. 제사를 어떻게 잘 모셔서 좋다는 생각을 하기 전에 “네 이놈 어디 가서 도둑질 해왔냐?” 고 막 그렇게 닥달했어. 그러니까 아, 도둑질 해온 것이 아니고 실은 이리이러해서 이랬다 허니까, “저 어디 있느냐?” 고 허니까 아 내놔서 보였거든 “바로 이거다. 이것에서 제삿 준비했다.” 고 하니까 그때는 제사가 끝나기도 전에 욕심이 생긴 거라. “어디냐? 거기가.” 그걸 빼앗으려고 해도 주진 않을 거니까 자기도 그렇게 해서 그것을 마련해야겠다는 거지. 날이 새기가 무섭게 산에 올라가서 막 돌아댁기다가 겨우 말라 비틀어진 쩌든 밤을 겨우 세 개 찾아서, 거 더 보여도 세 개만 했던 허니까 세 개만 구한 거라. 그리고 배고프지 않아도 일부러 그 굴을 찾아가서 있었지. 날이 어두울 땐 기다렸는데 아 도깨비들이 들어오는 거라.

“아 저 번엔 이리이러해서 우리 상머루 부러지는 줄 알고 도망가다 보니까 아무 늬이 와

172) 방망이 두들기는 소리

173) 다녀 올려고

서 밤 씹는 걸 몰라서 그랬다. 은덩드렁 은막개 그 사람이 가져가 버렸다.”

“그 사람 가난하게 사는 사람 내버리라. 마음씨 착하게 사는 사람 내버리라.” 그런 말을 하다가,

“오늘도 어떤 놈이 와서 있을 지 모르니까 한번 찾아보자.”

“예? 안 왔을 거라.”

하고 얘기하는데, 하필 그 순간에 밤을 씹은 거라. 그런데 여문 밤이 아니고 막 죽쟁이 닮은 밤이니까 죽은 밤이니까, 딱 씹으니까 ‘뿌지직’ 하는 쪼그만 소리만 나니까 도깨비들은, “상무루 또 무너지젠 험사.”

그러다 마는 거라. 그렇게 얘기만 하고 도망가진 않는 거라. 그때 한 도깨비가

“어떤 놈 또 온 거 아니가?”

하고 찾아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라.

“요놈, 여기엔 뭐 하러 와서¹⁷⁴⁾? 은덩드렁 은막개 훔치러 왔구나.”

허영 붙잡아 복삭 두들겨버린. 형은 거기서 도깨비들한테 맞앙 죽고 그래서 망해버린지. 형은 욕심부리다가 죽어서 망해버리고 동생은 착한 마음 가지니까 은막개 은덩드렁 가지고 잘 살더라 하는 얘기라.

30. 죽의 짓 사위¹⁷⁵⁾

제 보 자 : 고선수(남·60세)

조사일시 : 1993년 8월 1일

조사장소 : 제주시 회천동 제보자의 집

잘 사는 집인데 사위가 처가살이 하는 형편인데다가 죽만 끓여먹고 살 정도가 아닌데, 죽 으라 살라 늘려 살기 위해서 계속 죽만 끓이거든. 아이고 밥을 한 직 먹어 살아봐시른 원(願)이 없겠거든. 그러니까 ‘자기 친구나 동료들을 이용해서 고쳐봐야겠다.’ 해서 사위가 처가 생활방법을 고쳐 불려고 한 말인데, 허긴 젊은이들은 자꾸 나무 허래 가져든. 땀감 해 그걸로 살아가는데 낭고지 하는 동료들한테,

174) 왔느냐

175) 죽만 끓여 먹고 사는 집의 사위라는 뜻

“자네 벨랑¹⁷⁶⁾ 낭고지 갈 때¹⁷⁷⁾ 나 부를 때랑 나한테 죽의 짓¹⁷⁸⁾ 사위야, 오라 낭고지 가게. 죽의 짓 사위야, 오라 낭고지 가게. 경 불러도고”

“건 무사?”

“아니 경만 불러줘게.”

계난 뒤 어렵지도 않은 건데다가 뒷날 아침은 점심들 출령¹⁷⁹⁾ 가는다다가 막 입을 모영 이눔 들 저눔 들 모여 막,

“죽의 짓 사위야, 낭고지 가게.”

막 불러거든. 하도 불러가니까 장모나 장인은 무슨 말인지 잘 못알아 들었지. 하도 왕왕왕 왕 불러대니까. 죽의 짓 사위가 탁 혼자 나오명,

“애이, 나쁜 놈들, 남이야 죽만 끓여먹고 살든 말든 너네들이 뭐냐?”

막 울렁 야단쳐서. 경허나네 친구들은 눈만 껌뻑껌뻑 허멍 있고 장모가 그걸 듣고서, ‘아하! 우리 사위가 죽만 끓여 먹영 사는 걸 친구들이 알아노난, 저렇게 나무람을 받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아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 밥을 얻어먹고 살터란다.

31. 콩 한 쪽도 있으면 나눠 먹는다

제 보 자 : 고선수(남·60세)

조사일시 : 1993년 8월 1일

조사장소 : 제주시 회천동 제보자의 집

옛날에 영리한 부인하고 좀 둔한 남편이 살았는데, 여덟살 난 아들을 하나 두고 사는 가정 이었는데, 하루는 남편이 어디 가서 놀다 들어오더니만 뿔 숨겨 가지고 들어오는 것 같았지. 그런데 뭐 그런 일이 있는 줄 몰랐는데 갑자기 무슨 말을 하나며는,

“오늘부터는 별령(別令)이 내렸겐 허더고”

“무슨 령(令)?”

허니까,

“오늘부터 이녁¹⁸⁰⁾ 번 건 이녁만 먹영 살아야 헌덴 허고”

176) 내일은

177) 나무 하러 갈 때

178) 집

179) 준비해서, 차려서

180) 자기가

자기 속으로 '어디 강 무시기 주서 왕 자기만 먹젠 험꾸나.'

"게민, 경헌댄 허민 경허주."

'뭘 먹젠 험신고' 영 보니까 핑 새끼 죽은 거 하나 주서 왕 그걸 이녁만 먹지 못행 별령. 이랜 허멍 솔락 아래서 복부 뜯으멍 구워 먹는단 말이어. 그 여덟살 난 아들이 경 먹구정¹⁸¹) 허는데, 경 먹구정 허는 어린 아들도 주지 않으멍 지만¹⁸²) 다 들러 먹는단 말이어. 게난 어멍은 아들을 달래서. 남편은 지꺼 먹어지난 나가서. 그동안 각시는 점작¹⁸³)히고 모밀국수 허연, 게도 서방직신¹⁸⁴) 똑 모르게 나뉘, 마루에 숨겨두고 어미 새끼만¹⁸⁵) 먹어서. 경허난 먹고 싶을 거 아니라.

"흐썸¹⁸⁶) 쥐게?"

허니까,

"오늘부터 이녁만 먹어야 된댄 허멍, 나도 게난 관가에 강 별 받아지카부댄 우리만 먹엄주게."

"이젠 그런 법 없댄 허더고"

그땐 야단친 거지. 병신같은 남편한테,

"아이고, 이놈의 녀석아! 콩 한방울이라도 반작씩 갈라 먹으멍 살젠 해야 되는 거지, 죽은 핑 새끼 이녁만 먹지 못행 별령이어 뭐여 허멍 아들도 아니 주멍 너만 먹느냐?"

경허는 게 아니엔,

"자, 걸어 먹어."

허멍 준비했던 걸 딱 갖다 차려줬거든.

"다신 경 안하크라."

"이젠 콩 한 방울이라도 둘이가 반작씩 갈라 먹영 살아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고 허니까,

"다음부터 경 안허젠."

헤시난 경행 지나는데 이웃에 한 며칠 후에는 불일이 생겨서 초상이 난. 그디 강 떡덜도 치고 하간¹⁸⁷) 심부름 하는데, 심부름 끝나면 작시래기¹⁸⁸) 하는데, 작시래기를 하나 씹이라도

181) 먹고 싶어

182) 자기만

183) 소 또는 돼지의 목과 어깨 뼈

184) 남편 몫은

185) 어머니와 아들만

186) 조금

187) 여러가지

188) 남은 찌꺼기

나뉘 먹을 때가 되어 가는데, 막 목이 메이게 부른단 말이여.

“거기 셔¹⁸⁹⁾? 거기 셔?”

와 보랜만 하도 불러가니까 대답은 허명도 그렇다고 또 나왔당 그거 떡 작시래기 얻어 먹으래 또 들어가기도 그렇고, 조금만 기다리믄 나뉘주믄 맛도 보고 음식도 받고 떡 작시래기도 얻어 왕 아이라도 주젠 허는디다가 이젠 얻어먹을 거 포기해돈 나완,

“아이고 뭐 무신 건디 거 목이 메이게 불렀시닌?”

허난,

“웅 저 돤배밭주¹⁹⁰⁾에 봐. 콩 한 방울 봐져네 화룻불에 구윳 반착은 나 먹고 반착은 거기 나뉘셔.”

경허니까,

“아이고, 이 놈의 녀석아!”

달려들멍 허운데기¹⁹¹⁾ 심영 박박 뜯으멍 한 거시 갈리더란다. 못살앙. 그 말은 남편이 너 무 멍텅하니까 못사는 것이다 하는 얘가지.

32. 고자 한 빛 꺾어 한 빛

제 보 자 : 고선수(남·60세)

조사일시 : 1993년 8월 1일

조사장소 : 제주시 회천동 제보자의 집

장개¹⁹²⁾ 간 후에 자기네 살림 살당 처가에 먹을 일 이성 갔는디다가, 각시는 이녁 서방 생 각해그네 떡을 갖다 놓는다, 이녁 친정 아방한테는 침떡¹⁹³⁾을 고자 한 빛¹⁹⁴⁾을 낫어. 서방직 시는 고자 한 빛 밑에 반착짜리 하날¹⁹⁵⁾ 물어서 고자 한 빛 밑에 꺾은 걸 노난 가려질 거 아니? 건디다가 어떻게뎡 모르게 서방도 눈치 채영 먹긴 먹어놔서. 근데 아방은 영 눈치가 쫓이 지네 소나이안텐 저영 왔구나 알아도 줌썸 행 눈치 채도 내볼엇단 말여. 경헌디 먹어놓긴 해

189) '거기 있어

190) 도마 끝에

191) 머리카락

192) 장가

193) 백설기

194) 백설기를 가른 것

195) 하나를

도 영 양심이 꺼렸던 모양이지. 밤에 자기네 잠 잘 방에서 잠 자다가,

“이녀 떡 놀때¹⁹⁶ 무사 나신디 고자 한 빗 꺾어 한 빗 놓고 아버지신디 고자 한 빗만 놔서?”

“좀좀¹⁹⁷ 험서게.”

허멍 경해신디. 툭툭 줍아들멍 해도 멩텅헤 논고라 못 날아들은 생이라.

“처부님¹⁹⁸?”

“무사¹⁹⁹?”

하니까,

“아부진 인척 고자 한 빗입디가? 난 꺾어 한 빗 고자 한 빗 놔십디다.”

경 그르난,

“기여²⁰⁰, 자라.”

헨,

“아이고, 이젠 모르게 생각행 놔 주당 보난 좀좀 행 내불지 안행 말했덴.”

“게문 아니랜 굴아불켜.”

“아부지, 인척 그저 고자 한 빗 뿐이우다.”

“기여, 자라.”

허더라는 얘기라.

33. 바보 사위와 김치

제 보 자 : 고선수(남·60세)

조사일시 : 1993년 8월 1일

조사장소 : 제주시 회천동 제보자의 집

자기네 집 살다가 처가에 불일 이성 갔는데 김치를 먹어봤는데, 어멍 맛이 있는지 밤중에 잠을 못자겠어. 가시어멍²⁰¹ 해논 김치를 먹어보니까, 김치 생각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 알몸

196) 놀음 때

197) 조용히, 말하지 말고

198) 장인

199) 왜

200) 그래

201) 장모

으로 문딱²⁰²) 벗어 좀²⁰³) 자다그네,

“저, 김치 어디 놔서?”

“어디 뒤에 있주.”

경 그르디 알몸으로 그냥 나강, 하나만 먹어 자젠 나간. 옥심부령 손을 다물령 탁 쫓단 말여. 폭 죄니까 단지 부리 크기가 주먹 두 개 나올 둘레 안되서, 영 들르민 단지가 들려져 분다 말여. 김치를 내불구정은²⁰⁴) 안하고 요런 답답이 없단 말여. 내불켄 허민 김치 놓칠 게 아까왕 김치를 꺼내지 못할 거 아니? 손 때와 불민, 폭 편냥 단지 들려져도 단지채 가져오기도 그렇고, 계속 아장²⁰⁵) 영 했당 정 했당 날이 새부러서. 날이 새부니까 가시어멍은 새벽 초반 허켄 허멍 장(醬) 걸으레 나왕 보난, 사위가 별경케 벗은 양 사위가 단지에 손 내밀령 앉안. 게난,

“사위가 여기서 무사 무사?”

허난, 좀좀 행 앉아이시난,

“⁷만²⁰⁶) 이시라. 나 어디 갔다 오켜.”

사위 무안하카 부덴 장모가 머리를 잘 썼단 말여.

“아이구, 나 어디 강 들어 뺑 오켜.”

점장이한테 강 물어보켜 이 말이지. 왜 손이 안 뻐지고 있나 물어뺑 오켄 허는거주. 그렇게 머리를 써서 사위 면목을 세워줬다는 거지. 조금 나갔당 들어오는 시간에,

“아이고, 저디 강 들어보난 권 거 내불민 뻐지켄 험져.”

권 거 내불민 뻐지켄 허니간,

“양?”

허니간 그동안 내가 뭘 쫓려고 했는지 잊어버렸거든, 하룻밤 날 새부니까 잊어버려본 거라. 이젠 게난 권 걸 내부난 영 뻐지거든.

“아이구, 그거 아는 점쟁이여!”

경 곧드란다.

202) 죄다, 모두

203) 잠

204) 쥐었던 손아귀에서 놓으려고는

205) 앉아서

206) 가만히

34. 영리한 아들

제 보 자 : 고선수(남·60세)

조사일시 : 1993년 8월 1일

조사장소 : 제주시 회천동 제보자의 집

앞집 강서방 각시가 뒷집 김서방이랑 내통이 된 거라. 몰래 자주 간통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앞집 강서방은 여덟살 난 아들이 하나 있는데, 같이 밭에 콩 갈러 가는 거라, 아방이 영 콩 갈래 가는다. 아방은 눈치를 몰라도 아들이 눈치를 췌 거라, 벌써 어머니의 행동을. 계 난 콩 갈래 가면서 콩씨를 다 준비해 놓고 안가져 간 거라 일부러. 아들한테,

“콩씨 좀 가정 오라.” 허니까,

“예.”

대답해 두고 나갈 때는 일부러 안 가지고 간 거라. 그러믄 자기네가 없는 동안에 어머니의 안 좋은 행위가 있을 거다 예측을 한 거지. 그래서 한참 가다가,

“아구, 아버지 저 콩씨 잊어버렷 왔수다.”

계난 여기서 그까지 돌아갈만한 거리면 틀림없이 문에 도착할 수 있을 거라, 예측을 한 거 지 어린애가.

“그럼 혼자²⁰⁷⁾ 강 가져오라.”

허고 아방은 지만 가는 거지. 아들은 달려왔거든, 달려와서 흙담에서 붙어서 집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마침 일이 진행되고 있거든. 계난 그만히 들연. 뭐라고 얘기허냐 허믄 자기 어 명이 그 뒷집 서방한테,

“오늘 어디 갈 거라?”

허니까,

“나도 아무 밭에 밭 갈러 갈 거라.”

허니까,

“가그네 갈았시믄 나 찹쌀²⁰⁸⁾ 혼 말 놔둔 거 있으니까, 그거 행 침떡 갈아 가져가켜.”

이녀 서방 밭 갈러 갈 땐 아무 말 았고, 놈의 뒷집 흙아방신딘 가져가겐 헌덴 말이여. 아

207) 빨리

208) 찹쌀

들은 이젠 알고 난 다음에 이제야 막 뛰어오는 척 한 다음에,

“어머니, 저 콩씨 잊어버려동 간, 콩씨 가지러 완.”

“아고, 무사 잊어버려게.”

뒷도 모르고,

“훈저 여기 있다. 가져 가라.”

허니까, 가져 간. 한참 가다 보니까, 아방은 밭에서 압소하고 나쁜 짓을 하고 있었던 말이여. 근데 아들이 그걸 봐버려라. 이제는 “나 어디 갔다 오켤” 해동, 막 뛰어간 거라. 뛰어간 뒷집 아저씨가 밭에 가는 모습이 보일 만한 큰 나무에 올라간 가만 앉아 기다린 거라. 어멍이 나타나길 기다리는데, 아닌게 아니라 밭에 가는 사람이 하얀 깨끗한 옷 입고 떡 행 지고 올라 간단 말이여.

“어머니, 밭 이디우다²⁰⁹⁾. 이디우다. 이디우다.” 불른 거라.

“밭 잘못 감수다. 이디우다. 이디우다.”

막 불러부니까, 어멍은 못 알아들은 척 할 수도 없고,

“아구, 나 잘못 걸어가졌구나.”

허멍 이 쪽으로 온 거라. 이젠 뒷집 김서방 갔다 주기로 했는디 못 갔다 칭 오죽 불이 날 거라 약속을 위반했으니까, 간통사랑이 깨질 염려가 있거든. 아, 이젠 할 수 없이 아들따라 온 거라. 떡을 먹는데 자기 있고 싶은 곳이 아니지만 떡을 먹는다 아들이 또 느낀 거라. 침떡 고자 한 빗을 톡하게 무릎 앞에 놓으니까,

“거 무신 거 허젠?”

“뒷 김서방 갔다 주켤.”

허니까,

“아, 가나? 그면²¹⁰⁾ 하나 더 갖다 주켤.”

얼싸 좋아 많이 갔다 주켤 허니까 요놈의 새끼가 갖다주켤 허멍, 가다가 훈 조배기²¹¹⁾ 훈 조배기 흘리멍 가서. 자기네 밭에서 그 밭까지, 그까지 가난 딱 훈 조배기 남아서, 그 할아버지신디 가 보니까 훈 조배기 남아 가니까,

“무사 완디?”

“우리 어멍이 떡 갖다 주라고 해서.”

“어느 거라?”

209) 밭 여기우다

210) 아, 그러나 그러면

허니까, 떡 혼 조배기 준단 말이라. ‘말하기는 촌쌀 혼 말 떡 행 가져오켄 행계마는 겨우 이거 보냈나.’ 알미울 거 아니? 껌해질 거 아니? 정이 멀어질 거 아니? 경해동 이젠 그냥 거 쥐둥 와부러서. 와그네 아방한테 뒤편 골아시른 거짓말을 해서,

“뒷집 김서방이 발전기 고쳐 도랜.”

번쩍 거짓말을 한 거라.

“기민, 경혀주게.”

이녀 것을 세워동 가명 영 보니까 떡 혼 조배기씩 이서. 보니까 쪽 이서 띄엄띄엄 막 그 발까지 가 보니까 계속 있던 말이어. ‘이상하다.’ 가보니까 김서방은 쇠에 물먹이젠 발전기에 소 명에를 풀어 놓고 소 물 먹이래 가분 거라. 거난 발에 김서방이 없는 거지. 발전기엔 아무 이상이 없어. 그래도 고치는 시늉을 하고 돌아온 거라. 돌아오다 그 떡이 아까운 거라 뒤편은 거라도, 오다가 계속 주수명 와서. 계난 어명이 영 보니까 아들한테,

“아방이 뭘 주수명 왓시?”

“어명 뒷집 아저씨랑 나쁜 짓 하나까 돌맹이 주서 왕 맞혀 죽여불켄 햐서.”

경 거짓말 해부니까, 어명은 또 다시는 경 안허켄 용서해 달랜 허명 막 도망가는 거라. 아방이 왕 보니까, 어명이 막 도망가거든,

“너희 어명 무사 정 막 도망감시?”

허니까,

“아버지 쇠영 나쁜 짓 해부니까 관청에 간 고발해 불켄 간다.”

고 하니깐,

“나 다시 안허크라, 안허크라.”

막 서로가 잘못했던 허명. 영리한 아들이 부모의 버릇을 고쳐나서.

35. 남선비

제 보 자 : 고선수(남·60세)

조사일시 : 1993년 8월 3일

조사장소 : 제주도 회천동 제보자의 집

옛날 남선비라는, 목수를 하면서 사는 남선 목수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아들을 아홉 형제 낳았어. 그걸 가르치고 키우려고 하니까 힘이 드니까 아무리 해도 안되니까, 혼자 배를 가지고 물건을 팔 차게 싣고 장사차 나갔어.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풍량이겠지 뭐, 파

선이 되어서 어디에 갔냐면 무인도 같은 데 가게 되었지. 그런데 거기에는 하필이면 노일저대라는 여성이 있었어. 아주 인간성도 야비하고 어떻게 보면 심청전의 뽕덕어미처럼 그보다도 더 심한, 노일저대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그래도 팔고 돌아오다가 조난당한 모양이라. 돈을 그래도 수중에 가진 채로 파산되었는데, 그 나쁜 여자한테 걸려서 완전히 탕진하고, 이제는 돈이 없으니까 그 여자가 어디 가서 자기 노리개²¹²⁾를 해 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줘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완전히 거지 취급을 해버렸단 말이야. 어느 정도로 푸대접을 하고 학대를 했는가 하면은 체죽²¹³⁾을 끓여 먹었어. 쌀 껍데기로 죽을 끓여 주었던 말이야. 완전히 그걸 먹다 보니까, 먹는 거라고 먹었지 영양이 없는 거니까 이제는 헛개비에 들렸어. 정신이 없어버린 거지.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남선 목수의 부인은 찾아봐야 할 거 아니? 소식이 없으니까. 아들들한테, "너희들 초신²¹⁴⁾ 한 개씩만 삶아도 아홉 개가 아니냐? 그걸 만들어 주면 짊어지고서 아버지를 찾아보겠다." 그래서 아들들이 그 말을 듣고 열심히 짊신을 삼아드렸지. 그러니까 짊어지고선 다니다가, 헤어지른 갈아신곡 허는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연내못 다니다 보니까, 아들들한테 배까지 만들라 해서 통나무배를 만들었지. 아홉 형제가 힘을 합해서 통나무배까지 만들어 주니까 그걸 타고 갔어. 가다가다 닿은 것이 하필 또 그 섬에 닿았다 그거라. 우연의 일치지. 근데, 사람들의 흔적은 없고 조그마한 초막새²¹⁵⁾ 하나가 있는데, 이제 좀 하룻밤 투숙이라도 하려고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도 없어. "이수광²¹⁶⁾ 이수광?" 해도 기척을 안하다가 거적문을 피씩 열어 보니까, 악녀는 마침 출타중이라 없고 자기 남편만 거기 있는 거라. 거기만 자기 부인을 봐도 몰라볼 정도로 사람이 망가져 버린 거라. 부인은 남편을 알아보는데, 아무리 험해졌어도 알아보는데 남편은 부인을 몰라보는 거라. 그러노라니까 체죽 단지 옆에 차고, 체죽 죽 끓여 먹는 죽단지, 오줌 요강 옆에 차고 사람 몰라볼 정도로 있다 이 말이야. 이거 어떤 일이나고 탄식을 허당 보니까, 그 노일저대라는 악녀가 돌아왔지. 누구냐고 물으니까, 나 이런 사람이라고 허니까, 그래도 양심이 쪼끔은 있을 거 아니? 본부인이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뭐 어찌고 막 좋은 말 가지고 실은 뭐, 내가 생명이 위태로운 걸 구출해 주고, 돈 먹었노래 말 안하고 이? 막 그렇게 하니깐 오꽃²¹⁷⁾ 고맙게 생각할 거 아니? 살려줬으니까, 어

-
- 211) 조각
 - 212) 놀음
 - 213) 곡식의 껍질로 끓인 죽
 - 214) 짊신
 - 215) 초가집
 - 216) 계십니까?
 - 217) 그만

졌든 채죽을 끓여 줬었다라도 그런데 이젠 '어떻게 남편을 좀 정신 차리게 해서 데리고 집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 노일저대란 악녀는 기회를 놓치면 안되지, 죽여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여디²¹⁸) 가면 연내뭇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시원히 목욕이라도 해서 가는 게 어떠냐?"
고, 그러면서 막 꼬였단 말여. 그러니까 순진한 본부인은,

"어, 그럼시다."

답답하기도 하고 오래 여행도 허고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악녀는 깊은 댜 알뉜 허고 알은 댜 깊은 허고 거짓을 한 가지. 해서 그 본부인을 깊은 쪽으로 유인(誘引)을 한 거라.

"영협씨²¹⁹) 등이나 밀어내주."

이렇게 등을 밀어준다고 허니까, 순진한 사람이니까

"아니, 좋다²²⁰."

해도 악녀가 막,

"내가 봉사하겠다."

고 허니까, 뭐 말하는 대로 들었지. 그런 것이 두어 번 등을 미는 척 허다가 툭 밀어버리니까, 깊은 쪽이니까 그냥 빠져 죽은 거지. 그러니까 그 옷을 다 입은 거야. 본부인이 벗어 놓은 옷을 입고 이젠 가자고 현 거지. 목욕을 하러 가기 전에 고향이 어디고 집이 어디고 다 물었단 말야. 그 악녀가 그래 가지고 그 남편을, 반병신 된 정신병자 되다시피한 남편을 데리고 갔다 말여.

집에 가니까 아들들이 있을 거 아냐? 아들들은 어머니가 닳아 뵈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오랜 세월 있다가 아버지를 데려오니까 어머니도 안 같아 뵈고 아버지도 긴가민가²²¹)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중에 아홉 형제 중에 영리한 막내아들 녹두생인 "저것은 우리 어명이 아니다. 아버진 우리 아버지주만은 어머니 우리 어머니가 아니다." 라고 해도 그 위로 여덟째 형부터 첫번째 형까지는 "어머니가 아버지 찾으러 그렇게 쏘다니고²²²) 고생했는데, 어머니 모습이 그대로 있을 리가 이시냐?" 는 식으로 주장하면서 자기 어머니라고 주장헌단 말이여. 그러니까 알았다고 허면서도 자기는 절대로 자기 의지를 버리지 않았지. 자기 판단력을. 무슨 만행이 나올 것이다, 예측을 조근조근²²³) 했는데 하루는 어머니가, 어멍은 자기 친 어머

218) 여기

219) 이렇게 돌아앉으세요

220) 괜찮다

221) 맞는가 틀린가

222) 해매다니고

223) 가만가만히

니는 연못에서 빠져 죽어버리고, 그 어머니²²⁴⁾가 아픈 거라. 아파서 병이 나서 죽어지겠다고 막 허니까 어떻하면 좋으나 그러는데, 아들들은 눈치만 보고 있는데, 다른 아들들은 '아파서 어떻할까?' 허기만 허고, 작은아들²²⁵⁾은 가만히 정황만 살피고 '뭐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것만 자꾸 추리하려고 하는데, 악녀가 병신 다 된 남편을 이용해그네, 남편더러,

"가만 있지 마랑 여쪽에 아무 데랑 돌아가다 보면, 길가에 귀쟁이 둘러 쓰고 앉아 있는 잘 아는 점쟁이가 있으니까……"

길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자기는 셋길로 꺾 가서 자기는 그 귀쟁이 쓰고 앉은 거라. 환자인 척 하던 그 부인이 가서 이렇게 이렇게 짚어 보는 체 하다가,

"아들의 애²²⁶⁾를 아홉 개 먹이면 낫겠다. 가서 그렇게 해 보라."

고 해두고, 자기는 셋길로 달려와 가지고 죽어가는 체 허고, 하루방은 지나온 길로 돌아와 보니까 할망은 죽어가고 있어.

"뭐라고 하드냐?"

그러니까, 뭐 이리이러한 말로 아들 아홉 형제 애 냉²²⁷⁾ 먹이면 좋겠다고,

"아고! 그걸 어떻허, 어느 애기 낳뎌 이리 아파시라."

허구 설운 말 허면서,

"그러면, 헐 수 없이 먹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아들한테 말하라 이거지. 그러니까 병신처럼 큰 아들 불러서 이리이러한다 이러니까 경허른 뭐 효도라고 부모를 위해 자식들이 죽어주는 게 효도라고 그렇게 생각허는 거라. 그러니까 해줄 수 밖에 더 있느냐고 그 때 작은 아들이,

"형님네도 차마 그렇게 못헐 거니까, 내가 막내니까 내가 그 약을 해드리쿠다. 났²²⁸⁾ 여덟 형제를 내 손으로 다 애를 내다가 드릴 태니까 자시고, 나는 나중에 하나 더 자시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어떻안태²²⁹⁾ 제안을 했다. 그러니까,

"경이라도²³⁰⁾ 허라."

어떤 기교, 묘책을 부리는 줄 몰랐거든. 거난 형제들은 아방안태 직접 죽겠다고, 왜 동생안

224) 노일저대

225) 막내아들

226) 창자, 여기서 발화자는 간(肝)으로 구연하고 있다.

227) 내서

228) 내일

229) 어머니에게

230) 그렇게라도

태 죽느냐고 고집을 부리는 거여. 그러니까 이제는 눈꼬막이고²³¹⁾ 강제로 권하다시피 하면서 여덟 형님들을 데리고 산으로 갔어. 산으로 가서 얘기하는 것이, 산신에게 기도를 드리는 거라.

“우리 여덟 형제를 살려주시려거든 산돼지 새끼 여덟을 거느린 산돼지를 내려보내 주시고 그렇지 않을려면 말라.”

그러면 우리가 죽겠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기도가 통했는지 지성이면 감천이라서 그런 건지. 산돼지 새끼 소리가 나더니만 실지 새끼 여덟 개가, 산돼지가 내려왔다 이거여. 그래서 그걸 잡았지. 그렇게까지 하기 시작하니까 형들이 눈치를 채기 시작한 거라. 형들이 깨달은 거지. 아하! 하는 생각이 들었지. 그래서 같이 동생과 협력한 거지. 그래서 예를 낸 거는 돼지 간인지 사람 간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돼지 새끼 여덟을 희생시켜서, 그 간을 여덟을 해 가지고 막내 아들은 가지고 가고, 형님네들은 완전히 포위해서 공격개시를 했지.

“형님들아! 하거든 나와 달라. 모여들어 달라.”

해서 다 배치해 놓고 자기만 들어갔어.

“우리 형님들의 애를 내어왔다.”

고 하니,

“아고, 너²³²⁾ 보는 앞에서 어떻게 먹느냐 나가라.”

“어서 잘 먹읍써.”

해동, 바깥에 나가는 채 하다가 구멍을 뚫어서 봤단 말이여. 보니까 손부리에 피 붙이고 입술에 피 붙이면서 자리 밑으로 전부 감춰 버리거든. 그래서 딱 같이나 버리거든. 조금 있다가,

“좀 어떻게 봐우까?”

허니까,

“하나만 더 먹어서민 좋켜.”

완전 씨 없애 버릴려고

“그러면 나 마지막 가는 길에 어머니 병자리라도 누은 병자리라도 청소행 가쿠덴.”

그렇게 말했지. 그러니까,

“아이고게 중병석에 방소제²³³⁾ 행 무신 거 허여?”

231) 눈 깜짝이고

232) 너

233) 방청소

못하게 허는 거라. 자기 감춘 것이 있는디 허게 헐 리가 있나? 그때 딱 그 어멍을 들고 던졌어. 딱 마루로 던지면서 그 자리를 확 걷었지. 걷으면서,

“형님들아!”

했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숨겨놓은 걸 보니까 어머니 심보를 알게 된 거지. 그때는 노일저대가 도망갈 데라곤 없지. 일로²³⁴) 도망갈려고 봐도 죽었는가 했던 아들이 다 있던 말이야. 이쪽으로 가도 보이고 저쪽으로 가도 보이고 갈 데가 없으니까, 화장실 옛날 이렇게 앉아서 돼지 대가리²³⁵)로 두루 똥 싸던 통시²³⁶) 쪽으로 가서 이제 어쩔 바를 모르다가, 디딜팡 돌²³⁷)에 자기 머리를 매어 죽었어. 디딜팡에 드러눕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죽으니까, 아들이 그걸 그대로 내버릴까 하다가 하도 한이 맺히고 그러니까, 그걸 돛도구리²³⁸) 여기도 얹어져 있어. (청중 웃음) 돛도구리에 놓고 그 시체를 막 뺏아서. 가루가 될 정도로 뺏아가니까, 이 노일저대 혼정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나 몸일랑 꼭다귀²³⁹) 몸애나 가라. 파리 몸애나 가라. 모기 몸애나 가라.”

여하튼 사람에게 막 해(害)를 끼치는 짐승, 곤충, 모기 같은 거를 그렇게 막 연결시켜. 그래서 모기는 사납게 사람을 쏜다 얘기. 노일저대 혼정이라 허는 거시여. 그 모기도 그냥 미생물로 나온 것이 아니고, 노일저대 혼으로 나온 곤충이라 얘기 해. 그렇게 해서 한풀이를 해놓고 아들이 아홉 형제가 어멍 초지리²⁴⁰) 나간 거지. 아버지 보고 기억을 더듬어 보라고 막 그러니까 이리이러 해서 이리이러한 일이 있다만은, 전에 표착한 일이 있다고 그 말만 하는 거라. 그 다음은 기억을 못하는 거지. 계단 그 쪽을 찾아보는 거라. 다시 그 어머니가 타고 갔던 배를 만들어서 그 쪽을 대충 짐작해서 방향을 잡고 찾아 가는 거지. 가보니까 그런 집이 있거든. 이제 아방도 같이 데리고 간 거지. 근데 보니까 연못이 하나 있는데, 큰 꽃이 하나 연꽃처럼 뚜렷하게 한 송이만 연못 한가운데 있어. 그러니까 그 막내아들 녹두생이가 팍 캐취를 한 거지.

“저게 어머니의 영혼일 것이다. 그 물을 쫓자.”

그 수가 많으니까 아홉 형제니까 물을 한 며칠, 두 이레, 열 나흘이라고 해. 14일을 쫓어. 연못이 바닥이 나게 뚫단 말야. 빼만 가만히 가지런히 남아 있거든. 그러니까 그때 흩어진 것

234) 아리로

235) 머리

236) 돼지우리를 걸한 변소

237) 통시에 두 발을 디딜 수 있게 걸쳐진 돌

238) 돼지 먹이를 주는 돌그릇

239) 각다귀, 벼나 보리의 뿌리를 잘라 먹는 해충

240) 찾으러

은 차례로 잘 놓고, 거기에 인제 생불(生佛)이란 말이 나와. 삼신할망. 어린애 출생시키는 역할을 맡은 신(神). 그 할망이 사람을 어떻게 포태(胞胎)시키는가 하면 꽃으로 한다고 해. 그래서 그것이 연결되는지 물 오를 꽃, 살 오를 꽃, 피 오를 꽃, 웃음 웃을 꽃, 용심날 꽃,²⁴¹⁾ 뭐 그런 이름을 모든 꽃에 붙여서 다 말하고는, 차례로 꽃을 갖다가 뼈 위에 놓는 거지. 아홉 형제가 힘을 합쳐서 그래 놓고, 동드레²⁴²⁾ 뽕은 버드낭²⁴³⁾ 가지 세 개를 꿰어다가 삼세 번을 확확 내 후리면서

“어서 일어납서.”

허난,

“너무 오래 잤다.”

하면서 일어나드라. 그래서 환생(還生)해서 본가(本家)로 돌아가서 잘 살다 죽었다는 얘기에.

36. 스만이

제 보 자 : 고선수(남·60세)

조사일시 : 1993년 8월 1일

조사장소 : 제주시 회천동 제보자의 집

옛날 스만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아주 가난하고 스난해서. 심히 가난하다는 말을 가난하고 스난하다고 해. 건데 하루는 하도 먹을 건 없고 허니까, 게른 해 먹을 거라도 마련해 되야겠으니까 자기²⁴⁴⁾ 머리를 자른 거라. 그 스만이 각시 머리가 쉰 댕자를 길었어. 쉰 다섯자. 혼자 두자 해서 쉰 다섯자 정도 길렀던 머리를 그 머리를 자른 거라. 스만이 각시가 끼니를 이어가려고 그래서 그걸 짜르고 남편한테 주었어.

“이길 가서 팔아가치고 쌀이라도 한 홉 받아 오라.”

허니까, 스만인 가지고 나갔는데, 각시는 ‘언제민 쌀 한 줌 받아 왕, 밥 한 직 해 먹어 보리.’ 눈 빠지게 기다림 보니까, 무시겨 총 닭은 거 하나 이상헌 거 들렁왔단 말어. 게난,

“그, 그 놈의 요건 뭐꼬?”

허니까,

241) 성별 꽃

242) 동쪽으로

243) 버드나무

244) 사만이 부인을 지칭

“쌀을 반알 허민 그것만 먹어볼민 말 거, 이 건 상²⁴⁵⁾ 오민 허다못해 쟁이라도 한 마리, 생이²⁴⁶⁾ 한 마리 쏘아도 계도²⁴⁷⁾ 오래 이어갈 수 있으니까 이걸 사왔다.”

계난, 그만하면 엄청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사 왔던 모양이라. 아 이젠 이왕 경험 왔으니까, 사냥이라도 할 수 있게 내보내야 된다 말여. 계난 어떻허영 요다²⁴⁸⁾ 강 혼 주먹, 저디 강 혼 주먹 허멍 겨우 얻영, 잘 출렁 산신제 지내는 식 제사가 될만큼 잘 출려내 이제 보냈어. 사냥을 갔는데 돌아다녀봐도 하나도 아무 것도 이서야지. 쟈 이젠 것도 빈복해서 원 먹을 게 눈에 걸리지 안해여. 그냥 돌아오는데 ‘깡깡깡’ 무신 소리가 나. 무당들 말허민 ‘때르릉 때르릉’ 한다.

“때르릉 때르릉 날 데려다가 너희 집에 잘 모시어 삭망삭일 초하루를 보내민 너희 집이 잘 되리라.”

그런 말을 해. 계니까 이디저디 보니까 아무 것도 없어. 쟈디 또 그냥 나가든 또, “삭망삭일 초하루를 보내민 너의 집이 잘 되리라.”

경허고, 잘 둘러보니까 해골이 하나 이서. 백년대골 하나가 그런 말을. 거밖에 없는데 거기서 그런 말이 나오고 있다 말여. 계난 홀 수 있나. 마음 약한 스만이는 걸²⁴⁹⁾ 옷자락에 놓고 왔다. 포에 싸고 왔다 말여. 싸고 오당 ‘걸 집에 막 가정 들어오젠 허난 그렇고, 잘 모시랜 헌 말 들었는데 어떻허코’ 허당 올래²⁵⁰⁾ 물팡돌²⁵¹⁾ 아래 숨겼다 말여. 물팡돌이라는게 지금 우리 올래도 있주만은, 옛날은 적당한 높이에 적당한 크기에 판석을 만들어서 출입구에 논다고 잠시라도 설 수 있는, 그런 걸 물팡돌이라고 허는데, 또 돌을 타고 내릴 때 발돋움으로 이용한다, 그래서 물팡돌이지. 그런데 저녁식사나 어떻게 좀 각시가 채려 왔는데 밥을 들려고 허니까,

“때르릉 때르릉, 예 요놈 스만야, 나를 두고 너 혼자 밥을 먹으려고 허느냐?” 막 그런단 말이여. 아, 그러니까 이거 어떻허겠어. 아 또 다시 숟가락을 놔다가 또 먹으려고 허민 또 그러고, 그러니까 각시가 물은 거지.

“저 무신 소리냐?”

그러니까, 아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 그래서 차마 가지고 들어올 수 없어서 돌아래 두고

245) 사서

246) 새

247) 그래도

248) 여기

249) 그것울

250) 집으로 들어가는 길

251) 노뚝돌(下馬石)

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고 스만이 각시가 그렇게 정성을 다 들이는거라. 가서 잘못 된 거라고 잘못했수텐 막 빌면서 치마폭에 탁 받아안고, 치마폭을 탁 펼치니까 백년대굴이가 저절로 굴러왔다는거라.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서 자기가 굶어도 자기네 두 각시 먹을 거 어성 그 끼니 굶어도 정성을 다 들이는 거라. 그 끼니 굶은 다음엔 사냥 나가면 제법 와, 먹을 거. 그니깐 나중엔 잡으러 가니깐, 배가 덜 고평가니까 하나씩 강 팔아서 돈도 만들어서 쌀도 반 양 먹을 수 있고 그래. 그래 가니깐 더 잘 모실 거 아니 그 해골을. 매끼마다 밥을 행 맥여주 듯이 채려주는 거라. 그 해골 모신 옆에. 그러노라니까 하루는 아 뭐 밤중에 마루 밑에 '때르 룡 때르룡' 소리, 어떤 사람은 '쌩그르르 쌩그르르'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땡땡'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땡그르르' 하는 것이 좋음직해.

“땡그르르 내 스만아, 이리 오너라.”

경 말허니까 스만이 각시가 가니까,

“저 모렌 말이다. 모랫날은 삼차사가 너의 남편을 잡으러 올 거니까 내가 말허는 거 잘 들었다가 모레 맞도록 허라.”

게난 저승 삼차사가 자기, 자기 스만이 남편을 잡으러 온다는 거지.

“어떻허믄 좋습니까?”

그러니까,

“갓, 머리 쓰는 갓 삼 배, 도포에 매는 띠 삼 배, 목해 삼 배, 신도 세 개, 도포도 세 개, 모든 걸 음식도 그렇게 해서, 향불을 그윽하게 피워서 산 주변에 큰 상, 다리 높은 상, 제삿상으로 쓰는 거, 큰 상 심겨서 향불을 막 밑게 독하게 피워 놓고 바깥에 가서 엎드려서 기다려라. 그러면은 차사들이 나타날 거니까. 차사들이 와서 그것을 먹고 이거 한다 할 고비에 나타 나서 명을 빌어라.”

쪼금만 더 살게 해 달라고 명을 빌어라 이거지, 삼차사들에게 직접. 그런데 그 말을 들으니깐 스만이 각시가 오죽 걱정이 들거라. 서방 살리젠 허니까 게. 게난 별 생각을 다 하고 해골이 말한 대로 준비했어. 마 빗질까지 하면서²⁵²⁾ 생질나게 얻어다 다했지. 스만이 각시 데꼬²⁵³⁾ 바깥에 딱 엎드려 있었는데, 아 저승차사들이 손 잡으멍 오다가 시장기는 나는데 어디서 좋은 향기가 난단 말여. 보니까,

“어디서 나는 냄새냐?” 허당 보니까,

“어, 저기 뭐가 있는 것 같다.”

252) 빗까지 얻어다

253) 데리고

해서 가서 보니까 잘 차려 놔단 말이. 세 사람 분이

“아, 누가 이렇게 해 놔올꼬?”

“혹시 우리가 오는 줄 알고서 스만이 놈이 저거 우리에게 빌어붙이기 위해서 계난 와이루²⁵⁴⁾를 쓰기 위해서, 빌어나기 위해서 이거 해논 것이 아닐까?”

길까 아닐까 막 허다가,

“한 번 불러보자. 이거 스만이 해 놔서 이 부근에 이실 거 아니냐? 그러니깐 이것을 나눠서 먹어야 될 거 아냐? 이 음식을.”

“것도 그럴 법하다.”

“사만아, 우리 올 줄 알고 이렇게 채려놔느냐?”

한 번 좌악 세 번 부르거든 대답허랜 했거든 해골이. 계난 삼차사가 하나씩 하나씩 다 부르는거라. 맨 마지막에 똑같이,

“우리 올 줄 알고 그렇게 채려 놔느냐? 스만아! 스만아!”

막 크게 부르니깐,

“예, 과연 올 줄 알고 이렇게 차려놔나이다.”

막 그랬단 말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먹고 어떻게 허라는 거냐?”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잘 먹음만 허민 된다고 허니까. 아 다 먹은 다음엔,

“그래도 너 말 헐 거 이시른 해라.”

했거든, 먹어놓고 나니까,

“자, 우리 우리가 영 인정을 졌으니까 그래도 뭐 보답도 해야 할 거 아니냐.” 허는 말이지.

“더 바랄건 없고, 명만 좀 이어달라. 내 명만. 지금까지 하도 가난하게 살고 먹을 것이 어성 못 먹고 살다가, 이제 겨우 살아가면서 뭐 입에도 풀칠하고 있는데 이제 내가 죽어붙은 어명허느냐, 허니까 명만 좀 이어달라.”

그러니까,

“글쎄 그건 어려운건데, 지금 그 문제²⁵⁵⁾ 다루는 사람이 딱 스만이 체크가 되서, 스만이 잡으러 너 잡으러 가는 길인데 이걸 어떻게 하든 좋으냐? 먹긴 먹어놓고 어떻허민 좋으냐?”

계난, ‘거기도 옛날 ‘인정 시큰 배 파(破) 하는 법 없다.’는 말이 적용되는데 인정을 배에 실었다. 계난 정성을 다 들여서 시켰는데, 그런데 그 배가 파손하겠느냐? 정성이 있으면 즉 지성이면 감천이니 배도 파손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일리가 되는데,

255) 문서

“건데, 인정 신근 배 파하는 법 없다. 우리도 인정을 받았으니까 좀 보답을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중에 삼차사 중에 막내가 그 제일 하급 졸병이,

“방법이 있다. 지금 문세, 죽을 사람 명부를 가진 사람이 지금 문세를 머리 밑에 놓고 잠 자고 있다. 낮잠 자고 있다. 그러니까 그걸 가서 변조(變造)해 버리자.”

가서 보니깐, 정말 잠들고 있거든. 겐 이젠 이렇게 팔을 베어서 자고 있는데 팔이 아니라 보니깐 활짝대라는, 무신 말인지 모를 거다. 저 대나무 굵은 거 왕대 굵은 대나무 한 마디 이용해서 한 쪽은 구멍 내고 한 쪽은 구멍 매워서 그걸 막 예쁘게 다듬어서 그 속에 나무 뿌리 썩은 거, 아주 가루가 되지 않을 정도로 뽀뽀하게 썩은 부분을 이용해서 그걸 말리면 옛날 부싷돌볼로 그걸 불썩²⁵⁶⁾이라고 하는데, 불 붙일 것을 놓는 기구로 사용하는 대(竹) 한 마디를 불썩대²⁵⁷⁾라고 해. 불썩대를 하나 베고 자고 있는 거라. 대 한 마디를 베개 삼고 이렇게 세워서 자고 있는 거라. 그만큼 정신통일이 된 사람이란 뜻이지.

그래서 자고 있으니까 문세를 살살 걷어보니까 스만이 있거든. 스만이 있으니까 스만이 밑에 사천을 더 써부는 거라. 사만사천이 되분 거 아니? 두 자를 삼입시켜 버린 거지, 스만이 이름 밑에. 그러니까 이름이 없어져 버린 거지. 스만이 이름이 없어지고 사만사천이 되니까 이름이 이것도 저것도 아니지. 수명은 다 됐는데 스만이 잡아와야 될 건디 사만인 없단 말이여. 계난,

“스만이 잡아왔냐?”

물으니까,

“스만이 없더라.”

고, 경했거든. 가보니까 스만이 없더라. 결과보고 해야될 거 아니냐? 잡으러 강 보니까 어서랜.

“그럴 리가 있느냐?”

다시 걷어보니까 사만사천이란 말이야.

“아, 이거 틀렸다. 내가 사만인줄 알았는데, 사만사천인데 아직 때가 안됐다.”고, 그러니까 스만이 자기 명만 산게 아니라 사만사천년을 산 거라. 하도 오래 사니까 중 됐다가, 늙은이 됐다가, 어린이 됐다가, 완전히 지 마음대로 조화를 부리면서 사는 거라. 이젠 저승에서 사자가 와도 잡을 길이 어서. 어린이 잡으러 가보면 어른이 되고……. 아예 저승에서 이젠 차사들

256) 부싷깃

257) 부싷깃을 담아두는 대통

이 스만일 잡으려고 늘 돌아보는데 한 번은 연못에서 말(馬) 물 먹이는 저 놈이 아닌가. 모습
이 비슷해낸. 차사가 늙은 할망으로 변신한 거라. 그래서 숲을 막 물에서 빠는 거라.

“거 빠는 거 뭐요?”

“숲이지 뭐요.”

하니까,

“거 뭐 할라고 빠는 거요?”

빨 이유가 없는 걸 빨아가니까 경허는 거 아니? 그러니까 스만이가 넘어간 거지 그 작전으
로 그러는걸 모르고,

“아, 고으라고 빨지 뭇때문에 빠는나?”

그러니까 스만이가,

“내가 사만사천년을 살아도 숲 빠는 사람은 처음 보았다.”

고 그러니까,

“요놈 잡았다”고 폭 잡아버렸다.



제보자 : 고 선 수

信仰

目次

- I. 概觀
- II. 民間信仰
 - 1. 마을제
 - 1) 동회천 - 석불제
 - 2) 서회천 - 리사제
 - 2. 당제
 - 1) 동회천 - 하루산당
 - 2) 서회천 - 남선밭당
 - 3. 家庭信仰
- III. 公認宗教
 - 0. 화천사

I. 概觀

회천은 동회천과 서회천으로 나뉘어진 자연부락인데 유식제인 마을제와 무속제인 당제가 각각 치러지고 있으며 공인종교 시설로 화천사가 있다.

마을제는 유식제로 치러지고 있는데, 동회천의 석불제(石佛祭), 서회천의 '이사제(里社祭)'가 여기에 해당된다. 당제는 무속제의로 치러지는데 동회천에 '하루산당', 서회천에 '남선밭당'이 모셔지고 있다. 마을제는 동회천과 서회천 모두 지속적으로 마을행사로 크게 치루고 있으나 당신앙에 있어서는 동회천의 '하루산당'이 마을행사로 자리하고 있는 반면에 서회천의 남선밭당은 현재 개인행사로 치뤄지고 있다. 특히 동회천의 '하루산' 당제는 산신놀이[달놀이]를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외에도 가정신앙으로 조왕제와 산신제, 토신제를 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조왕

제와 산신제보다는 토신제를 많이 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래서 본 조사에서는 토신제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공인종교 시설로는 유일하게 화천사가 있을 뿐이다. 화천사는 태고종파의 절로 동회천 3분의 2세대, 서회천 2분의 1세대가 신도이며, 마을 주민들의 신앙생활과 많은 관련을 맺고 있다.

II. 民間信仰

1. 마을제

1) 동회천-석불제

(1) 祭名 : 石佛祭

(2) 유래 : 영조때 이형상이 목사로 부임하여 제주도의 절 500, 당 500을 일거에 파괴시킨 사건이 있었다. 이때 회천에 있던 큰 절이 없어지자 젊은이들이 죽어갔다. 마을 주민들이 이를 근심하여 五石佛을 만들어 모시게 되었다.

(3) 祭神 : 石佛列位之神

(4) 神體 : 五石佛(당대화생미륵존불 - 천백역화신석가모니불 - 범신불청정법신비로자나불 - 원만보신로자나불 - 극락도사아미타불)

(5) 祭日 : 陰曆 初丁日

(6) 祭壇 : 화천사 경내에 마련되어 있다.

(7) 祭儀 管理

① 12월 25일 연말회의(동총회) 때 통장 사회하에 거수로 제향위원 6~7명을 선출하고 제향위원 내에서 제관을 선출한다.

② 祭官 : 初獻官, 亞獻官, 終獻官, 大祝, 집사 2人

③ 祭官資格 : 재기간에 집안에 중요한 일이 없고 몸에 이상이 없는 분.

④ 祭費 : 회사금과 마을 경비로 충당한다.

(8) 祭物

매 8器(5기 - 5석불, 3기 - 산신, 물신, 당신)

편 8器(5기 - 5석불, 3기 - 산신, 물신, 당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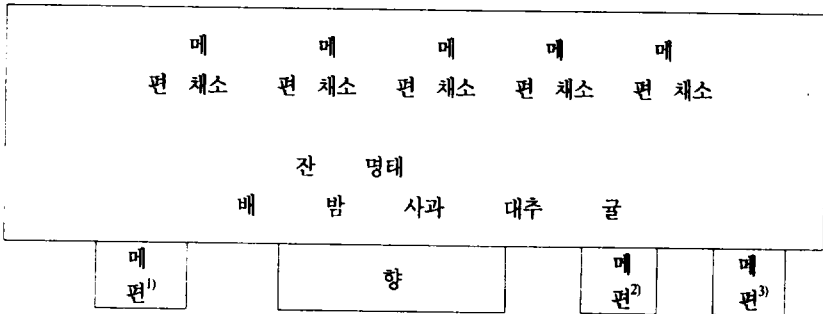
五果(배, 사과, 밤, 대추, 귤)

祭酒 : 소주, 쥬스

채소류 : 콩나물, 미나리, 무우.

명태(다른 바닷고기는 준비하지 않는다. 특히 돼지고기는 올리지 않는다.)

(9) 祭物陳設圖



주1) 산신상. 명태나 쇠고기를 올리기도 함. 2), 3) 생수신과 본향당신상. 해어톨 올림.

(10) 제의 준비 및 금기사항

- ① 祭日 3일전 마을 입구 5~6군데에 금줄을 친다.
- ② 제관들은 도가에서 3일정성을 드린다. 특히 정성기간에 제관들과 도가 부인들은 돼지고기나 술을 금한다.
- ③ 祭를 봉하기 전에 종이로 옷을 만들어 석불에 입힌다.

(11) 祭次

- ① 밤 8시 경에 출발하여 8시 30분 경에 화천사에 도착한다.
- ② 祭物陳設 : 메를 올릴 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올린다.
먼저 오석불에 올리는데 중앙에 있는 석불, 중앙석불의 오른쪽에 있는 석불, 중앙석불의 왼쪽에 있는 석불, 중앙석불의 오른쪽 끝에 있는 석불, 중앙석불의 왼쪽 끝에 있는 석불의 순으로 한다. 다음으로 본향당신, 생수신, 산신 순으로 메를 올린다.
- ③ 初獻官, 亞獻官, 終獻官이 차례로 헌잔하고 讀祝, 拜禮한다(이때 첨작은 하지 않는다).
- ④ 잡식
- ⑤ 5석불에 입힌 종이를 태운다.
- ⑥ 飲福 : 도가에서 마을 주민들과 제관들이 모두 모여서 나누어 먹는다.

1) 자녀들이 다 자라고 제 기간에 집안에 중요한 일이 없는 집을 선택한다.

(12) 祝文²⁾

石佛祭祝

吉寺石佛列位之前 伏以於赫明神 司我閩洞 清潔祭壇 岩岩有像 自今以昔 有禱必應 新正吉辰 擇吉齊沐 盡心致恪 祝願鑑格 人人途業 家家安堵 五穀豐登 六畜蕃殖 時疫怪疾 防送遠境 終歲無憂 報賽無疫 謹以香幣 柔盛醴齊 庶品式陳 祗薦于神 尚鑒

<제보자 : 전호범.59세>

(13) 祭服 및 祭器 : 마을회관에 보관하며 부인회에서 관리한다.

(14) 기타

- 丙戌년에 호열자(열병)가 들었는데 석불과 당이 있어서 동회천에는 들어오지 못했다고 한다.
- 석불이 영험하다고 하여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기도를 드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 특히 득남을 기원하거나 행방불명자를 찾고자 할 때 기도를 올린다고 한다.
- 동회천에 살다가 외지로 간 사람들이 3일정성 기간에 술을 가지고 도가에 찾아 오기도 한다고 한다.

2) 西回泉-里社祭

(1) 祭名 : 里社祭

(2) 祭神 : 里社之神

(3) 祭日 : 陰曆 初丁日이나 初亥日

當日祭 - 丑時

後日祭 - 亥時

(4) 祭壇 : 마을회관에서 지냄

(5) 祭儀管理(준비회의)

① 會議名 : 祭官選出會議 里社祭會議

② 會議日 : 陰曆 12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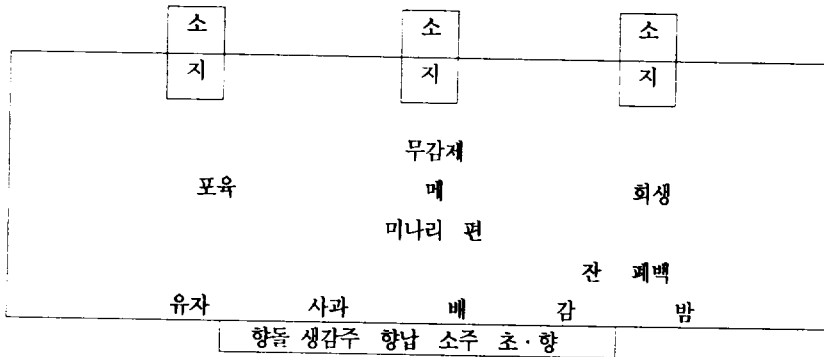
2) 조사시 축문을 구하지 못하여 『濟州市의 鄉土民俗』(계주시·계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93)에 수록된 축문을 실었다. p.78.

- ③ 祭官選出 : 연말 결산보고가 끝난 후 통장이 의장이 되어 선출한다. 상제관 삼원과 하제관 6명이 추천되고, 추천된 사람들 중 제 지내는 기간 중 집안에 별일이 없고 자신의 몸이 이상이 없으면 선출된다.
- ④ 祭費 : 가호당 일정액을 내기로 결정한다.

(6) 祭物

- ① 산메 1器
- ② 편 1器
- ③ 五果(유자, 사과, 배, 감, 대추 또는 밤)
- ④ 祭酒 : 소주, 생감주
- ⑤ 채소류(미나리)
- ⑥ 포육(쇠고기)
- ⑦ 희생 : 돼지 1마리를 내장만 빼고 생채로 구덕에 얹히고 입에 대입을 물려서 준비한다. 그리고 모혈(毛血)도 함께 진설한다.

(7) 祭物陳設圖



(8) 제의 준비 및 금기사항

- ① 祭日 3일전 새벽에 제관들은 마을회관(도가)에 집결하여 비짚으로 새끼줄을 끈다. 왼쪽으로 끈 새끼줄(잡귀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함)로 마을 진입로마다 금줄을 친다.
- ② 도가에 다시 집결한 후 3일정성에 들어간다. 初獻官의 지시하에 제관들은 3일 동안 도가에서만 생활한다.

- ③ 祭日 전날 3헌관은 당에 가서 인사를 드린다. 전에는 심방을 불러다가 이 제를 지냈는데 1992년부터 제관들이 자체적으로 인사를 드린다.
- ㉠ 제관들은 향물로 목욕하고 제복을 입고 당에 간다.
 - ㉡ 제물을 진설한 후 “당에 과세문안 왔습니다. 굶은 액도 없게 해줍서”하고 인사를 드린다.
 - ㉢ 3헌관이 배례한다.
 - ㉣ 제비를 잡는다.
 - ㉤ 잡식
 - ㉥ 휘향
 - ㉦ 음복
- ④ 祭日 아침에 부인회장, 통장부인, 마을 지도자 부인이 도가에서 제물을 준비한다.
- ⑤ 제관중 어느 한 사람이 사고가 나면 다른 사람으로 대처하지 않고 나머지 제관들만으로 제를 지낸다.

(9) 祭次

- ① 奠幣禮 - 初獻禮 - 亞獻禮 - 終獻禮 - 飲福 - 焚幣
- ② 飲福 : 먼저 초헌관이 음복한 다음, 마을 주민들이 모두 모여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10) 祝文³⁾

里社之神 祝文

維歲次 ○○正月○○朔 初○○日 ○○獻官 何名 敢昭告于

里社之神 伏以 於赫明神 盛矣基德 繫我民物 實賴爾極 爰及新正 梁牲差穀 物雖不腆 誠則靡忒 恭惟明靈 普施陰德 弭災招祥 轉禍爲福 扇以和氣 屏彼妖孽 人人壽福 家家安樂 豐厥五穀 蕃其六畜 瘧痘埃疫 乃驅乃逐 埤我一同 均夢嘉澤 敢溫鄙誠 薦此菲薄 神其洋洋 庶幾格格 謹以牲幣 體齊柔盛 庶品陳明 薦于神 尚 饗

- (11) 祭服 및 祭器 : 마을회관에 보관한다.

(12) 기타

산메를 쳐서 신수를 알아본다. 이때 메가 고루 평평하게 퍼져 있으면 마을의 새해 운수가 좋다고 여긴다.

3) 『濟州市의 鄉土民俗』, 제주시·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2, p.78

2. 堂祭

1) 동회천-하루산당

- (1) 堂名 : 東回泉 本郷堂
- (2) 堂神 : 하루산또
- (3) 神體 : 神木(팽나무)

품격	마을나무	고유번호	13-1-10-18
수종	팽나무	지정일자	82.10.22
수령	150년	소재지	동회천 2544
수고	20m	관리자	김인숙(회천동 1299)
둘레	3.50m		

(4) 祭日 : 陰曆 1월 14일 - 新過歲祭(마을의 新年祭)

陰曆 7월 14일 - 百中祭(牛馬増殖과 秋穀豐登을 비는 제. 동회천의 百中祭는 堂에 가서 지내기도 하고 동시에 개인별로 목장에서 돼지머리를 올리고 지내기도 한다.)
개인적으로 당제를 지낼 때는 3일, 7일, 9일날 중에서 날을 받아 간다.

(5) 祭物:

메 1器

편 1器

3종 과일(사과, 배, 귤 또는 수박)

祭酒(소주나 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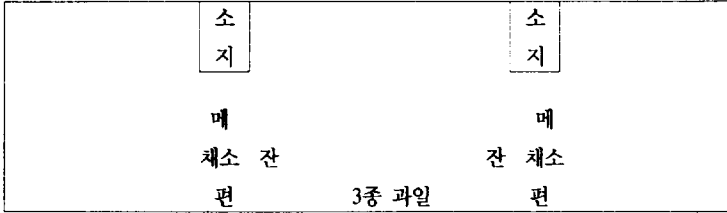
채소류(미나리, 콩나물)

海魚(비늘 있는 고기)

제비쌀 : 보리쌀 1되, 흰 쌀 1되

幣帛 : 시렁묵(3차 3치) 2개, 백지 1권

(6) 祭物陳設圖



(7) 祭次

- ① 오전 7시 30분에서 8시 사이에 시작해서 오후 2시 정도에 끝난다.
- ② 부녀회 간부가 길을 닦는다.
- ③ 명석을 깔고 제물을 진설한다.
- ④ 초감제 - 본향듬 - 추물공연 - 군옹놀림 - 도산받음 - 마을도액막음 - 집안액막음 - 산신놀이(닭놀이) - 도진 - 각산받음
- ⑤ 본향신을 청할 때 심방이 팔에 천을 묶고 감상기, 요령, 신칼을 들고 춤을 춘다. 그리고 음복지주잔을 던졌을 때 그것이 깨지면 마을의 새해 운수가 안좋고 안깨지면 좋은 것으로 여긴다.
- ⑥ 닭놀이
 - 장닭의 코를 꿰어 당 주위를 돌게 한다.
 - 닭을 잡은 후 간을 빼어 돈을 올리고 먹는 척 한다(닭은 심방이 가져간다).
- ⑦ 가호마다 모두 잔을 올린다.
- ⑧ 잡식 : 제단 뒷편 돌에 잡식한다.
- ⑨ 폐백 : 물색이나 지전들을 소각한다.

(9) 본풀이⁴⁾

윗손당은 금백주 셋손당은 세명주 알손당은 소로소천국 아들이기 열 여덟 일가친척 삼백 일흔 여덟 가지 가지 송에 송에 뻗어오던 한집님 여덟째 아들로 인간 탄생하여, 이당 한집님은 어릴 때에 글도 모르고 활도 못해 아버지 눈에 나니 아버님은 조총도 내어준다. 어머님은 코 맑은 화약심을 내어주며 너는 인간에 와서 글도 못하고 활도 못하니 저 산중으로 가서 사냥이나 해 먹으며 살라며 총과 화약 내어주니 아방 눈에 골리나고 어멍 눈에 시찌나난 나서느게 하로영산 물장오리 테역장오리 긴길거리 작은 길거리로 하여 나서서 오름마다 산천마다 다니며 쟁사농도 하여 간다. 아침이면 남노루로 하여 간다. 낮이 되면 남노루도 하여간다. 저녁이면 청노루도 하여다가 간, 태두,

4) 『濟州市의 鄉土民俗』, 제주시·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2, pp.156-157.

엄동, 석석한 때 회쳐먹고 더운 혈단 혈 녹비 녹설하고 평사농 매사농허연 종금종금 내려서는게 사농하며 사농에만 취미붙여 다니다 보니 저 버은내동산을 근당하였구나. 앉아 이 마을 아래를 굽어보니 만민 자손을 거느릴만한 마을이여. 동회천 새끼마을 자손들 단골을 삼아 이 자손들 거느릴 듯 하나 저 후송이빌레로 하여 내려서서 가름아래 근당하니 앉으면 장 냄새도 나고 사람냄새도 나서 이거 인간치가 너무 가까우니 못쓸 로구나. 이 자리에 근당합서. 동카름 만년 폭낭 아래로 좌정하였수다. 한집님은 앉아 천리를 보고 만리를 씩니다. 자손들 재미공연 올리져 삼진 정월 열 나흘날 근당하민 과세문안 대제일로 하고 마을안에 사는 자손이나 마을 밖에 사는 자손들은 옛날 부모 조상 다녔던 연줄로 어느 할머니 편으로 어버님 편으로 연줄 연줄로 왔다 가면 신병이 난 자손은 한집님이 신병을 좋게 하고 소원된 일있는 자손은 소원성취 이루어주고 장 사상업하는 자손들은 얼마만씩 주어 소원성취되게 하고 어느 기사들, 공장생활, 학생, 일선군인 간 자손, 외국 나라 가서 사는 자손, 어느 배 타고 바다에 다니는 자손들 앞길 밝혀 달라 축원하고 농사농업하는 자손들 오곡 농사 풍작 이루어주고, 야채 부업하는 자손들과 우마마소하는 이, 농장 차려 과수원하는 자손들 앞길 바르게 하여 줌서. 장적도 비게 맑서, 호적도 비게 맑서, 붉은 낙점도 비게 맑서하며 기원하고 생활도 앞게 맑고 생발도 앞게 말아 달라 축원하여 가면 자손들 다 편안하는 법이니 올 금년도 병인년 당하니 열 나흘 날 과세문안 대제일로 왔습니다. 한집님도 저만정 근당합니다.

<제보자 : 이정자, 여.38세>

(10) 祭壇 管理 : 1992년부터 제주시에서 당 관리비가 나옴(92년 : 40,000원, 93년 : 60,000원)

(11) 기타

- 신방은 세명 정도가 오며 제가 끝나면 신수를 보아 준다.
- 당이 자리하는 곳의 속칭은 '당우영'이다.

2) 서회천-남선밭당

- (1) 堂名 : 남선밭 할머니당
- (2) 堂神 : 남선비 할망
- (3) 神體 : 神木(팽나무)

품 격	마을나무	고유번호	13-1-10-16
수 종	팽나무	지정일자	82.10.22
수 령	250년	소재지	서회천 1057
수 고	20m	관리자	김순이
둘 래	3.30m		

(4) 祭日 : 마을제를 지낸 후 입춘이나 정월 초순에 개인적으로 택일해서 지낸다.

(5) 祭物

- ① 매 2궤(사발매 + 보시매)
- ② 편 2궤
- ③ 지숙(海魚) 1개(할머니신을 위한 사발매와 함께 올림)
- ④ 과일 3종
- ⑤ 祭酒 : 소주 또는 쥬스
- ⑥ 채소류(콩나물, 마나리, 무우, 고사리)
- ⑦ 바닷고기 2개(돼지고기는 올리지 않음)
- ⑧ 계란 2~3개(아이들 피부에 부스럼이 있을때 삶은 달걀 표면처럼 부드러운지라고 기원한다.)
- ⑨ 당절이 : 지전 6장, 실, 자치, 시령묵 3장
- ⑩ 예방 : 동쪽으로 뻗은 버드나무가지 3개

(6) 禁忌

제를 지내기 7일이나 8일 전부터 정성을 드리는데, 특히 장발에 가지 말고 굶은 일을 보지 않도록 한다.

(7) 본풀이⁵⁾

남선발 일외중주 서당국서 큰도부인 얘기문을 물비리 당비리 불러주던 신당한집 손당 당 열두척 아들 큰부인 얘기문을 상마울 업개문을 청윤래 시문굿을 받아오던 신당한집

祭日 : 매 7일, 17일, 27일 (삼도동 남부 58세, 김오생님)

<진성기, 『무가사전』, 339면>

(10) 祭次

- ① “할머님 정성드리러 여기에 왔습니다.”
동쪽 궤문을 열면서, “할머님 동창궤 열엄수다.”
서쪽 궤문을 열면서, “할머님 서창궤 열엄수다.”
- ② 祭物을 陳設함과 동시에 자녀의 나이를 적어서 올린다.
- ③ 큰절 3번

5) 『濟州市의 郷土民俗』, 제주시·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2, p.157

④ 비념

“할머님 여기 이제 와수다.
웃동네에서, 알동네에서 정성드리러 왔수다.
집안 식구 편안하게 해주렌 와수다. 부디 올 한해도 두루 복있게 해주셔.”

⑤ 제비쌀⁶⁾을 잡았을 때 6방울이나 8방울이 나오면 좋다.

⑥ 잡식 : 동쪽 궤와 서쪽 궤에 잡식한다.

(11) 기타

이전에는 삼신할망이 제를 지낼 당시 정월 초하루부터 한 달간 당을 지켰고, 그 기간에 마을 사람들이 인정을 올리고 신수도 보았다고 한다.

3. 家庭信仰

가정신앙으로 조왕제와 산신제, 토신제를 지내는데 주로 토신제를 지낸다. 본 조사에서는 토신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1) 土神祭

(1) 神名 : 土地神

(2) 祭日 : 陰曆 정월 또는 이월에 택일해서 제를 지낸다.

(3) 祭場 : 개인별로 집안에서 지낸다.

(4) 祭物 : 메, 편, 實果, 祭酒

(5) 祭儀執行者 : 土神祭를 지내는 분이나 스님

(6) 祝文⁷⁾

土神祝文

維歲次 年 月 朔日 沙門 敢昭告于
土地之神伏爲 宅主 乾命 鑲我家宅 神其保佑 賜降多祿 五穀豐登 六畜蕃盛 永歲
有慶 春貽安樂 毫無疾疫 謹以清酌脯醢 祗薦于神 尚 饗

6) 첫 수확한 보리쌀

7) 화천사 주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른다.

2) 조왕제:8)

심방을 불러다 지내는데, 재물에 소금을 넣지 않고 돼지고기를 올리지 않는다. 재물로 명태, 해어, 쇠고기를 올린다.

3) 맹감제:9)

옛날에는 귀신을 방지하기 위해 묘 없는 깨끗한 밭의 황토흙을 가져다가 마당에 뿌렸다고 한다. 요즘에는 이 재를 지낼 경우 황토흙 대신 팔을 뿌린다고 한다.

III. 公認宗教

0. 화천사

1) 공식명칭

대한불교 태고종 제주교구 화천사

2) 연혁(유래)

영조 때 이형상이 목사로 부임하여 제주도 절 5백 당 5백을 일거에 말살시킨 사건이 있었다. 이때 회전에 있던 큰 절이 없어지자 젊은이들이 죽어갔다. 마을 주민들이 이를 근심하여 5석불을 만들어 모시게 되었다. 그리고 동생미천 옆에 송제술 스님이 만덕사를 지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물이 막혀서 절이 없어지고 원당봉에 있는 원당사로 합병하게 되었다. 이때 송도원성 할머니가 지금의 화천사 자리에 초막을 짓고 살면서 신도들이 불공이나 치성을 드리러 오면 함께 기도를 드리곤 했었다. 운공스님이 이 모습을 보고 절터로서 적합한 곳이라 여겨 화천사를 1971년에 세웠고, 1981년에 현재의 주지가 부임했다.

3) 교인현황

-
- 8) 조왕제(炤王祭) : 주로 <조왕>신을 위하는 것이지만 <문전>이나 <안칠성> <뱃칠성>에게도 의례하여 가내의 諸神에게 신년의 가내 안전을 비는 제사이다.
 - 9) 맹감제 : 생김의 풍요를 비는 신년제이다. 특히 농업이나 수렵의 풍요를 비는 데 중점을 둔다.

回泉里 學術調查報告

동회천 - 마을 2/3세대

서회천 - 마을 1/2세대

신촌리 - 40세대

일도2동 - 130세대

4) 대지면적

절당 - 230평

전체 - 400평

5) 예배장소

대웅전, 대웅전 안에 3존불(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모시고 있고 산신, 칠성을 탕화로 모시고 있다.

6) 예배

- 정기 법회 : 매월 음력 7일날 불공 드린다.
- 기타 : 다른 불교행사와 동일
- 마을 주민들의 부탁에 따라 스님이 토신제나 칠성제를 올려주기도 한다.

7) 대표자

주지스님 법명 - 복혜(속가 : 35세)

세보자

마을제 : 석불제-허신생(83), 허언(70), 리사제-홍백룡(), 고선수(남·60), 양정기(남·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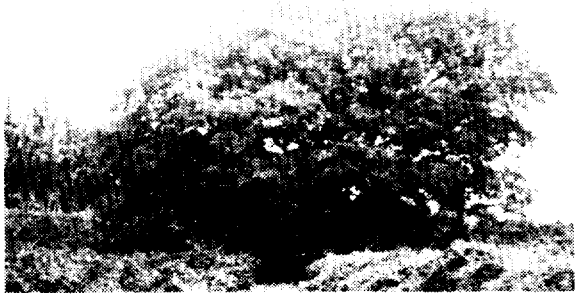
당제 : 하루산당-김인숙(여·54), 남선밭당-고신봉(73), 김순생(여·66)

가정신앙 : 허언(70), 화천사 주지스님

화천사 : 화천사 주지(속가:35)



동회천 당 전경



서회천 당 전경



동회천 식물제단

彙報

(1992. 3. 1-1994. 2. 28)

1. 教授動靜

梁重海 教授

1992. 8. 21. 고별강연
1992. 8. 26. 정년퇴임기념 논문집 『국어국문학논총』 봉정식(오리엔탈호텔)
1992. 8. 31. 시집 『漢拏別曲』(濟州文化) 간행
1992. 8. 31. 정년퇴임

玄容駿 教授

1992. 7. 『巫歌 속의 제주방언』(『제주도』92, 제주도) 발표
1992. 9. 20 『한국신화의 세계구조』(『玄谷 梁重海博士 定年退任 紀念 국어국문학
논총』, 논총간행위원회) 발표
1992. 11. 3. 화갑기념논문집 『濟州島言語民俗論叢』(제주문화) 봉정식(오리엔탈호텔)
1992. 11. 30. 『巫俗神話와 文獻神話』(集文堂)·출판
1993. 3. 1. 탐라문화연구소장 취임
1993. 9. 19. 동아시아 비교민속학 국제심포지움에서 「제주도 무속의 특성과 연구과
제」 발표

梁淳秘 教授

1992. 6. 『李源祚의 <耽羅十謠> 小考』(『논문집』34, 제주대학교) 발표
1992. 7, 12. 『日本에서의 朝鮮現代文學研究 疏開小史』(『제주문학』21-22, 제주문인
협회) 번역
1992. 9. 『尤庵 宋時烈的 濟州流配詩 小考』(『白鹿語文』9, 제주대학교 국어교육
학회) 발표

1992. 10. 「16·17世紀 濟州風土錄과 風土記의 對比」(『玄谷駿博士 華甲紀念 濟州島 言語民俗論叢』, 제주문화) 발표
1993. 「濟州道 人文科學 論著」(『濟州道誌』3, 제주도) 발표
1993. 6. 국어국문학회 이사·한국언어문학회 부회장 피선
1993. 12. 9. 화갑기념 논문집 『어문학논총』(학문사) 봉정식(오리엔탈호텔)

崔圭一 教授

1992. 3. - 1994. 2. 국어학회 이사로 활동
1992. 7. 22 - 8. 23. 독일 연수(Born Universität)
1992. 9. 20. 「국어교육에서 고쳐 바로잡아야 할 말과 글」(『白鹿語文』9, 제주대학교 국어교육학회) 발표
1993. 7. 10 - 7. 26. U.S.A. 퍼듀 대학 시찰·연수

金泰琨 教授

1992. 12. 19. 「17世紀 國語의 多義語 研究(I)」(『논문집』35, 제주대학교) 발표
1993. 11. 30. 「17世紀 國語의 多義語 研究(II)」(『勤齋 梁淳珣博士 華甲紀念 語文學論叢』, 學文社) 발표

尹錫山 教授

1993. 10. 「萬海詩의 話題와 語法」(『鍾江 崔元圭博士 華甲紀念 韓國現代詩人 研究』, 논총간행위원회) 발표
1993. 11. 「現代詩의 距離類型과 移動裝置」(『勤齋 梁淳珣博士 華甲紀念 語文學論叢』, 學文社) 발표
1993. 12. 1.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교무과장 임기만료
1993. 12. 「이인화 소설의 재미의 원천」(『예술세계』12, 한국예술인연합회) 발표
1994. 2. 「신춘문에 당선한 세 新人的 叛逆의 意味」(『예술세계』2, 한국예술인연합회) 발표

文聖淑 教授

1992. 12. 「제주설화의 현대문학적 변용」(『제주문화』22, 문협제주도지부) 발표
1993. 12. 「민중문학 논의를 위한 제언」(『한얼』8, 방송통신대 제주지역 국어국문학과) 발표

彙報

1993. 12. 「현실과 진실의 탐색작업」(『제주문학』24, 문협제주도지부) 발표
1993. 12. 「설화의 소설적 변용」(『제주문화연구』, 제주문화) 발표
- 安成洙 教授
1992. 8. 31. 「플롯의 미적 기능과 유형적 의미」(『玄谷 梁重海博士 定年退任 紀念 국어국문학논총』, 논총간행위원회) 발표
1992. 10. 「韓國 近代小說의 플롯詩學 研究」(1990년도 문교부 지원, 한국학술진흥재단) 발표
1993. 3. 「객관적 상관물과 거울의 미학」(『中大文壇』4) 발표
1993. 9. 「불혹의 상상력과 거울의 미학」(『진흙바닥의 인사』, 도서출판 진화) 발표
1993. 11. 「현대소설의 시간연구 방법론」(『勤齋 梁淳瑋博士 華甲紀念 語文學論叢』, 學文社) 발표
1993. 12. 수필 「동작그만」(『현대수필』, 현대수필사) 발표

2. 學會活動 日誌

· 1992년도

1. 2. 신년하례식
2. 7. 졸업생 환송회
2. 25.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3. 2. 신입생 환영회
3. 16. 학생회 정기총회
3. 25-26 MT.
5. 5. 체육대회
5. 15 스승의 날 행사
6. 9. 학회 총회
7. 24-27. 학술조사(북제주군 조천읍 선흘리)
9. 20. 『白鹿語文』9집 발간(440면)

- 9. 28.-29 학과 축제
- 10. 9. 전도 중 · 고등학생 문학백일장

· 1993년도

- 1. 2. 신년하례식
- 3. 2. 신입생 환영회
- 3. 16. 학생회 정기총회
- 3. 19-20 MT.
- 5. 15 스승의 날 행사
- 6. 9. 학회 총회
- 7. 30.-8. 2. 학술조사(제주시 봉개동 회천리)
- 9. 17.-18 학과 축제
- 10. 9. 전도 중 · 고등학생 문학백일장

· 1994년도

- 1. 2. 신년하례식
- 2. 19. 백록어문학회 창립총회(시몽호텔)